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2011.12.30

제 출 문

당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忠南發展研究院

院長 朴珍道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경관형성을 위한 STAR-Project

STAR-Project 3 | 충효_역사문화거리

의미: 역사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내용: 걸으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와 생활을 느낄 수 있는 공간

STAR-Project 1 | 내포면천_저자거리

의미: 방문객(살거리, 먹을거리 등)과 주민(팔거리)이 교류하는 장소

내용: 먹거리장터, 민속공간, 놀이마당, 체험장에서 진달래와 토속적 정취를 체험하는 공간

STAR-Project 2 | 진달래_문화예술공원

의미: 진달래, 두견, 영랑 등 면천이 타도시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

내용: 진달래테마공원, 갤러리(미술), 문화관(문학), 전수관 등을 조성하여 독특한 경관이미지 형성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2011.12.30



Energetic Dangjin

당진시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목 차

1. 계획의 개요

① 계획 배경 및 목적	3
② 계획 성격과 범위	4
③ 계획 수립체계	7

2.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구조 분석

① 면천 경관형성의 역사적 배경	11
② 면천 주변지역 경관 일반 현황	25
③ 역사문화 경관자원 현황	29
④ 경관구조 분석	52

3. 주민의식 및 이미지조사·분석

① 조사 개요	59
② 면천의 도시 이미지	60
③ 면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61

4. 관련법규·계획 및 사례조사

① 관련법규·계획 조사	71
② 사례조사	87

5.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① SWOT분석	111
② 계획과제 도출	115

6. 기본구상

① 경관형성 목표와 전략	121
② 경관구역 설정과 설계 기본 방향	123
③ 권역별 기본 구상	125

7.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139
②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149
③ 공공시설물 설계지침	156
④ 색채 경관설계지침	164
⑤ 주요 가로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175

8. 관리 및 실행계획

① 관리계획	187
② 실행계획	190

* 부록

① 보고회 및 자문회의 내용	207
② 주민설문내용 - 설문지	217
③ 색채경관현황조사	222

표 목차

[표 2-1] 충청도의 군현편제에서 면천	12
[표 2-2] 면천군 각 면별 호구 현황	15
[표 2-3] 조선후기 내포지역 군현별 인구와 경작지 현황	16
[표 2-4] 충청지역 역참	17
[표 2-5] 충청지역의 조창	17
[표 2-6] 『세종실록지리지』의 각 도별 토성	18
[표 2-7] 면천과 당진의 성씨	19
[표 2-8] 충남 군별 사마시 입격자 현황	21
[표 2-9] 시기별 합격자 현황	21
[표 2-10] 선조 이전 입격자 배출 가문	22
[표 2-11] 시험 종류와 출신자 현황	22
[표 2-12] 입격자의 본관별 현황	24
[표 3-1] 면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평가	60
[표 3-2]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 상	61
[표 6-1] 경관형성 목표와 기본개념	123
[표 7-1] 옥외광고물 설치 지침	149
[표 7-2] 국내외 상징문 조성 사례	182
[표 8-1]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계획의 실행방안 내용	189
[표 8-2] 경관관리 대상 및 설계지침의 적용	190
[표 8-3] 경관관리 대상 및 설계지침	194
[표 8-4] 역사문화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	200

그림 목차

[그림 1-1] 계획의 성격	4
[그림 1-2]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와 전략과의 관계	7
[그림 1-3] 계획수립 체계	8
[그림 2-1] 면천읍성 남쪽 전경	11
[그림 2-2] 면천군 고지도	12
[그림 2-3] 당진군 읍면 지도	14
[그림 2-4] 면천 주변지역 광역경관 일반현황도	25

[그림 2-5] 면천지역 표고, 경사, 향 분석도	27
[그림 2-6] 면천 주변지역의 경관 일반현황도	28
[그림 2-7] 면천의 역사적 장소	29
[그림 2-8] 면천의 역사적 사건	33
[그림 2-9] 면천의 역사적 인물	35
[그림 2-10] 문화 예술 창조 기반시설	39
[그림 2-11] 자연경관	40
[그림 2-12] 수변경관	42
[그림 2-13] 경관분석도	52
[그림 2-14] 몽산에서 본 면천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53
[그림 2-15] 몽산 방향에서 본 면천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53
[그림 2-16] 서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54
[그림 2-17] 서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54
[그림 2-18]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55
[그림 2-19]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55
[그림 2-20]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56
[그림 2-21]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56
[그림 3-1] 면천의 현재 도시 이미지	60
[그림 3-2] 면천의 역사적 요소에 대한 의식	61
[그림 3-3] 면천의 문화예술적 요소에 대한 의식	64
[그림 3-4] 면천의 도시경관적 요소에 대한 의식	66
[그림 3-5] 면천의 문화산업(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의식	67
[그림 3-6] 면천의 주민의식적 요소에 대한 의식	68
[그림 4-1] 면천읍성 정비사업 계획도	82
[그림 4-2] 연도별 북촌가꾸기 추진현황	95
[그림 4-3] 쇼와거리 안내도 및 모습	103
[그림 4-4] 역사문화경관 요소	106
[그림 4-5] 민가형의 공공건축물	106
[그림 4-6] 마을환경디자인의 종류	107
[그림 5-1] SWOT 분석	114
[그림 5-2] 계획과제 도출	118
[그림 6-1] 경관형성 목표와 기본개념	121
[그림 6-2] 경관권역 설계	124
[그림 6-3] 역사문화도심 경관권 기본구상	126
[그림 6-4] 역사문화지구 형성 기본구상	127
[그림 6-5]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예시)	129
[그림 6-6] 저자거리 형성(예시)	130

[그림 6-7] 자연녹지 및 성곽축 경관 현황	131
[그림 6-8] 자연녹지·성곽축 경관형성 기본방침	132
[그림 6-9] 수변축 경관형성 기본방침	134
[그림 6-10] 원동저수지 수변경관형성 지침	136
[그림 7-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140
[그림 7-2] 가로형 간판 상세 디자인 일반지침	150
[그림 7-3] 가로형 간판 적용	151
[그림 7-4] 돌출형 간판 적용	152
[그림 7-5] 소형돌출 간판 적용	153
[그림 7-6] 소형돌출 간판 적용 사례사진	153
[그림 7-7] 지주이용 간판 적용	154
[그림 7-8] 창문이용광고물 적용	155
[그림 7-9] 면천의 색채이미지 현황	164
[그림 7-10] 당진 면천의 미래 경관색채이미지	165
[그림 7-11] 주요 가로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176
[그림 8-1]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관리계획의 틀	187
[부록그림-1]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 색채의 모자이크 분석	223
[부록그림-2]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의 색채분포도	224
[부록그림-3]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224
[부록그림-4] 축색현황(면셀표색계를 이용한 육안비색법 & 휴대용 접물색채계)	225
[부록그림-5] 건축물의 지붕색과 건물외벽색의 축색결과 예시(1HS-2의 예)	226
[부록그림-6] 건축물 외벽색의 면셀분포도	226
[부록그림-7] 건축물 외벽색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227
[부록그림-8] 건축물 지붕색의 면셀분포도	227
[부록그림-9] 건축물 지붕색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228
[부록그림-10] 가로시설물 모자이크 분석	228
[부록그림-11] 가로시설물의 면셀분포도	229
[부록그림-12] 가로시설물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229
[부록그림-13] 당진 면천의 현재의 색채이미지	230

제 1 장

계획의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2. 계획 성격과 범위
3. 계획 수립체계

1. 계획 배경 및 목적

1.1. 계획 배경

● 당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필요

- 고속도로 개통, 당진항 지정,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지역에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증대

● 면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경관 형성의 필요성 대두

- 면천읍성 주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역사문화경관 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 형성계획 필요

● 면천읍성과 주변 경관이 조화된 역사문화경관 형성과 자원화

- 면천읍성의 역사적 장소성과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된 역사문화도시 경관 이미지를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 삶의 질 개선 및 당진 면천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

1.2. 계획 목적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 계획 수립

- 21세기 문화시대에 대응하고 선도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사문화도시 경관을 형성하며, 당진군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
- 면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자연·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종합 분석과 체계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 면천의 도시정체성 확립 및 도시이미지 제고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 실행방안 및 운영체계 마련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및 운영체계 마련

2. 계획 성격과 범위

2.1. 계획 성격

- 본 계획의 성격은 다음과 같음

면천 역사문화경관 형성을 위한 유도적 수법의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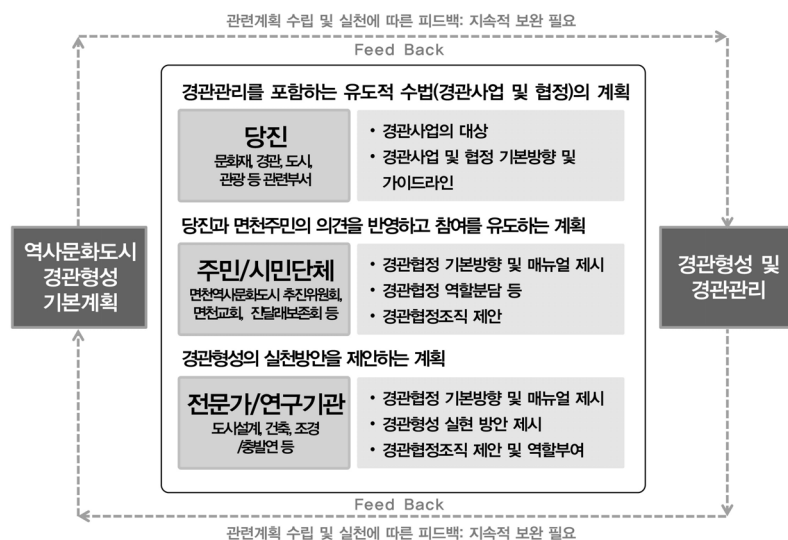
-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경관이미지를 형성을 위해 규제적인 수법이 아닌 경관형성사업, 경관협정, 유도적인 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경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적 수법의 계획

당진과 면천지역주민의 의견반영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 경관형성과 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문화도시 경관협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면천 역사문화경관 형성의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실천적인 계획

- 계획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경관설계지침, 사업, 협정,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특히 국가, 도, 군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계획, 재정계획을 수립



[그림 1-1] 계획의 성격

2.2. 계획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면천면 성상리, 성하리, 사기소리, 원동리, 순성면 양유리 일원
- ▶ 면천읍성 및 주변지역, 몽산성 내, 문화유적 주변, 면천관문 주변
- 면적 : 약18km²

2)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 년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
- ▶ 자료 작성 통계자료의 기준년도는 2010년을 기준으로 사용

3) 내용적 범위

-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 경관자원의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계획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 ▶ 역사문화도시 면천의 경관형성을 위한 자연경관자원(녹지, 수변경관), 산림 경관자원, 농촌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색채 및 야간경관 포함),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 경관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요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 경관자원은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
- ▶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행사나 이벤트, 풍수 등 비 물리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

경관 기본구상 설정

- 면천지역 전체의 거시적 경관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

- 거시적 경관에서 설정된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경관권역, 경관축 및 경관거점지구를 설정하고 기본구상의 방향을 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지구별 추구해야 할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을 설정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향을 제시
- 경관중점관리구역(경관축, 경관거점지구 내)을 설정하고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 및 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제시
- 경관상세계획의 방향, 원칙 등을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

경관 설계지침(가이드라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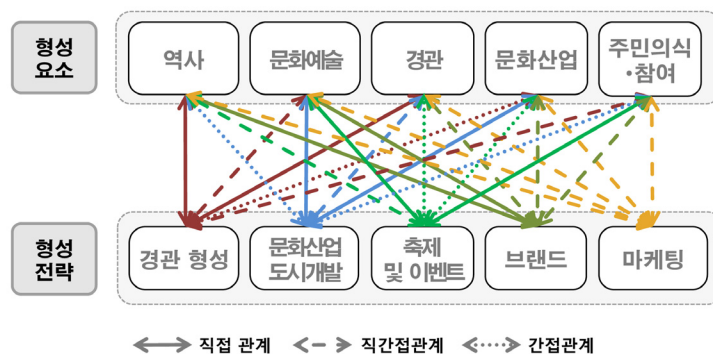
-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
 - ▶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 역사문화, 시가지, 가로, 수변, 산림, 농산어촌 등 동일한 경관유형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제시
 - ▶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 공공시설물(도로, 산림, 공원, 문화재, 안내판, 색채, 야간조명, 도시시설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구성요소별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제시

실행계획 수립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 ▶ 면천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대한 관련법과의 연계관리 방안
 - ▶ 경관조례의 개정 및 경관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
 - ▶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유형 및 핵심 내용)
 - ▶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 단계별 사업계획, 예산 및 투자계획 수립

3. 계획 수립체계

-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은 역사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경관적으로 구현되어 인지되느냐로 볼 수 있음
- 즉, 역사, 문화예술, 경관, 문화산업, 공동체(주민의식)적 요소와 함께 이러한 요소가 경관적으로 잘 구현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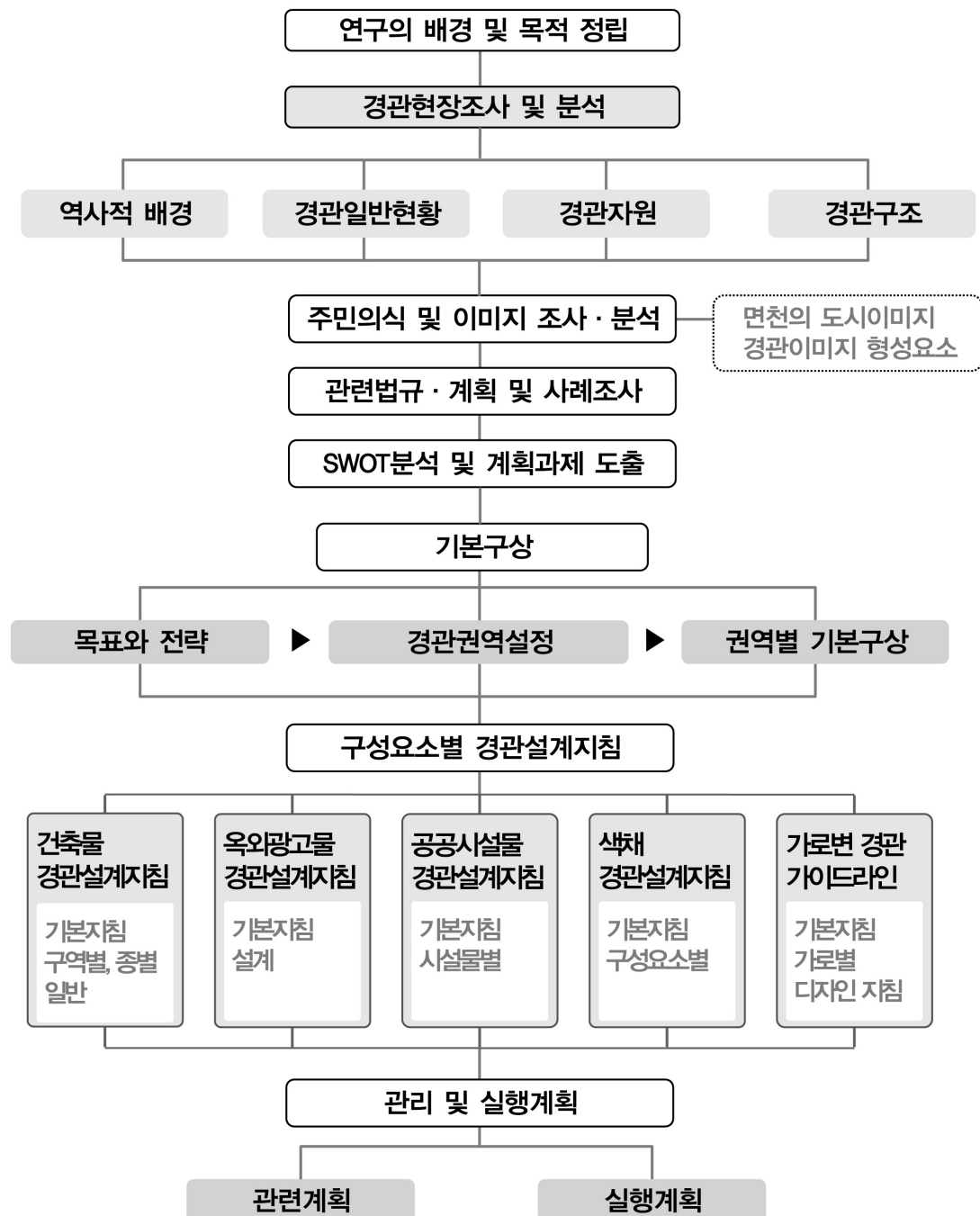
자료: 박철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모형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1.2, 박사학위논문, p71.

[그림 1-2]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와 전략과의 관계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계획은 총8장으로 구성하여 계획하였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수립체계를 정립
- 제2장과 3장에서는 면천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예술, 경관, 문화산업, 공동체(주민의식)적 요소들에 대한 특징과 경관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시구조적 측면, 가로경관적 측면, 건축적 측면에서 조사분석을 실시
- 제4장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와 합리적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제2장의 경관현황조사, 제3장의 주민의식조사 및 제4장의 상위계획 및 관련사례조사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면천의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제6장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의 목표와 전략, 기본방향 및 권역별 경관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마련
-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성요소를 참조하여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가로변

경관 등으로 나누어 제시

- 제8장에서는 수립된 기본구상과 설계지침 실현을 위한 관리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음



[그림 1-3] 계획수립 체계

제 2 장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구조 분석

1. 면천 경관형성의 역사적 배경
2. 면천 주변지역 경관 일반 현황
3. 역사문화 경관자원 현황
4. 경관구조 분석

1. 면천 경관형성의 역사적 배경¹⁾



[그림 2-1] 면천읍성 남쪽 전경

- 조선시대의 면천은 행정구역상 현재의 당진시 대부분을 아우르며, 조선후기까지 읍치(邑治)로써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음
- 면천은 내포평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당진과 덕산, 예산, 신창으로 통하고 아산 貢津倉과 한양으로 가는 교통 및 조운로의 요지였으며, 아산만과 접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음
- 현재 면소재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면천읍성²⁾은 조선시대 면천의 성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조선후기까지 면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와 지역의 문화 및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음

지리적 배경

- 조선시대의 면천군(1413~1895) 지역을 바탕으로 하되, 1895년 면천군에 통합된 신평면과 함덕면 등도 포함하여 다룸³⁾
- 즉 일제에 의하여 당진시와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1914년 이전의 면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역사적 연속성의 이해를 위해 일부의 사례는 일제강점기의 현황과 대비하여 살핌

경제적 배경

- 인구와 토지의 변화 및 역로와 조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접근

사회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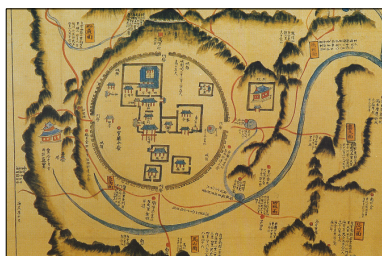
- 면천지역의 학문과 재지세력의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의 세거성씨와 사마시 입격자를 중심으로 살핌

1) 본 원고의 내용은 당진시에서 발행한 『면천읍성 연구』(2011)의 내용 중 ‘조선시대 면천읍치 형성의 배경과 재지세력’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2) 읍성의 축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종 때부터이다. 「축성신도」가 반포되면서 읍성이 규격화되었고, 이후에 축조된 전국 읍성은 일률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10년 일본에 의하여 읍성철폐령이 내려지면서 대부분의 읍성들이 헐렸다. 현존하는 읍성으로는 정조 때 축조된 화성(華城)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동래읍성·해미읍성·비인읍성·남포읍성·홍주읍성·보령읍성·남원읍성·고창읍성(일명 모양성)·홍덕읍성·낙안읍성·진도읍성·경주읍성·진주읍성(일명 축석성)·언양읍성·거제읍성 등이 있다. 현존하는 지방 관아 건축물은 대부분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에도 직산현 관아, 해미읍성 및 동헌 등 1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읍성은 거주 주체가 군현주민이기 때문에 읍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성으로 둘러싸인 취락을 의미하므로 가운데에 왕궁과 종묘가 있는 都城과는 구별되었다. 면천읍성은 조선후기까지 면천지역 중심 치소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근대 이후 당진시의 군세가 커지면서 면소재지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벽과 남벽의 일부, 그리고 남문지를 포함하여 그를 둘러싸고 축조된 읍성의 일부만이 원형을 유지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당진군 『沔川邑城』, 1999).

3) 본고의 서술과정에서 당진과 면천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한 것은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였다.

1.1. 지리적 배경



[그림 2-2] 면천군 고지도

-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 정치·경제·사상 등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전 왕조와 다른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중앙과 지방행정 운영의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면천의 행정구역도 재편됨
- 국가의 지방지배체제 개편에 의하여 군현제가 정비되고, 직접 지배를 위한 수령제가 강화되면서 각 군현의 재지세력⁴⁾ 역시 재편됨
- 태종 13년(1413) 당진현에 현감을 두었고, 면주를 면천군으로 고쳤으며, 신평현은 홍주의 속현으로 하였음⁵⁾
- 충청도는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 좌도와 우도로 나눌 때 4개목 중 충주와 청주는 충청좌도에, 공주와 홍주는 충청우도를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면천은 충청우도의 홍주목에 속하였음

[표 2-1] 충청도의 군현편제에서 면천

구분		소속 군현
충청 좌도	충주	청도 · 단양 · 괴산 · 연풍 · 음성 · 영춘 · 제천
	청주	천안 · 옥천 · 문의 · 직산 · 목천 · 회인 · 청안 · 진천 · 보은 · 영동 · 황간 · 청산
충청 우도	공주	임천 · 한산 · 전의 · 정산 · 은진 · 회덕 · 진잠 · 연산 · 노성 · 부여 · 식성 · 연기
	홍주	서천 · 서산 · 태안 · 면천 · 온양 · 평택 · 홍산 · 덕산 · 청양 · 대흥 · 비인 · 남포 · 결성 · 보령 · 아산 · 신창 · 예산 · 해미 · 당진

- 면천이 속한 홍주목은 조선후기에 27개 면을 관할할 정도로 내포지역 중 최대의 영역을 이루면서 충청도의 경제, 사회 및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하였으며,⁶⁾ 이때 면천의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임
- 면천이란 지명은 서북쪽에 있는 高山에서 많은 내(川)가 흘러내

4)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전까지 향촌의 지배적 위치에 있던 鄕吏의 지위는 낮아졌고, 각 지역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던 吏族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졌던 것이다. 고려 말까지 土姓吏族의 기반이자 행정·경제·정치 중심이었던 郡縣의 邑治에는 鄕吏가 거주하고, 재지토성들 중 일부는 사족화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임선빈, 『조선초기 외관제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6 참조).

5) 면천 이외 3개 현의 연혁은 홍석표의 글(『당진군사』, 『내포문화』 창간호,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88) 참조.

6) 조선시대 홍주지역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임선빈의 글(『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성격』, 『근대이행시 지역엘리트 연구』 1, 경인문화사, 2006)과 김경수(『내포의 중심, 어제의 홍주와 오늘의 홍성』, 『대학생활연구』 9, 청운대학교 인력개발센터, 2008), 『홍주대관』(홍성군지편찬위원회, 2002) 등 참조.

리고 있어 ‘내가 흘러 가득하다.’라는 말과도 연관됨⁷⁾

- 면천의 지명은 해군(海郡)·해성(海城)·마산(馬山)·해종(海宗)·면주(沔州)등으로 불리며,⁸⁾ 마산과 해종은 『대동지지』에도 보임
- 조선 건국 이후 태종 13년에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진행될 때 당진에는 현, 면천에는 군이 설치되며, 갑오경장 이후 지방행정구역의 변동에 의하여 홍주에 속했던 신평지역의 현내면, 신남면, 신북면 등 3개면과 합덕지역에 속했던 합남, 합북 등 2개면이 면천군에 통합되어, 현재의 당진은 면천군과 당진군, 합덕현, 신평현⁹⁾ 등으로 통합됨¹⁰⁾
- 그러나 이러한 편제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33년(1896)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면천군 등은 공주 예하의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었으며, 이후 1914년 4월 1일에 부령 제11호로 면천군은 폐지되고, 홍성군 일부를 합하여 당진군으로 속함¹¹⁾
- 오늘 현재의 면천은 당진군의 12개 읍면 중 하나의 면에 불과하지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까지 22개 면 308개 리를 관할하는 거대한 군으로 당진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핵심으로써 읍치의 역할을 수행하였음¹²⁾
- 즉 현재 당진시 서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고대면, 석문면, 당진읍은 당진시 지역이고, 동남부의 합덕읍, 우강면, 신평면, 순성면, 송악읍, 송산면, 면천면 등이 면천군 지역이었음¹³⁾
- 이상과 같은 행정구역의 변화를 볼 때, 면천의 지역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빈번한 행정구역의 변천과 다수의 월경지 설치 등 지방행정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복잡했었음
- 둘째, 우강·합덕 지역의 우평강문 평야가 비옥한 미곡 생산 지대였

7) 『당진군지』 上(당진군지편찬위원회, 1997).

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면천군조.

9) 신평지역의 신남면은 현재의 합덕지역까지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893년 설달 그믐날(양력 1894년 2월 6일)에 발생한 합덕 농민항쟁 당시의 전병사李廷珪의 집이 ‘洪州牧 新南面 倉里’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현재 ‘합덕읍 합덕리’이다(『합덕읍지』, 1997).

10) 이러한 행정편제는 1914년 당진과 면천이 당진군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홍석표, 「당진군사」, 『내포문화』 창간호,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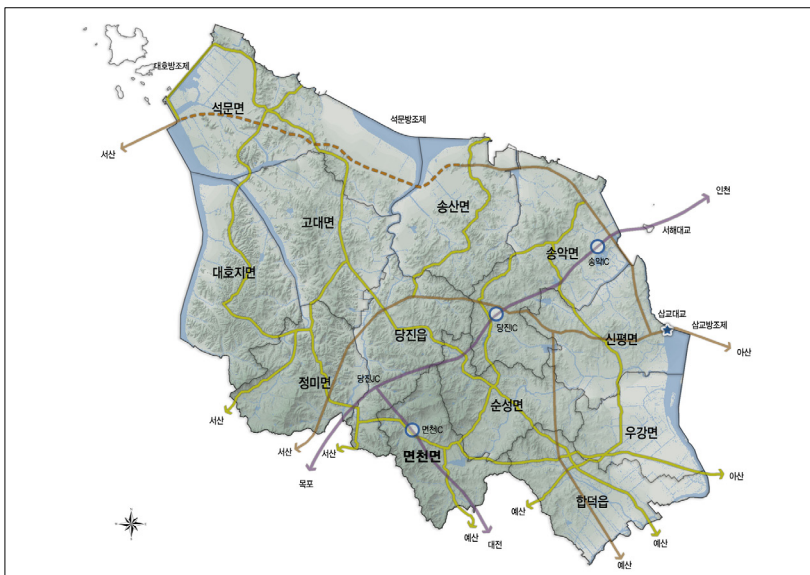
11)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 당진현은 8개 면 130 동리를 관할하였으며, 소재지는 군내면 성내리였다. 이에 비해 면천군은 22개면 308 동리를 관할하는 거대한 군이었고, 소재지는 읍내면 성내리였다. 인구나 토지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군세와 행정적인 중요성, 유물과 유적의 분포 등에서 면천이 당진을 압도하고 있었다(김남석,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민족운동 연구』, 충남대박사논문, 2010).

13)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근현대시기 당진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남석의 글(『일제강점기 당진지역 민족운동 연구』, 충남대박사논문, 2010) 참조.

으나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부재지주가 많았음

- 셋째, 주변 지역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진 교통의 요지로서¹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외부에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육상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 포구가 세곡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통의 교두보였음¹⁵⁾
- 넷째, 지리적으로 아미산(峨嵋山)을 종산(宗山)으로, 몽산(蒙山)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은 산지지형, 동부지역은 평지를 이루고 있음
- 한편,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면천읍치의 지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풍수지리학상 최고의 길지라는 특징이 확인되며¹⁶⁾ 이러한 역사지리적 요인들이 반영되어 조선시대 읍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오늘 현재의 당진시는 2010년에 송악면이 송악읍으로 승격되면서 3개읍(당진읍, 합덕읍, 송악읍) 9개면(면천면, 우강면, 고대면, 송산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신평면, 순성면)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림 2-3] 당진시 읍면 지도

14) 이에 대해서는 1894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7월 21일까지 276일 동안 면천군수직을 역임하였던 박시순의 『沔紱日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정순우·김학수,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의 내용과 성격」, 『한국학자료총서』 22, 1999).

15) 근대 이후 물자의 구매와 자녀의 교육이 충남의 중심지인 대전보다 인천이나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진을 포함하여 면천과 당진 주변 각 포구가 고향을 떠나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박상건, 「소들문화축제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 『소들문화축제의 이론과 실제』, 1997).

16) 진산이었던 蒙山에는 옛 성이 있고, 해안에는 倉宅山 봉수가 있었다.

1.2. 경제적 배경

1) 인구와 토지

- 조선후기 『여지도서』와 『면천읍지』에 나타난 면천지역의 면별 호구 현황을 보면, 『여지도서』 편찬 당시 14개면 49개리가 『면천읍지』에서는 14개면 51개리로 늘어났다. 4,203호에 14,453명이던 인구수는 3,930호에 14,156명으로 약간 줄었음
- 한편 1930년대 조사에서는 모든 면에서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송악면(8,115명 증가)이며, 면천면(3,762명 증가)과 순성면(4,845명 증가)에 비해 우강면(5,567명 증가)과 송산면(5,090명 증가) 지역의 인구가 보다 더 증가되었음을 확인
-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강면과 송산면이 평야지대와 근접하여 식량증산을 위해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송악면과 송산면이 해안선을 끼고 있어, 교통망의 확보 등으로 발전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인구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임

[표 2-2] 면천군 각 면별 호구 현황

여지도서(1759)				면천읍지(순조조)				조선국세조사 보고 (1930)	
면	리	호	구	면	리	호	구	면	구
읍내면	동문, 남문, 서문, 북문, 화정	323	760	읍내면	동문, 남문, 서문, 북문, 화정	426	1,846	면천면	7,547
송산면	상, 하	332	1,008	송산면	상촌, 중촌, 하촌	294	1,065		
마산면	일, 이, 삼, 사	285	864	마산면	일, 이, 삼, 사	294	874		
송암면	웅산, 소리벌, 금악동, 사기소	301	998	송암면	웅산, 소산, 금학동, 사기소, 벌	?	?		
장계면	성북, 유동, 갈산, 사계	199	444	장계면	성북, 유동, 갈산, 사계	176	609	순성면	7,918
죽림면	어리산, 양제, 척찬	252	553	죽림면	양제, 척찬, 나산	234	840		
덕두면	흑석, 초전, 광천, 울곳	253	611	덕두면	흑석, 초전, 광천, 울곳	225	895		
기회면	본, 중방, 아찬	236	529	기회면	본, 중방, 아찬	211	729		
범천면	본, 강문, 평강, 원장, 중방, 해당초	498	2,320	범천면	본, 중방, 평강, 강문, 원장, 해당초	581	1,652	우강면	7,219
손동면	천방, 진천, 청금	317	1,443	손동면	천방, 진천, 청금	327	1,047	송악면	11,179
초천면	초천, 전대	163	876	초천면	초천, 전대	247	930		
중흥면	일, 이	279	949	중흥면	일, 이	257	1,087		
김천면	산북, 창택, 꽃내	405	1,552	김천면	산북, 창택, 꽃내	268	1,071	송산면	7,672
송산면	장파, 매염, 거산, 초택, 소산	360	1,546	송산면	장파, 매염, 거산, 초택, 소산	390	1,511		
계		4,203	14,453	계		3,930	14,156		41,535

- 한편 조선후기 면천지역의 경제적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輿地圖書』에 수록된 내포지역 각 군현별 인구와 경지 면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음¹⁷⁾

[표 2-3] 조선후기 내포지역 군현별 인구와 경작지 현황

군현	인구(명)			경작지(결)		
	남	여	계	전	답	계
홍주	21,355	27,705	49,060	6,812	5,547	12,359
결성	5,582	6,264	11,846	1,930	1,282	3,212
예산	4,478	4,667	9,145	2,796	1,582	4,378
대흥	5,000	8,106	13,106	2,462	1,310	3,772
덕산	7,808	10,564	18,372	3,867	2,771	6,638
면천	7,021	7,409	14,430	3,788	2,149	5,937
당진	6,841	7,273	14,114	2,464	1,218	3,682
서산	11,122	13,636	24,758	4,844	2,368	7,212
태안	7,679	7,195	14,874	1,405	1,340	2,745
해미	4,185	4,776	8,961	2,247	1,234	3,481
계	73,392	90,400	163,792	31,210	19,461	50,671

- 특히 현재의 행정구역 상, 면천과 당진의 인구를 합할 경우 28,544명으로 홍주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았으며, 전답의 결수를 기준으로 보면, 홍주, 덕산, 면천, 서산은 대읍(大邑)이었음¹⁸⁾
- 대읍으로 확인되는 홍주, 덕산, 면천, 서산지역은 인구수도 1만 4천 명 이상으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여유로웠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조선시대 면천이 읍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

2) 역로와 조운¹⁹⁾

- 면천과 당진과 관련된 역참으로는 [표 2-4]에서 보듯이 시흥도 역참 내에 순성역과 홍세역이 있었음
- 역로의 경우, 조선초기에는 당진현 쪽에서 홍주 혹은 공주나 한양으로 가는 통과역에 불과했지만, 후기에는 홍주에서 덕산 -

17) 위 표에서 보듯이, 내포지역 정치와 경제, 사회, 군사의 중심지인 홍주의 인구와 경작지가 압도적으로 많음이 확인된다. 홍주목의 인구와 토지는 현재의 당진시 신평면 우강면, 합덕읍이 비입지(飛入地)로 편입되어 다른 군현의 2~3배에 이르는 것이다. 예산과 해미를 제외하고, 면천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가 모두 만 명 이상이다.

18) 『호남청사례(湖南廳事例)』와 『嶺南廳事例』에서 읍의 규모를 전답결수에 따라 6천결 이상이면 대읍, 4천결 이하를 중읍, 2천결 이하를 소읍, 근과천결(僅過千結)을 잔읍으로 규정하였다.

19) 전통시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외국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공공 물자의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역참이 조선시기 충청도에는 6개였다. 천안을 중심으로 하는 성환도, 공주 중심의 이인도(利仁道), 홍성 중심의 금정도(金井道), 온양 중심의 시흥도(時興道, 뒤에 금정도와 병합), 청주 중심의 율봉도(栗峯道), 충주 중심의 연원도(連原道) 등이 그것이다.

면천 - 한진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별도의 통로가 개설됨

- 즉 조선시기 9대로 중 면천은 제8로인 서울 - 충청 수영의 노선 가운데 예산의 신례원과 홍주의 인후원(仁厚院) 사이에 끼어드는 태안 - 서산 - 해미 - 덕산 - 예산 지선에서, 다시 덕산과 예산 사이에 끼어드는 당진 - 면천 지선에 이어지는 요지의 하나였음²⁰⁾

[표 2-4] 충청지역 역참¹⁾

역참	경과지역
성환도	신은(천안) → 금사(연기군 남면 갈운리 검새울) → 연춘(목천) → 장명(청주)
일신도	유구 → 광정(공주) → 단평(공주) → 경천(이인) → 평천(연산)
시흥도	화천(평택) → 장시(아산) → 창덕(신창) → 일흥(예산) → 급천(덕산) → 순성(순성면 양유리) → 홍세(당진읍 용연리)
금정도	급천(덕산) → 광시(예산) → 세천(홍성) → 용곡(홍성) → 풍전(서산) → 몽웅(해미) → 하천(태안) → 해문(결성) → 청연(보령)
이인도	용전(부여) → 은산(부여) → 숙흥(홍산) → 남전(남포) → 청화(비인) → 두곡(서천) → 신곡(한산) → 영유(부여 임천)

- 조운로의 경우, 충청 서북지역인 내포평야의 경우에는 범근천(지금의 당진시 우강면 창리)에서 인근 20여 군·현의 조곡을 보관하여, 대진(송악 한진)을 거쳐 운송하도록 하였으나, 범근천(삽교천)이 매년 쌓이는 토사로 수심이 얕아져 조운이 불편해지면서 세종 때 공세곶(아산 인주면)으로 옮겨졌음
- 면천을 비롯하여 충청지역의 조창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으며, 면천군은 세곡의 주요 운송로의 한 지점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세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읍치로써의 역할을 수행

[표 2-5] 충청지역의 조창

조 창	위 치	조세 수납 지역
범근천	면천군 동쪽 30리 (당진시 우강면 창리)	면천·임천·한산·서천·남포·비인·홍산·태안·서산·해미·당진·덕산·예산·해미·청양·보령·결성·대흥·부여
경양포	직산현 서쪽 1리	직산·평택
공세곶	아산현 서쪽 8리 (아산시 인주면)	청주·회인·문의·아산·목천·전의·연기·신창·은진·연산·회덕·공주·정산·천안·진잠·니산

20) 김추윤, 「면천의 시·공간적 위치」, 『내포문화』 14, 2002.

1.3. 사회적 배경

1) 재지세력의 형성

(1) 세거성씨²¹⁾

- 조선시기에 면천지역의 토착세력 및 이거세력을 살필 수 있는 근거의 하나가 되는 성씨를 수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의²²⁾ 각 읍 성씨조임²³⁾이다.
-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각 도의 성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착세력을 살필 수 있는 토성만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6]과²⁵⁾ 같음

[표 2-6] 『세종실록지리지』의 각 도별 토성

구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계
토성 수	223	271	517	500	106	100	1,717
비율	13%	16%	30%	29%	6%	6%	100%

-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부터 조선후기에 간행된 『충청도읍지』²⁶⁾에 수록된 면천과 당진의 성씨를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으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인 15세기에 면천군의 성씨를 보면,²⁷⁾ 면천군의 土姓은 韓·朴·玄·井·任·兪 등 일곱이고, 亡姓은 徐, 來姓은 具 등이 기록됨²⁸⁾

21) 지역의 성씨 변화상을 살피는 것은 지방사는 물론 재지세력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재지세력의 성격과 시기적 변화, 소멸과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던 지배세력의 재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씨의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세력집단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2)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는 토성(土姓)·래성(來姓)·속성(續姓)·망성(亡姓) 등이 기재되어 있다.

23) 이중 소멸된 망성이나 이주해 온 내성 및 속성과 달리 토성은 군현의 성립 이래 각 지방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세력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수, 『세종실록지리지의 연구 -특히 물산·호구·군정·간전·성씨조를 중심으로-』, 서강대박사논문, 1991)

24) 토성은 지역적 의미의 '土'와 住民的 요소의 '姓'이 결합된 것으로 망성이나 속성, 내성, 사성 등과는 구별되었던 것이다. 다만 특정 지방에 토착하고 그 지명을 본관으로 했다고 해서 토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區劃 初부터 토착하면서 郡縣성립에 참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수건, 「토성연구」, 『동양문화』 16, 1975.)

25) 표에서 보듯이 토성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도이고, 다음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순이다.¹⁾ 이들 세 지역의 토성이 1,288개로 전국 토성의 75%를 차지해 중앙정부에서 3남을 중시한 이유가 물산 못지않게 인적자원이 풍부했었음에서 비롯되며, 토착세력의 영향력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이해된다.

26) 면천군을 기록한 『읍지』로는 영조 33년(1757)부터 영조 41년(1765)에 전국지리지 『여지도서』 이외에 현종 때 간행된 『충청도읍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37책에 포함되어 있는 『읍지』(제목 없음), 고종 8년(1871) 간행된 『호서읍지』(규장각 소장)에 제16책으로 포함되어 있는 읍지(제목 없음), 고종 32년(1895) 간행된 『(호서)읍지』(규장각 소장)에 제1책으로 포함되어 있는 읍지(제목 없음), 간행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沔陽誌』(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 역시 간행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면천현읍지』(장서각 소장) 등이 있다(양보경, 「충청도읍지 해제」, 『읍지·충청도』 1, 아세아문화사, 1984).

27) 『세종실록지리지』 권149, 충청도 면천군·당진현

[표 2-7] 면천과 당진의 성씨

지리지	지역	성씨
세종실록지리지 (1454)	면천	土姓(7) ; 卜·韓·朴·玄·井·任·俞 / 亡姓(1) ; 徐 / 來姓(1) ; 具 / 亡來姓(1) ; 王 / 續驛姓(3) ; 韓·朴·金 / 村姓(1) ; 俞
	당진	토성(2) ; 張·韓 / 망성(3) ; 皇甫·任·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면천	卜·韓·玄·俞·任·朴·井·徐·俞(村에 있음) / 具(능성) / 王(개성) / 韓·金·朴(역에 있음) / 韓(부곡에 있음)
	당진	張·韓·皇甫·任·高 / 朴·徐·玄(본적 樸城)
여지도서 (1757~1765)	면천	卜·韓·玄·俞·任·井·朴·徐·俞(村姓) / 具(능성) / 王(개성) / 韓·金·朴(驛姓) / 韓(部曲姓)
	당진	張·韓·皇甫·任·高
한국근대도지 (1899)	면천	卜·韓·玄·俞·任·井·朴·徐·林 / 具(능성) / 韓·金·朴(驛姓) / 韓(部曲姓)
	당진	朴·金·孫·張·韓·李·趙·文·高·崔·印·田·方·劉·河·曹·白·盧·鄭·車·沈·尹·徐·洪·姜·南·朱·千·扈·全·柳·俞·蔡·申·安·閔·梁·賈·林·權·咸·元·許·成·嚴·具·郭·吳

-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면천군의 촌성으로 아홉개의 성관(卜·韓·玄·俞·任·朴·井·徐·俞)을 기록
- 면천의 경우, 토성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변화는 망성이었던 徐씨가 추가된 것, 玄·俞·任씨와 朴씨의 순서가 바뀐 점이 확인되며,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박씨보다 이들 성씨들의 인물 배출과 활동이 왕성했던 것으로 짐작됨
- 18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각 지역별로 많은 성관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성씨와 일치하고 있음
 - 이 시기까지 면천지역 세거성씨의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면천지역으로 새로운 성관의 입향과 명문가의 낙향 등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토착성씨의 세력화와 이들의 향촌사회 주도권이 여전히 강했던 것으로 추측
- 다만 1899년에 간행된 『한국근대도지』에 보면, 당진의 성씨가 39개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 이후 읍치의 중심이 면천에서 당진으로 옮겨지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와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 등 지역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면천군.

- 한편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간행된 『증보 문헌비고』에는 면천을 본관으로 하는 면천박씨²⁹⁾ 면천한씨, 면천황씨, 면천이씨, 면천김씨와 신평을 본관으로 하는 신평송씨 2파와 신평이씨, 당진을 본관으로 하는 당진한씨와 당진이씨, 당진김씨 등이 기록³⁰⁾
- 이는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토착세력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항 이후 동족촌락을 형성한 유력 성씨로 전주이씨, 덕수이씨, 연안김씨, 청주한씨, 능성구씨, 그리고 해방 이후 서산군 대호지면과 정미면이 당진군에 통폐합되면서 서산에서 들어온 의령남씨, 부안김씨, 안동권씨, 함평정씨 등도 확인³¹⁾
- 이들 중 조선시기 사마시 입격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전주이씨, 덕수이씨, 연안김씨) 등은 조선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가문의 경우는 개항과 해방 이후 지역에 정착하면서 성세를 이룬 것으로 보임

(2) 사마시 입격자³²⁾³³⁾

- 조선시기 사마시 입격자는 전체 문과 급제자 수보다 3배 정도 많고, 조선시기 양반 사류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사회세력으로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생원·진사가 조선 양반 사회의 근간이었으며, 향촌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29) 면천박씨가 고려와 조선시기에 성세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후삼국통일시기에 왕건에 맞서는 바람에 9족이 멸족당하는 과정에서 몰락한 결과이다. 일부가 성을 바꾸어 살아남는 등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에 4,000 여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심포지엄에서의 향토사가 증언).

30) 신양웅, 『당진향토사소고』, 당진문화원 2002.

31) 이에 대해서는 김남석의 전계 글과 박찬송의 글(「근현대 당진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2호, 2004) 참조.

32) 조선시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과거(문과) 시험의 급제였다. 이는 개인의 영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가계(家格)을 높이는 근거가 되었다. 과거 급제가 명예롭게 여겨졌던 만큼, 대과에 응시하기 위한 전 단계인 1차 시험(생진시)의 입격도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즉 음사로 관직에 나가거나, 이미 참상에 오른 사람도 생진시에 다시 응시한 사례에서 볼 때 조선시기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생진시의 입격이 중요한 배경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개인과 가문의 학문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생원·진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과거, 즉 생원진사시의 합격자라는 공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문·무과나 잡과 합격자와는 달리 입사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공인 받은 신분이라는 점에서 관직이 없는 유학과도 구분되었다. 특히 사림과 사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양태가 중앙정치 권력의 변화는 물론 재지 사족집단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33) 주지하듯이, 생원·진사시는 입사를 위한 첫 관문으로서 과거에 뜻을 둔 양반들이 가장 먼저 치러야 하는 시험이었다. 입격 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無職士類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생원·진사의 칭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원·진사는 양반 사회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였으며, 생원·진사시 또한 양반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생진시의 응시자격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생진시는 通德郎 이하만 응시할 수 있고 수령은 응시할 수 없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될 수 없는 자, 장리의 아들, 再嫁女와 失行女의 아들과 손자, 서열 자손은 응시하지 못하며, 해당 도에 살고 있지 않은 자나 현직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경국대전』 예전 제과조).

[표 2-8] 충남 군별
사마시 입격자 현황¹⁾

군명	입격자
공주	512
논산	315
홍성	302
예산	272
아산	271
천안	207
대전	175
서산	154
서천	149
보령	136
면천(+당진)	115
부여	109
연기	76
청양	61
계	2,766

자료: 『司馬榜目』,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7.

발휘했다는 전제가 성립되므로 사마시 입격자에 대한 분석은 합격자 개인은 물론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 및 이들을 배출한 출신지역의 학문 성향, 나아가 재지세력의 형성과 동향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³⁴⁾ 이러한 전제의 해결을 위하여 면천과 당진을 거주지로 하고 있는 사마시 입격자를 시기별, 지역별, 신분별, 성관별로 살펴보자.

입격자의 시기별 분포

- 충남 각 지역의 생원·진사 배출 현황을 [표 2-8]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면천 출신 생원·진사의 현황³⁵⁾을 [표 2-9]와 같이 조선 전기(15C)·중기(16·7C)·후기(18·9C) 등 세 시기로 구분³⁶⁾하여 정리
-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마방목』 상으로 확인되는 면천지역(+당진지역)의 입격자는 115명³⁷⁾으로 청양과 연기, 부여보다 많을 뿐 충남 14개 군현 중 11번째에 해당됨
- 내포지역³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마지막이다. 입격자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자.

[표 2-9] 시기별 합격자 현황

지역	전기	중기	후기								계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당진		5	4		5	4	5	2	4	13	37
면천	2	29	8	1	10	4	5	2	4	13	78
계	2	34	12	1	15	8	10	4	8	26	115

- [표 2-9]에서 보듯이, 입격자는 70% 정도의 인원이 조선후기에 집중되는데, 왕의 재위 기간이 길었던 점과 더불어 고종대의 경우처럼 잦은 비정기시를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측
- 그런데 특이한 점은 면천의 경우 중기까지 31명(40%)의 입격자

34) 사마시 입격자 이외에, 사마시나 문과에 응시하지 않은 재지학자들을 파악해야만 지역의 학문 성향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살핀다면 지역의 학문 성향은 물론, 재지사족의 성립과 소멸, 재지세력과 수령과의 관계, 재지세력 간의 역학관계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5) 부록 1)의 생원·진사 입격자 명단 참조.

36) 시기구분은 필자의 편의에 따랐으나 대체로 한국사 시대구분론의 합의를 따랐다.

37) 115명 중에는 생원과 진사에 모두 입격하여 중복되는 인사도 있지만 본고의 서술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하였다. 그런데 당진의 향토사가인 신양웅은 1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양웅, 『당진향토사소고』, 당진문화원, 2002).

38) 표만을 근거로 볼 때, 내포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홍성, 예산, 서산, 서천, 보령과 면천 등이 해당된다. 내포와 내포지역,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 등에 대해서는 임선빈의 글(「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성격」, 『근대이행시 지역엘리트 연구』 1, 경인문화사, 2006)과 김경수의 글(「내포의 중심, 어제의 홍주와 오늘의 홍성」, 『대학생활연구』 9, 청운대학교 인력개발센터, 2008) 참조.

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당진지역(5명, 14%)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로서, 면천지역의 학풍이 일찍부터 조성되었고 이들 입격자가문을 중심으로 재지에서의 세력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표 2-10] 선조 이전 입격자 배출 가문

지역	가문	계
당진	茂長 朴	6
면천	坡平 尹, 陽川 許, 미상(3)	

- [표 2-10]에서 보듯이, 선조 이전에 입격자를 배출한 가문은 모두 6개 가문으로, 면천은 파평윤씨와 양천허씨, 미상 3개 가문, 당진은 무장박씨³⁹⁾ 가문임

시험의 종류와 입격자 분포⁴⁰⁾

- 시험의 종류와 입격자의 출신을 정리하면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식년시와 증광시의 입격자 분포 및 생원·진사의 배출 현황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11] 시험 종류와 출신자 현황¹⁾

지역	전체				후기				계
	식년시	증광시	생원	진사	식년시	증광시	생원	진사	
당진	20 (54%)	17 (46%)	19 (51%)	18 (49%)	15 (47%)	17 (53%)	17 (53%)	15 (47%)	37
면천	48 (62%)	30 (38%)	29 (37%)	49 (63%)	22 (47%)	25 (53%)	15 (32%)	32 (68%)	78
계	68 (59%)	47 (41%)	48 (42%)	67 (58%)	37 (47%)	42 (53%)	32 (41%)	47 (59%)	115

- 면천의 경우 78명 입격자 중 식년시 출신자(62%)가 증광시 출신자(38%)로 식년시 출신자가 24%정도 많으며, 진사 출신자(63%)가 생원 출신자(37%)보다 높은 것이 특징
- 당시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생원이 우세한 사족들의 학문적 풍토에서, 당진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면천은 전혀 반대의 현황을 보이고 있음
- 즉 면천은 진사를 선호한 것이 정량적인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천은 조선시대 내내 사장학이 더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39) 이에 대해서 무안박씨라는 견해(김남석 증언)가 있다.

40) 일반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에서는 사장(詞章)을 시험 보는 진사가 많고, 지방은 경학(經學)을 보는 생원이 많았다.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 연구, 집문당, 1998.』)

성관별 입격자 현황

- 본관이란⁴¹⁾ 혈연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신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명문여부의 기준을 제공하며, 시대에 따라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석은 재지세력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
- 따라서 본관에 대한 분석은 씨족의 연원이나 계통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지배층의 동향, 사회신분 구조와 정치세력 구조,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마시 입격자의 본관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면천(+당진)출신⁴²⁾ 사마시 입격자의 본관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으며, 생원·진사를 중심으로 본 지배층의 혈연적 구조가 소수 성관에 편재되어 있으며 이 조차도 특정 계보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⁴³⁾
 - 즉 사마시 입격자의 본관을 볼 때, 조선시기 면천 및 당진의 향촌사회 주도권은 전주이씨·덕수이씨·양천최씨·함평이씨·청송심씨·연안김씨·남원윤씨·파평윤씨·연안이씨·김해김씨·한산이씨 등의 가문이 일정한 역학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역적으로는 면천에, 시기적으로는 조선후기에 집중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중기 이후 입향하기 시작한 가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반영

41) 본관은 거주 장소, 종족의 기원장소, 상징장소를 의미하며, 종족집단은 본관지를 벗어나 끊임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지역화과정을 거친다는 분석은 본고의 전개과정과 연관하여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한편 혈통의 연원을 표시하는 정보다, 성의 分派인 본관이 혈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문과 문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 내지 명문거족을 지칭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본관으로 대변될 정도로, 사회신분을 가늠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기 대부분의 씨족들이 시조의 본관지와는 관계없이 분산 이거(移居)함으로써 본관은 그 시조가 생존하였던 당시 지방행정구역의 군현(郡縣名)일뿐 실제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본관이란 거주지와 상관이 없으며, 군현의 지배사족이 본관지에서 이거하였음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관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문의 혈통과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인이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격자의 본관별 분석은 가문의 혈연적인 관계와 더불어 향촌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시기, 지역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2) 입격자가 거주지를 '당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송악면 고대리와 오곡리에 세거지를 이루고 있는 광주안씨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강력한 재지 사족으로 군림하는 집안이었다. 가문의 중심인물 중 한말 국학자로 알려진 '안종화'가 있다. 그는 1894년 마지막 과거시험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고,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정3품이었다. 국권강탈 이후에는 오곡리에 낙향하여 살았는데, 출신지를 '홍주'라고 하고 있다. 송악면 오곡리가 홍주목 소속이었던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김남석 선생의 교시).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마방목』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43) 이와 같이, 사마시 입격자가 일부 성관과 특정 계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문의 인구수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정치권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원·진사의 배출이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가계의 번성으로 인하여 표출된 하나의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성명문(大姓名門)의 정치세력화 혹은 정치권력과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12] 입격자의 본관별 현황

본관	성	인원	본관	성	인원	본관	성	인원
全州	李	7/4	固城	李	1	竹山	安	1
咸平	李	6	宜寧	南	1	豐山	洪	1
陽川	崔	6	沔川	韓	1	淸州	韓	1
德水	李	4/1	江華	崔	1	安東	金	1
晋州	姜	2/3	密陽	朴	1	平康	蔡	1
延安	金	1/4	江華	金	1	杞城	李	1
坡平	尹	2/2	靈山	辛	1	茂長	朴	1
南原	尹	4	密陽	孫	1	務安	朴	2
昌寧	成	2/1	楊州	趙	1	新平	扈	1
金海	金	1/2	漆原	尹	1	光州	金	1
延安	李	2/1	杞溪	俞	1	天安	全	1
韓山	李	2/1	潘南	朴	1	大邱	徐	1
靑松	沈	1/1	醴泉	林	1	扶安	林	1
全州	崔	2	綾城	具	1	羅州	林	1
驪興	閔	1/1	礪山	宋	1	慶州	李	1
陽川	許	2	載寧	李	1	羅州	丁	1
全義	李	1/1	喬桐	印	1	光山	金	1
完山	李	2	文化	柳	1	海州	吳	1
東萊	鄭	1/1	沔川	金	1	계	(75/37)112	

- 사마시의 합격은 大科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중앙 관료의 배출과 진출을 의미하는데, 면천 출신의 78명 중 5명 (당진 출신의 37명 중 2명)이 문과에 급제⁴⁴⁾하였으며, 이 가문들은 면천지역에서 상당한 역할과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 즉 입격자의 본관 현황과 대과 급제자를 근거로 볼 때, 조선 후기 면천지역은 전주이씨, 양천최씨, 덕수이씨, 남원윤씨, 당진지역은 전주이씨, 진주강씨, 연안김씨, 김해김씨, 무장박씨 등이 주도하였다는 결론에 도달

입격자 신분⁴⁵⁾

- 면천과 당진 출신 입격자 115명 중 면천은 78명 중 전참봉(1),貢生⁴⁶⁾(1), 許通⁴⁷⁾(2), 동몽(2), 미상(2) 등 8명을 제외하고 94%가 유학(幼學)⁴⁸⁾ 출신

44) 이러한 수치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생원·진사 중 14.5%가 문과에 급제하였던 수치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최진욱, 전계 글). 그런데 신양웅은 전계 저서에서 당진(면천 포함) 출신의 문과 급제자가 28명이라고 하고 있다. 『문과방목』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찾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보여 아쉽다.

45) 조선의 양반은 존재 형태에 따라 관직 및 관품 소지자와 관직이 없는 유학(幼學)과 중간 단계인 과거 합격자로 구분되었다. 이중 유학은 중앙과 지방에 광범하게 존재하면서 과거 급제자의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최진욱,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46) 지방에서 선발되어 중앙에서 보는 과거에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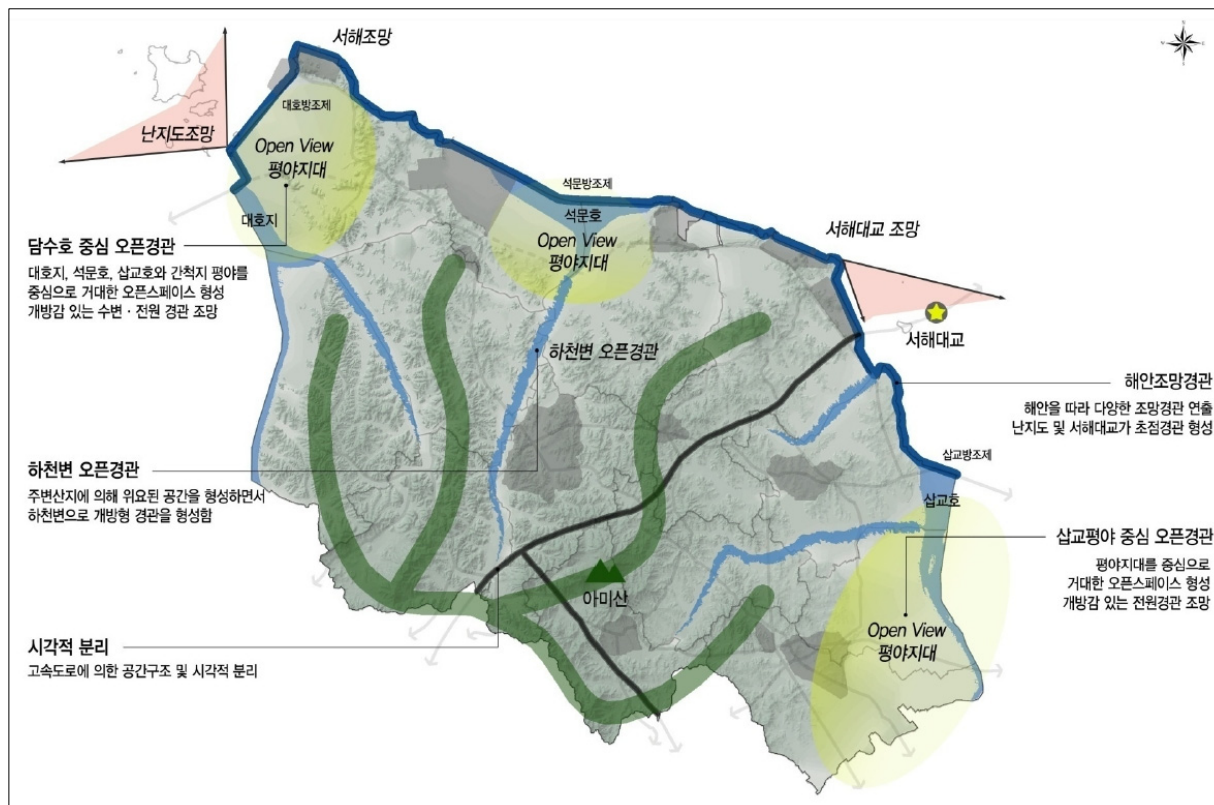
47) 庶孽들에게 禁錮法을 풀어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제도에 의해 풀린 사람

48) 儒生, 學生, 校生 등 학교에 籍을 둔 사람을 말한다(최진욱, 전계 글).

2. 면천 주변지역 경관 일반 현황

2.1. 면천 주변지역 광역경관 일반현황

- 당진에는 가야산맥에서 분기하고 있는 4개의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면천은 당진의 중남부에 입지
- 면천은 아미산(표고 349.5m)과 다불산, 몽산(298m)으로 형성된 가야산맥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서·남쪽이 산맥으로 위요되어 있음
 - 아미산은 관 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산림욕장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미산~다불산~몽산으로 이어지는 산행코스가 조성되어 있음
- 남서쪽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로 인해 공간적, 시각적으로 주변경관과 분리되어 있으며 동쪽 삼교호 방향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그림 2-4] 면천 주변지역 광역경관 일반현황도

2.2. 면천 경관 일반현황

- 면천 경관 일반현황 조사는 지형적 측면에서 표고, 경사, 향을 조사하였고, 지리적 측면에서 경관축을 조사·분석함

1) 표고

- 면천읍성과 시가지지역의 표고는 1~35m가 주로 분포하며, 읍성의 남쪽지역으로 낮은 표고를 보이고 있음
- 면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미산, 다불산, 몽산지역의 표고는 대부분 105m 이상의 표고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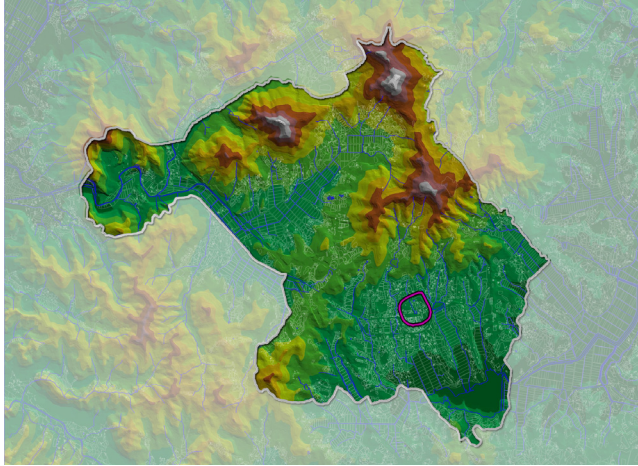
2) 경사

- 면천읍성과 시가지지역의 경사는 0° ~ 8° 미만이 대부분이며, 읍성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은 평지 경사를 취하고 있어 평지형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한편, 면천의 북쪽지역에 있는 아미산, 다불산, 몽산지역의 경사는 8° ~ 32° 미만 사이의 경사분포를 보이고 있음

3)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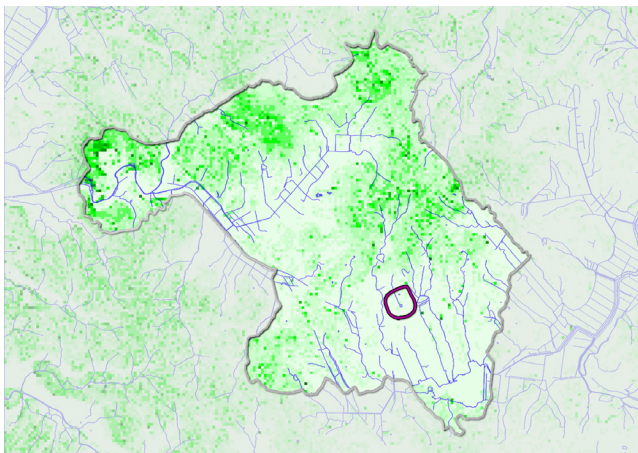
- 면천읍성과 시가지지역의 향은 주로 남향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시가지가 형성되었는데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 반면, 북쪽의 아미산, 다불산, 몽산지역의 향은 북, 북서, 서향을 취하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여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 표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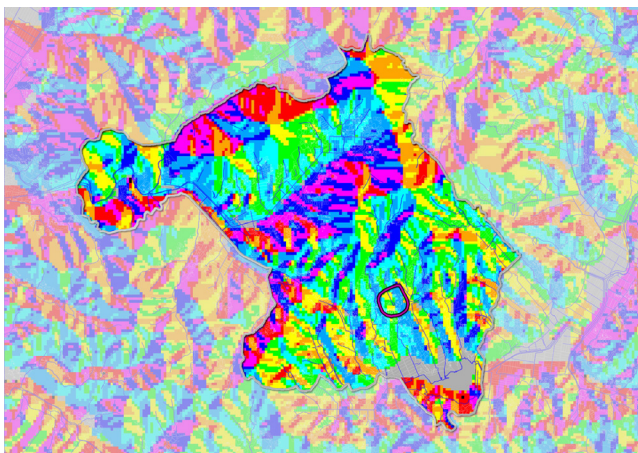
구분	표고(m)	면적(km ²)	비율(%)
1	1-35미만	0.8	4.4
2	35-70미만	4.5	25.0
3	70-105미만	4.1	22.8
4	105-140미만	3.4	18.9
5	140-175미만	2.7	15.0
6	175-210미만	0.3	1.7
7	210이상	2.2	12.2
합계		18	100

● 경사 분석



구분	경사도	면적(km ²)	비율(%)
8	0°-8°미만	5.9	32.8
7	8°-16°미만	4.2	23.3
6	16°-24°미만	4.1	22.8
5	24°-32°미만	2.2	12.2
4	32°-40°미만	1.1	6.1
3	40°-48°미만	0.3	1.7
2	48°-56°미만	0.1	0.6
1	56°-64°미만	0.1	0.6
합계		18	100

● 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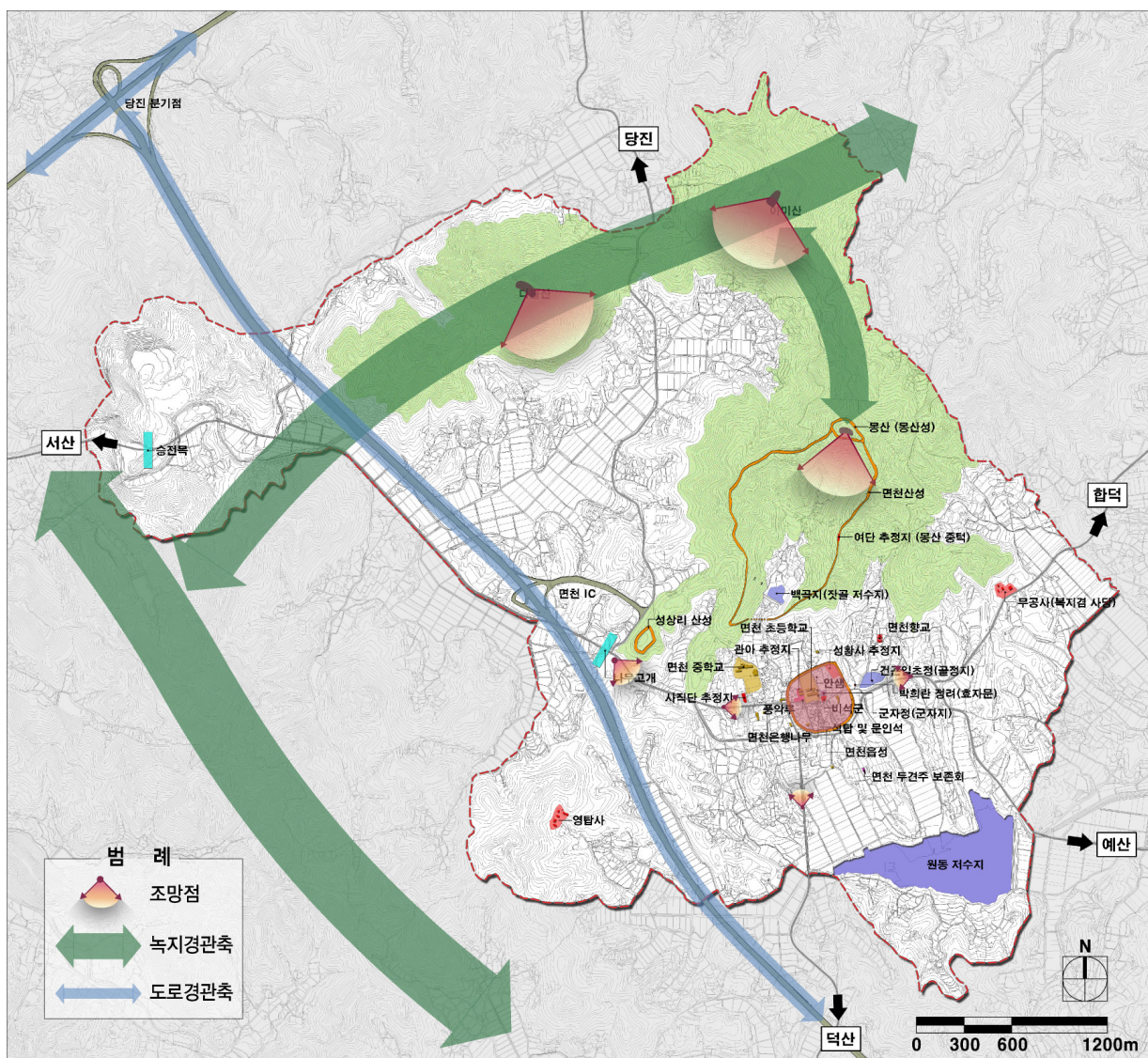


구분	향(방위각)	면적(km ²)	비율(%)
동	0°-45°미만	2.7	15.0
북동	45°-90°미만	2.7	15.0
북	90°-135°미만	2.2	12.2
북서	135°-180°미만	1.1	6.1
서	180°-225°미만	1.9	10.6
남서	225°-270°미만	2.1	11.7
남	270°-315°미만	2.4	13.3
남동	315°-360°미만	2.9	16.1
합계		18	100

[그림 2-5] 면천지역 표고, 경사, 향 분석도

4) 경관축

- 면천 주변지역의 주요 자연녹지 경관축은 가야산맥에서 나오는 남서북방향의 녹지축과 아미산, 다불산, 몽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동으로 향하는 녹지축으로 구성되어, 면천의 북, 서, 남쪽의 녹지경관을 형성
- 도로 경관축으로는 면천의 남서북방향으로 향하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축이 면천지역에 새로운 도로 경관축을 형성
- 한편, 면천지역의 주요 조망점으로는 아미산, 다불산, 몽산지역과 면천읍성으로 진입하는 동, 서, 남쪽 진입도로변의 조망점이 분포



[그림 2-6] 면천 주변지역의 경관 일반현황도

29



● 면천읍성



● 몽산성



● 면천산성



● 성상리산성



● 군자지와 군자정



● 골정지와 건곤일초정

(1) 면천읍성 (충청남도 기념물 91호)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소재지의 전역을 둘러싸고 있는 읍성으로 조선 초기(세종 21년 2월~11월)에 축조된 읍성
- 성의 둘레는 약 1,564m이고, 성벽은 자연석을 다듬어 축조하였는데, 저수지공사 등에 성의 돌을 사용하여 유실된 부분이 많으나, 서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있고, 남쪽 성벽은 건축물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당진시에서 매입한 후 철거 예정에 있음

(2) 몽산성

- 면천읍성 내에 위치한 면천소재지의 북쪽에 몽산(표고 296m) 정상부를 에워싸 축조한 성으로, 성둘레는 480m로 테피식산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정상부에는 시민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3) 면천산성

- 몽산성, 5개의 봉우리와 능선 및 백곡지를 감싼 잣골을 에워싼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길이는 약 3,510m로서, 몽산성에 잇대어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곡을 포용하여 축조됨

(4) 성상리산성 (충청남도 기념물 제 162호)

- 면천면 성상리와 삼웅리의 경계지점인 해발 119m의 산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성내부의 경사면을 삭토한 흙으로 성벽을 축조한 산정식(山頂式) 산성으로, 규모는 길이 약 400m, 성벽 높이는 외벽 4~5m, 내벽 1~1.5m이고, 성벽 기저부는 약 5m, 상단부는 1~2m임. 축조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한 또는 백제시대의 통치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

(5) 군자지와 군자정

- 고려 공민왕(서기1350)에 조성된 것으로 면천초등학교 동편에 위치. 군자지는 비상시에 군사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중요한 식수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군자지 내에 정자인 군자정은 8각형의 정자로 세워져 있음

(6) 골정지와 건곤일초정

- 건곤일초정은 조선정조 24년(1800년) 경신년에 면천군수 연암 박지원이 세워졌으며, 골정지 한가운데에 돌을 쌓아 작은 섬을 만들고 그곳에 육각형의 초정을 세웠는데 초정의 현판에는 두보의 시에서 따온 '건곤일초정'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음
- 골정지는 면천향교와 인접하여, 향교유생들이 자주 머물며 시를 읊고 학문을 익힌 곳으로 은자의 정취가 있는 곳임



● 면천향교



● 영탑사



● 영탑사 약사여래상



● 영탑사 칠층석탑



● 영탑사 범종



● 승전목

(7) 면천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141호)

- 태조 1년(1392)에 건립하였다고 전하며, 건물 배치는 앞쪽에 배우는 공간으로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 서재가 있고, 뒤쪽에 제사지내는 공간으로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있는 전학후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냄(향교석전제)

(8) 영탑사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하리 560)

-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로서,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고려 때 보조국사 지눌이 지금의 대방(大房) 앞에 오층석탑을 세우고 영탑사라 했다고 함. 그 뒤 무학(無學) 자초(自超)가 지금의 법당 자리에 있던 천연 암석에 불상을 조각하고 절을 중건했으며, 대방 앞 정원에 있던 오층석탑을 법당 뒤의 바위 위로 옮김

영탑사 내 문화재

①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보물 409호)

- 8각형의 연꽃무늬의 대좌 위에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이 있고 양 옆으로 협시보살이 있는 삼존불(三尊佛) 구도의 좌상

② 영탑사 약사여래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11호)

- 영탑사(靈塔寺)의 상왕산 암벽에 돌을새김 한 높이 3.5m의 불상.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사찰을 둘러보니 기이한 바위가 빛을 내고 있어 심상치 않게 여겨 여기에 불상을 조각해 나라의 평안을 빌었다는 전설이 전해짐

③ 영탑사 칠층석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16호)

- 영탑사 법당 뒤의 바위 위에 서 있는 7층 석탑

④ 영탑사 범종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19호)

-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높이 60cm, 입 지름 46cm의 종임

(9) 성황사터

- 몽산 정상에 남아 있는 당집 터임

(10) 사직단

- 사직제 즉 면천중학교 정문 앞 중고개 위쪽 소재(옛 면천군 사직단)

(11) 여단

- 면천의 주산인 몽산 중턱 소재 (옛 면천군 여단)



● 안샘



● 무공사(복지점 사당)



● 박희란·박희전 효자문



● 풍악루



● 석탑 및 문인석



● 비석군

(12) 승전목(승전곡)

- 면천면 사기소리와 당진읍 구룡리 사이의 좁고 가파른 계곡으로, 동학농민 전쟁시 동학군이 관군을 상대로 승리한 곳이라 하여 '승전곡'이라고 불리우며, 면천 8경에 꼽힐 만큼 경치가 좋고 계곡이 깊으나, 주변 공장의 입지와 석산의 개발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13) 안샘

- 면천읍성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물로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1992년에 복원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우물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각을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14) 무공사(복지점 사당)

- 고려 개국 일등공신 태사 무공공 복지점 장군의 사당으로 2007년 건립되었으며 주변에는 내삼문, 외삼문, 재실, 관리사, 문간채, 전사청,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음

(15) 박희란·박희전 효자문

- 조선 숙종 46년에 세워진 효자문으로 다른 정려와는 달리 돌로 건립된 점이 특색임
-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던 박희란·박희전 형제는 부모가 병환을 앓게 되자 자신들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부모님에게 먹여 드려 병환을 낫게 하고, 이러한 효성으로 박희란은 정4품, 박희전은 정2품의 높은 관직에 올랐음.

(16) 기타 유적

① 풍악루

- 풍악루는 현 면천면사무소 정문 위치에 세워진 면천읍성 내 관아의 정문누각(樓閣)으로서 2007년 1월에 복원

② 석탑 및 문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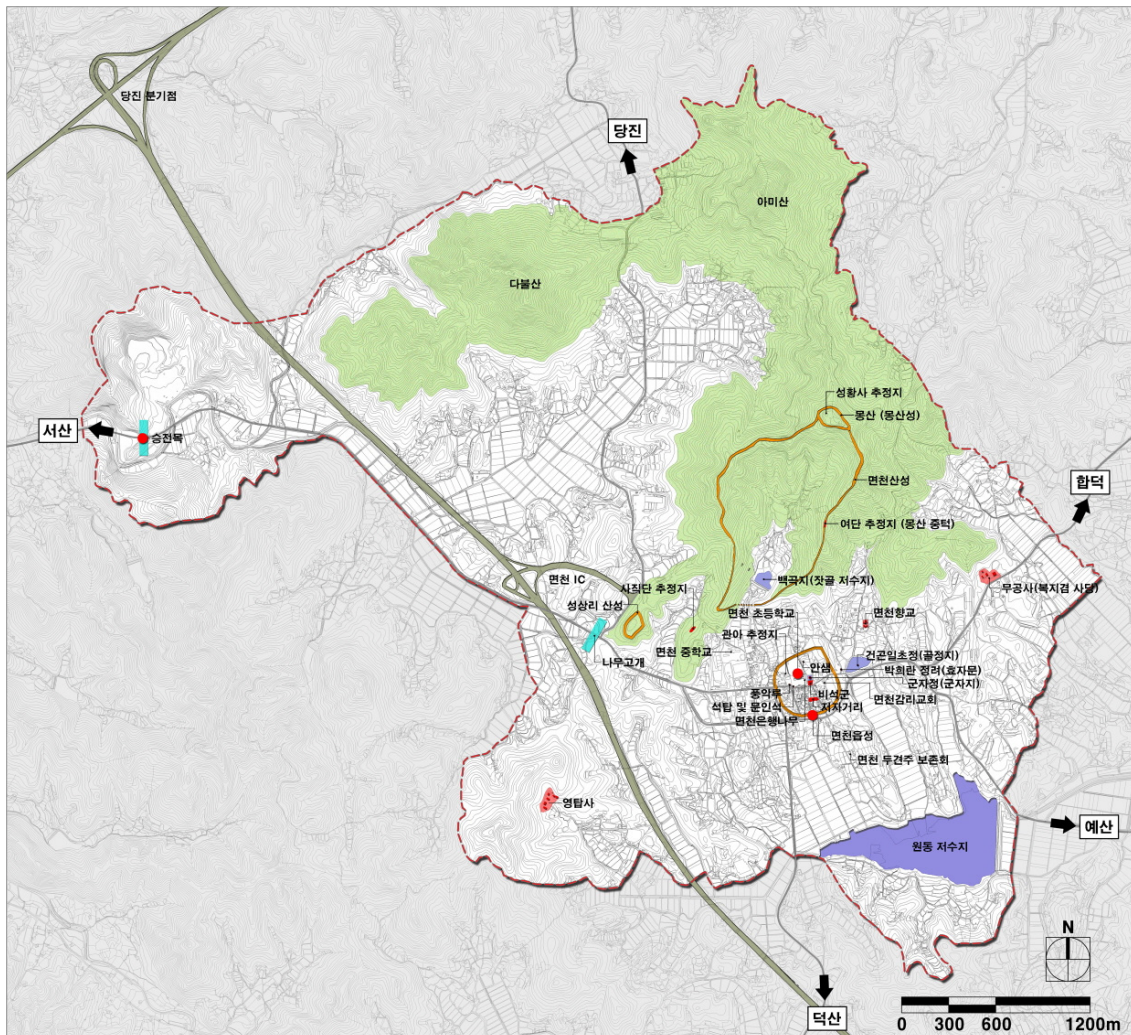
- 시대 미상의 석탑과 문인석(2구)으로 면천초등학교 입구에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와 같이 있음

③ 비석군

- 당진 면천면 성상리 노변 및 구거에 매몰되었던 것을 1936년 면천면장 주관으로 군자지 남쪽으로 현 위치로 옮겨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면천공립보통학교 3월10일 학생독립만세운동기념비'가 있음

2) 역사적 사건

- 면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은 동학농민운동과 조선 말 의병전투와 3.1운동 등임
-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장소는 동학농민이 체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일본군 및 관군과 싸워 승리한 승전목이 있음
- 승전목의 위치는 면천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지방도70번의 구룡리 산 188-3번지 일원 이배산으로서 최근 당진시의 산업화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조선 말 의병전투와 3.1운동은 면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그림 2-8] 면천의 역사적 사건

(1) 동학농민운동 - 승전목 전투(勝戰谷 戰鬪)

- 동학군이 일본군에게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승전곡은 1894년 10월 24일 승전곡에서 동학농민군과 아까마쓰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관군과 벌인 전투로, 동학농민군의 체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전투를 벌여 승리한 장소임



● 승전목 전투지역 모습 - 면천 구룡리 이배산 일원

(2) 의병전투

① 최구현 의병

- 최구현은 면천·당진·고덕·천의·여미 등지에 격문을 발표하고 37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한 것을 계기로, '창의영도장'에 추대되며 의병을 지휘하며 5월 10일(음, 4월 17일) 초저녁에 면천성을 공격하게 됨. 다음 날 새벽까지 일제의 경찰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으나 의병의 화승총으로 일본 경찰대의 신식 무기를 이길 수 없었음. 최구현은 죽음을 각오한 의병 36명을 인솔하고 야간에 행군하여 5월 16일(음, 4월 23일) 소난지도로 들어감

② 정정현 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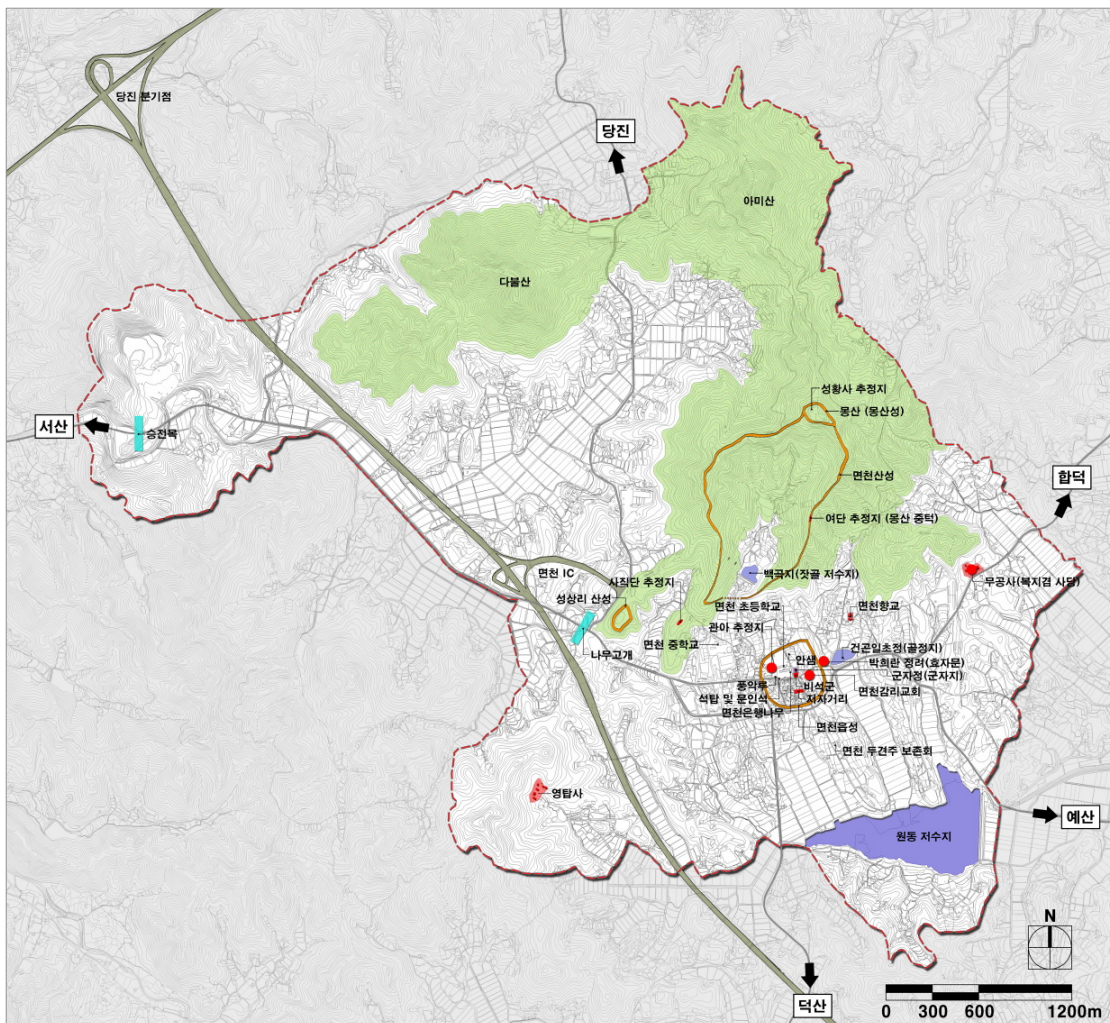
- 정정현 의병은 부대원인 도중삼이 체포, 희생된 소식을 듣고 1907년 11월 22일 의병 100여명으로 면천성을 공격하여 면천 주재소와 우편취급소를 불태우고 밀고자의 가옥을 소각하는 등 면천성 일대를 장악

③ 면천공립보통학교 3.10 학생독립만세운동

- 3.1운동을 목격하고 감동받은 원용은의 목격담을 듣고 1919년 3월 면천공립보통학교(면천초교) 학생 원용은, 이종원, 강선필 등이 3월 10일 94명의 전교생을 인솔하고 면천 동문 밖~면천시내까지 학생 항일독립만세시위를 하였음

3) 역사적 인물

- 면천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는 고려시대 복지검, 박술희, 조선 후기 박지원, 김윤식, 박희란과 박희전, 유제, 이상, 이침 등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 근대까지 다양한 인물을 배출한 지역⁴⁹⁾
- 인물의 특징으로는 고려시대 개국과 관련된 복지검과 박술희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박지원, 면천주민에게 선의를 베풀고 기독교를 포교한 류제, 충효와 관련된 박희란과 박희전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2-9] 면천의 역사적 인물

49) 면천지방의 인물로서는 고대 김준, 중세 곽충룡, 구예, 박술희, 복규, 복기, 복지검, 서인, 인당, 근세 강정, 강척, 강호관, 곽씨, 맹사성, 박난영, 박삼길, 박안신, 유승원, 이영건, 근대 강선필, 김윤식, 김종수, 김치경, 민백준, 박대화, 박시순, 박계경, 박지원, 박희란, 박희전, 서경보, 서유청, 서정필, 성덕, 손상장, 송요년, 신경보, 신경희, 신호중, 심득원, 심영경, 안씨, 안인식, 안종해, 원용석, 원용은, 유대일, 유순익, 유제, 이상, 이침, 임백현, 조극선, 이종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 당진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면천읍성 연구,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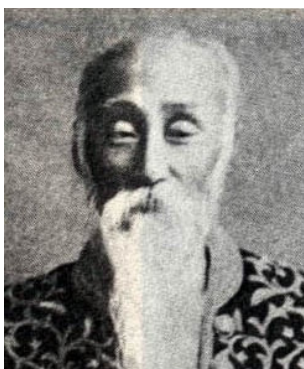
● 복지겸



● 박술희



● 박지원



● 김윤식

(1) 복지겸 (卜智謙)

- 초명 사괴(砂瑰)·사귀(沙貴), 시호 무공(武恭)으로, 면천박씨의 시조임. 태봉(奉封)의 마군(馬軍) 장수로 있다가 궁예(弓裔)가 횡포해져서 민심을 잃자 배현경(裴玄慶)·신숭겸(申崇謙)·홍유(洪儒)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王建)을 추대, 고려를 세우게 하였음. 그 뒤 장군 환선길(桓宣吉)의 반역 음모를 적발, 주살(誅殺)시켰으며 임춘길(林春吉)의 역모도 평정하는 등 큰 공을 세웠음. 994년(성종 13) 태사(太師)로 추증되었고,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음

- 복지겸은 면천 출신으로 같은 고향 박술희를 궁예에게 천거하였으며 은퇴 후에 면천에서 말년을 보냈음

(2) 박술희 (朴述熙/朴述希, ? ~ 945)

- 면천박씨(沔川朴氏)의 시조로 시호 엄의(嚴毅)이며 대승(大丞) 득의(得宜)의 아들. 18세 때 궁예(弓裔)의 호위병이 되고, 뒤에 태조를 섬기면서 대광(大匡)이 되었음. 태조가 장화왕후의 소생인 무(武: 뒤의 혜종)를 태자로 책봉하려하자 장화왕후의 집안(나주 오씨)이 미약하다 하여 반대세력이 많았음. 태조는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박술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의 공으로 무가 태자로 책봉되었음

- 박술희는 복지겸과 같이 면천 출신으로 체력이 좋은 박술희를 복지겸이 궁예에게 천거하였다고 함

(3) 박지원 (朴趾源, 1737~1805)

- ‘열하일기’, ‘연암집’, ‘허생전’ 등을 쓴 조선후기 실학자 겸 소설가로서,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자유 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소설(漢文小說)을 발표하였음

- 박지원은 4년간 면천군수 생활을 하였는데 그동안 ‘과농소초’, ‘면양잡록’, ‘한민명전의’ 등의 책을 남겼으며, 현재 읍성 밖 동쪽에 있는 골정지를 정비하고 건곤일초정을 세움

(4) 김윤식 (金允植, 1835~1922)

- 한말의 개화사상가로서, 17년간 유배생활을 하였고 자력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자강론을 주장. 1910년 한일병합 조인에 가담하여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홍사단 등의 민족운동에 참여

- 김윤식은 면천(성하리)에서 7년간(1887~1894) 유배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인 속음청사 1~7권이 전해져 내려옴

(5) 박희란 (朴希蘭, 조선 숙종)

- 어버이 섬기기에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병환이 있자 손가락을 잘라 먹여 드리는 효성에, 조정에서는 1720년(숙종46) 효자문을 세웠고 현재 그 정려가 면천 동문쪽에 위치

(6) 박희전 (朴希堊)

- 효자 박희란의 아우로서 형제들이 부모에게 효가 지극하였다고 전함

(7) 유제 (劉濟)

- 서울 출신, 본관 강릉으로서 그는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선유별관으로 있었는데 내포지방에 와서 미곡상을 하려했으나 흉년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자기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게 되고 이에 감격한 백성들이 군수 임명을 배부에 청원하여 면천군수로 재직하였다(1894~1895) 전해지고 있음

3.2. 문화예술 자원 - 전통 및 문화예술 창조기반

1) 문화 전통

- 면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전통으로서는 면천 진달래 축제, 두견주, 향교석전제, 면천중학교 농악 등이 있는데, 두견주는 문헌상 가장 기원이 오래된 전통주로 소개되고 있음
- 진달래, 두견주, 충효 등은 면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좋은 요소임



● 면천 진달래 축제



● 면천 두견주



● 면천중 농악

(1) 면천 진달래 축제

-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인 면천 두견주를 비롯한 진달래문화유적을 토대로 진달래 민속놀이, 전설, 민담 등과 진달래 시나 소설 등 진달래문학을 소재로 진달래민속축제를 개최하여 진달래와 함께 해온 민족 정서를 젊은이들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진달래 술, 화전, 진달래 식혜, 진달래 떡 등 다채로운 진달래음식을 즐기는 축제. 4월 중 면천읍성 일원(면천진달래공원)에서 개최

(2) 면천 두견주 (중요무형문화재 제86-2호)

-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는 향기나는 술로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도 하므로 두견주라고 부름
- 전통민속주 제조기능을 보존, 전승하도록 하기 위해 면천의 두견주 제조기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보유자 없이 '면천두견주 보존회'를 기능보유단체로 인정(2007년 3월 12일)하여 그 전승의 맥을 잇고 있음 (면천 두견주 보존회 위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322-2번지)

(3) 향교 석전제

- 면천 향교에서 매년 음력으로 2월과 8월의 초정일에 석전제를 올림
- 대성전에는 중앙에 5성을 모셨고 그 양옆으로 송의 22현과 우리나라의 18현을 모심

(4) 면천중 농악

- 면천중학교 풍물부에서 시현하는 농악으로 면천 진달래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면천초등학교



● 면천중학교



● 면천감리교회



● 면천면사무소



● 면천터미널



● 면천보건소

2) 문화예술 창조기반

- 현재 면천에는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사료관과 같은 전문문화시설은 없어 문화예술 창조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문화시설 도입이 요구됨
- 다만, 문화예술 창조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종교, 공공, 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이중 면천초등학교, 중학교, 감리교회는 중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교육시설 : 면천초등학교, 면천중학교
- 종교시설 : 면천감리교회
- 공공시설 : 면천면사무소, 면천터미널, 면천우체국
- 복지시설 : 마을회관, 면천보건소, 성산1리 경로당, 면천복지회관



[그림 2-10] 문화예술 창조기반 시설



● 면천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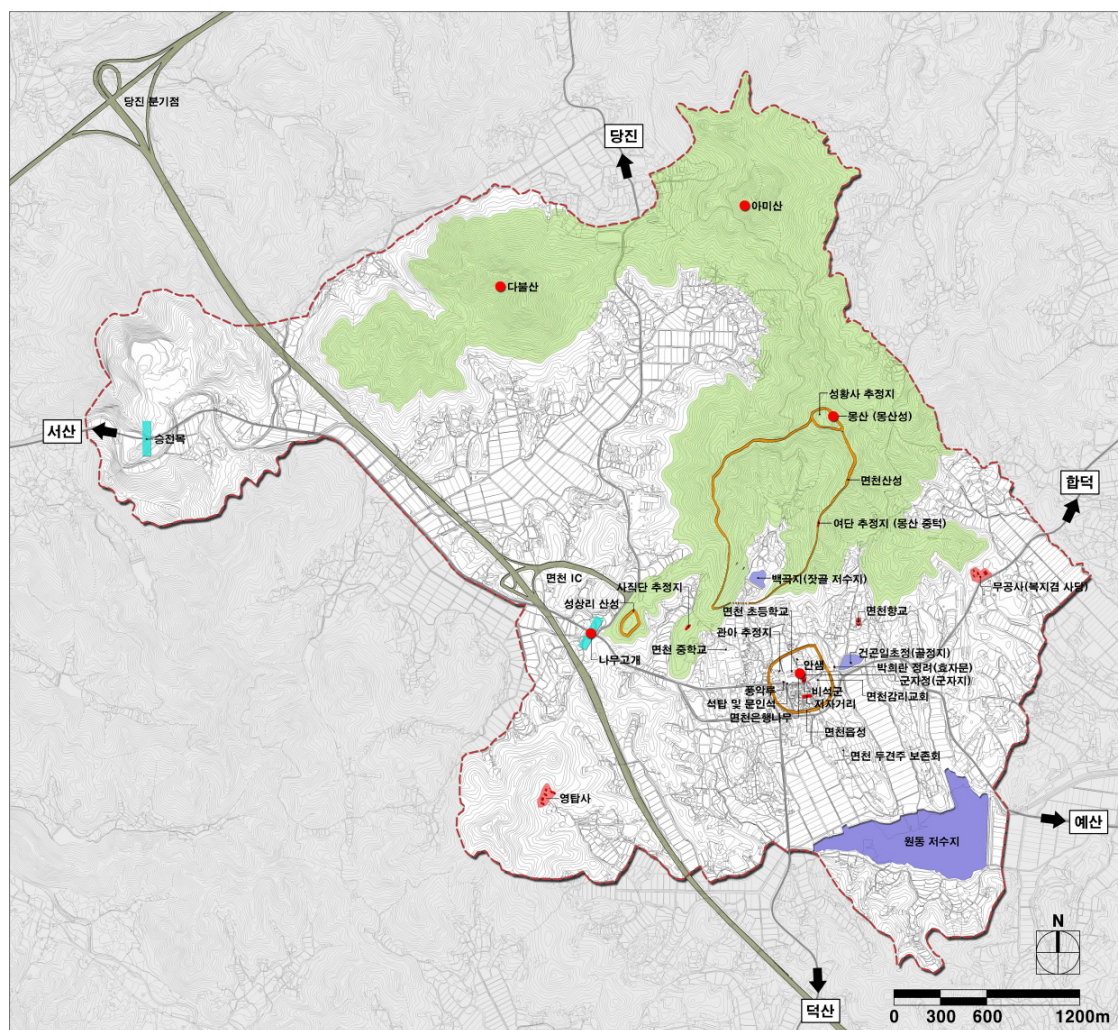
● 마을회관



● 면천복지회관

3.3. 자연녹지경관

- 면천의 자연녹지 경관은 가야산맥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다불산, 아미산, 몽산에 의해 형성이 되어 있음
- 아미산, 다불산, 몽산은 모두 면천읍성과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여 녹지경관이 역사경관인 면천읍성의 배경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읍성 내에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이 그의 집 뜰에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만들고 있으며, 면천IC에서 면천소재지로 진입하는 곳에 나무고개가 형성되어 있음



[그림 2-11] 자연경관



● 아미산



● 다불산



● 몽산



● 면천은행나무



● 나무고개

1) 아미산, 다불산, 몽산

- 아미산(峨嵋山-349m)은 당진시의 명산으로 다불산(310m)과 몽산(298m)으로 양 날개를 펼치듯 능선을 뺀어 연봉을 이루는 산임. 다불산은 서쪽에, 몽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세 산은 아미산 정상을 기준으로 각각의 산 정상까지 직선거리로 1.6km와 1.5km의 거리를 두고 가깝게 자리하고 있음
- 지형적 특성을 살려 세 산 모두를 연결하는 원점회귀형 종주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서 낮은 산이지만 산행을 즐길 수 있음

2) 면천은행나무 (충청남도 기념물 제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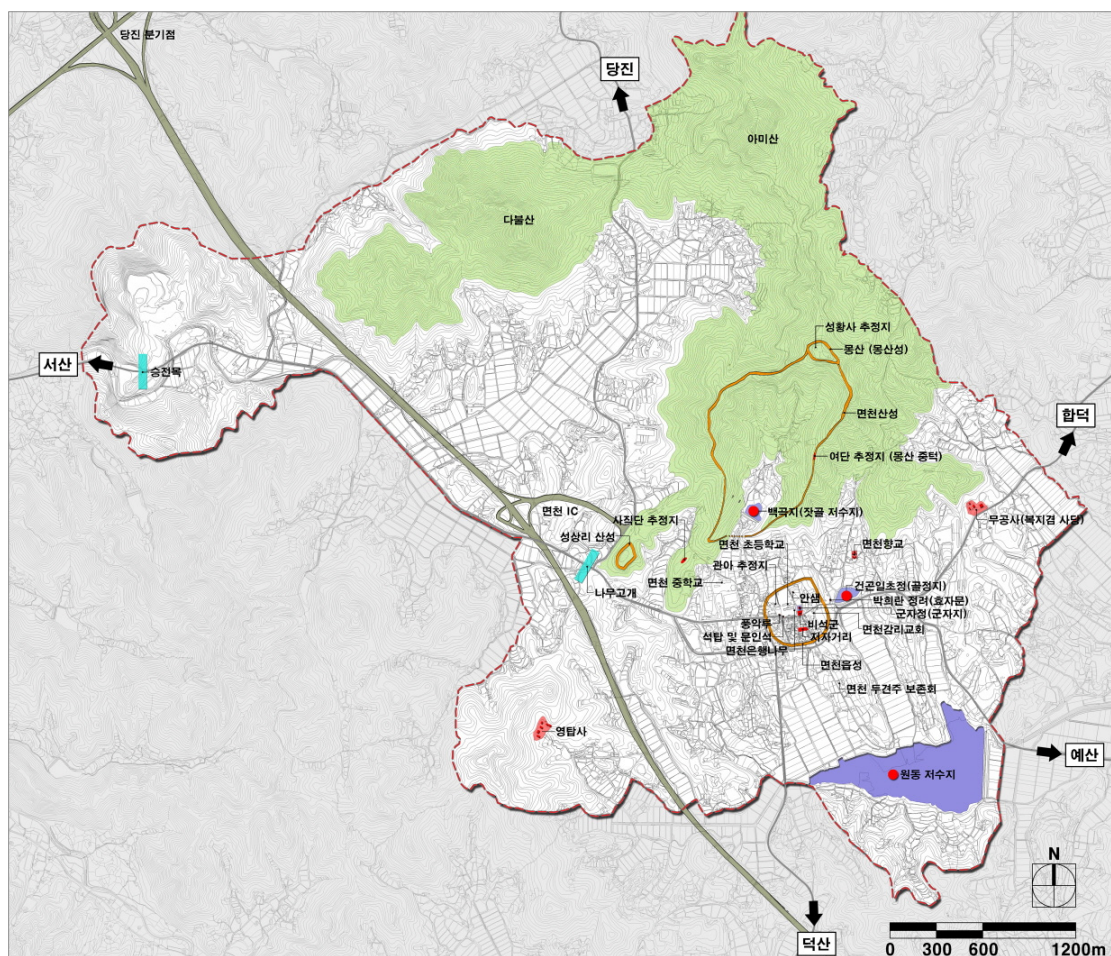
- 면천읍 면천초등학교 교정 동쪽에 위치한 2그루의 은행나무로, 나이는 1,100여 년 정도로 추정되며, 둘레는 6m, 높이는 각각 20m, 21m이며,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이 그의 집 뜰에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음

3) 나무고개

- 위치 : 충남 면천면 삼웅리
- 면천읍성에서 서쪽으로 당진읍 방면 군도를 따라 성산리 산 끝 자락에 위치하며, 면천읍 내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는 서해안고속도로 면천IC가 접속되어 진입부 기능을 하고 있음

3.4. 수변경관

- 면천의 대표적인 수변경관자원은 잣골저수지, 원동저수지, 골정지, 안샘 등임
- 광역적인 측면에서 삼교호로 흐르는 지천이 형성되어 있고 이 수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이 원동저수지로서 면천 주변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남쪽의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안샘과 골정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된 수변경관자원으로서 역사적 수변경관자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안샘에서 읍성 내의 남쪽을 거쳐 원동지로 흐르는 개천은 현재는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실개천을 형성하며 생활 수변경관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



[그림 2-12] 수변경관



● 잣골저수지 (백곡지)



● 골정지



● 원동저수지

(1) 잣골저수지 (백곡지)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잣골저수지 (백곡지)라 부르며, 주변에는 면천산성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 쪽에는 면천읍성이 있음

(2) 골정지

- 면천읍성 동측 외부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연암 박지원이 면천 군수 부임시에 정비한 연못임
- 조선 정조 21년(1797년)에 연암 박지원이 면천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부임 후 관내를 행차하면서 읍성 동쪽 향교 앞에 있는 못 의 형태를 보니 황폐해진지 오래되고 방치된 채로 있어 새롭게 못을 준설하고 물을 가득 담았는데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았다고 함(정조 24년, 1800년)

(3) 원동저수지

- 면천면 성하리와 원동리 사이에 있는 저수지로서 면천읍성 동 남쪽에 위치하며 면천(순원)저수지로 불리우며, 주변경관이 아 름다워 저수지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입지하고 있음

3.5. 도시경관

- 도시경관은 크게 가로와 건축물경관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색채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설정시에 포함하여 조사

1) 도시 가로경관

(1) 읍성 외부 가로경관

- 면천읍성에는 동서남북으로 6개의 진입부(남쪽 3개)가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성은 좋은 편이나, 진입부에 역사적인 상징성을 인지할 수 없음
- 성곽이 잔존하는 서쪽가로는 역사적 경관이 나타나나 미흡하고, 남문지 주변으로는 읍성 터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어 역사적인 경관을 인지하기가 어려움



● 가로1번



● 가로2번



● 가로3번



● 가로4번



● 가로5번



● 가로6번

(2) 읍성 내부 가로경관

- 군자정을 중심으로 십자형 가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동문과 서문)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로 남측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음
- 십자형의 가로망 외에 면사무소 및 군자지 남쪽으로 2개의 가로가 개설되어 있음
- 이면에는 세가로인 작은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 세가로의 구조가 잘남아 있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세가로의 로면 포장이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그나마 노후되어 도시경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
- 또한, 세가로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건축물 등이 노후화되고, 전통적 요소가 부족한 건축물로 디자인 되어 있어 역사도시로서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



● 읍내 가로1번



● 읍내 가로2번



● 읍내 가로3번



● 읍내 가로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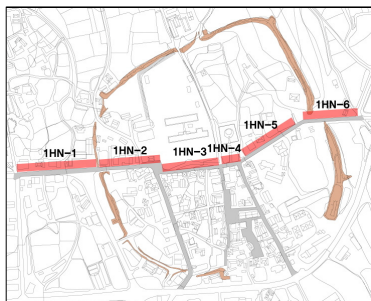
● 읍내 가로5번



● 읍내 가로6번

2) 도시 건축물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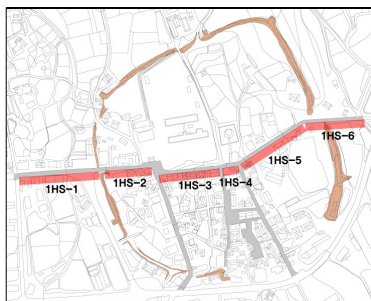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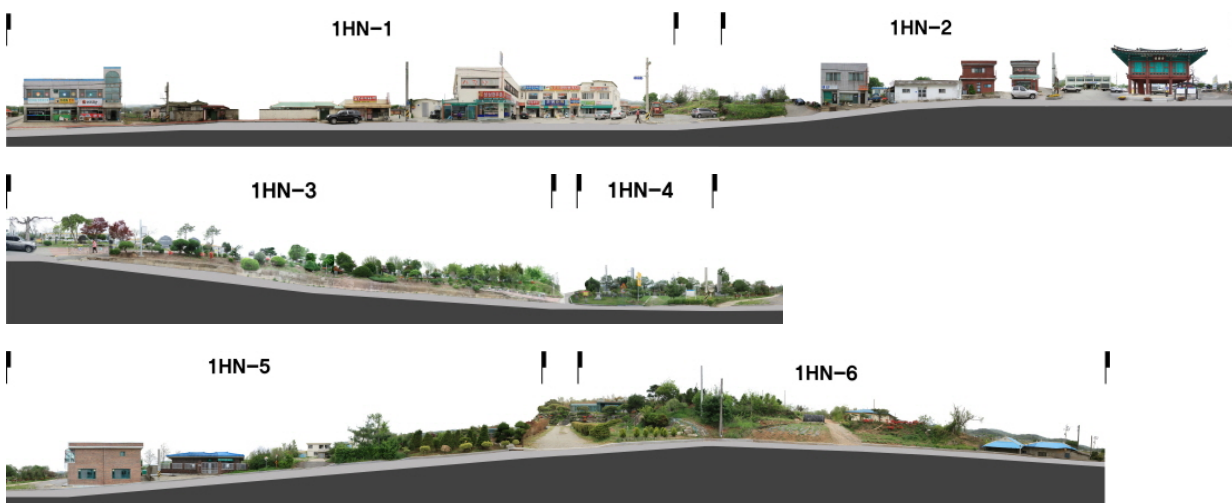
(1) 읍성 내 건축입면 경관 1



북측 입면

- 군자정을 중심으로 서측에는 건물이 많이 있으나(읍사무소, 초등학교 등) 군자정 동측으로는 주로 녹지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입면면적은 1036.4㎡이며, 이 중 전통적인 입면면적은 95.2㎡(9.2%)로, 풍낙루를 제외하면 전통적인 입면면적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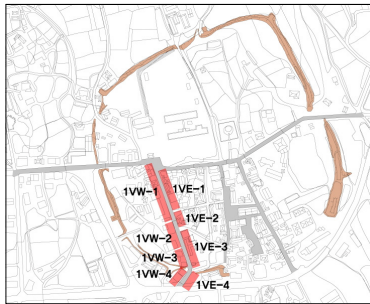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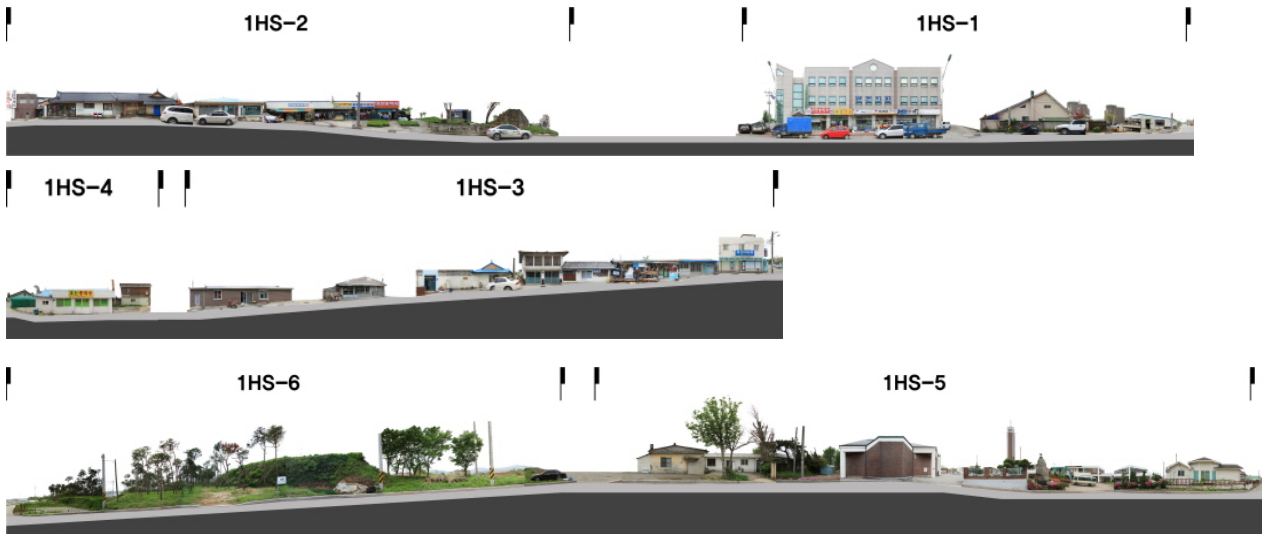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1036.4	941.2	95.2
벽면 면적	758.6	679.0	79.6
개구부 면적	277.8	262.2	15.6



남측 입면

- 북측가로면과 같이 군자정을 중심으로 서측에는 건물이 많이 있으나, 군자정 동측으로는 교회와 주로 녹지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입면면적 1441.7㎡ 에 전통적인 입면 면적 89.0㎡(6.1%)으로, 구가옥 벽면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입면 면적이 거의 없음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1441.7	1352.7	89.0
벽면 면적	1079.4	994.8	84.6
개구부 면적	362.3	357.8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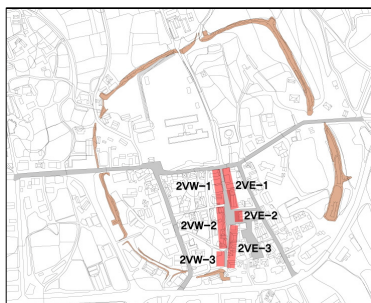
(2) 읍성 내 건축입면 경관 2

- 면천읍성 내에서 중요한 업무 및 근생건축물(농협, 4층 다가구 주택 등)들이 위치한 거리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가로변에 많은 수의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음
- 총 입면면적 1665.0㎡로 전통적인 건축물의 입면면적은 90.9㎡ (5.5%) 만이 보이며, 근대적 주거 건축물이 일부 입지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물 입면이 담장으로 가려져 있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개량되어 있어 가로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적 건축물 경관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1665.0	1574.1	90.9
벽면 면적	1077.9	987.0	90.9
개구부 면적	587.1	587.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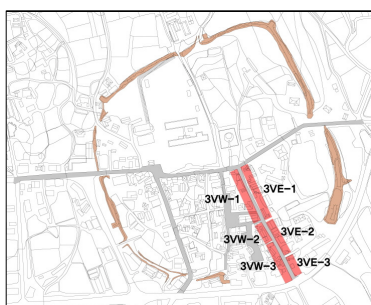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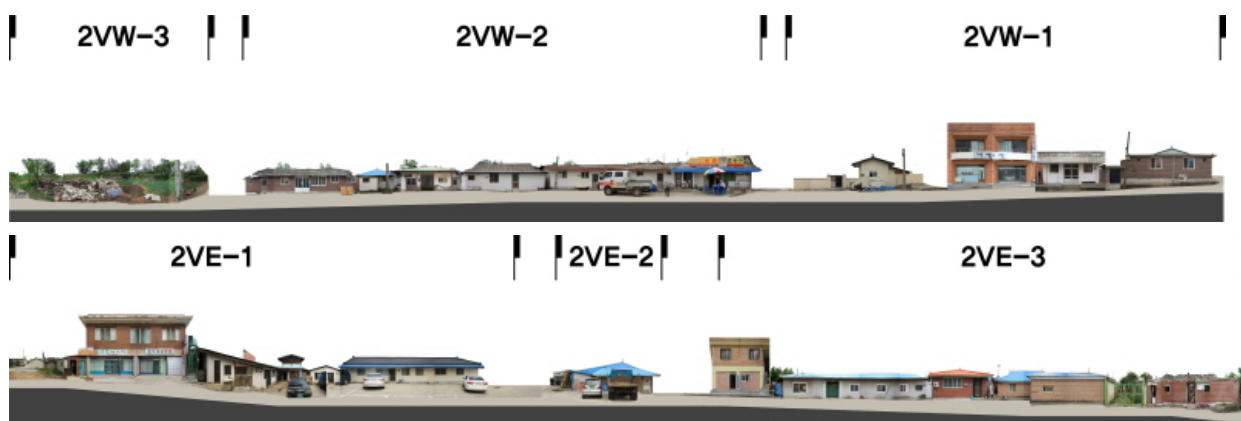


(3) 읍성 내 건축입면 경관 3 - 저자거리



- 군자정 남측으로 옛 저자거리를 형성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가로로 현재는 1-2층의 주거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거리임
- 주거,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서로 연결하여 가로입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총 입면면적 977.2㎡에 전통적인 입면면적은 0㎡(0%)으로, 전통적인 경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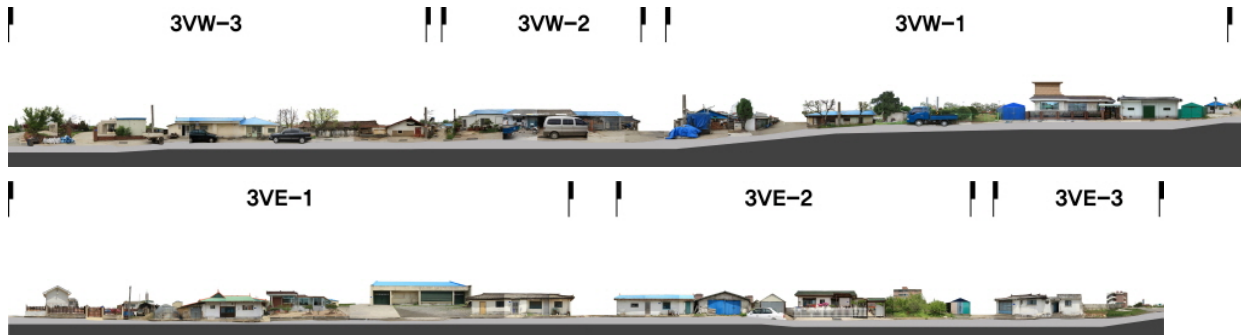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977.2	977.2	0.0
벽면 면적	751.2	751.2	0.0
개구부 면적	225.9	225.9	0.0



(4) 읍성 내 가로경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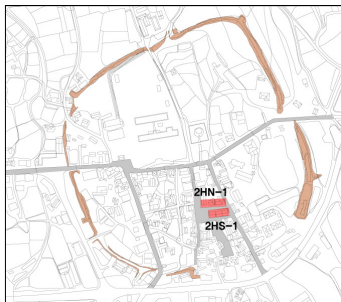
- 군자정 정면부터 읍성 남측 외부로 통하는 거리로서, 가로변에는 주로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데, 동측에는 1~2층 규모의 건물들과 가로 후면으로 4층 빌라 건물 위치
- 총 입면면적 889.1㎡에 전통적인 입면 면적 3.8㎡(0.4%)으로, 3VE-1의 주택의 기와눈썹 지붕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입면 면적 없음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889.1	885.3	3.8
벽면 면적	717.5	713.7	3.8
개구부 면적	171.6	171.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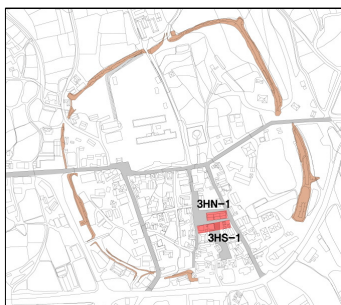


(5) 읍성 내 가로경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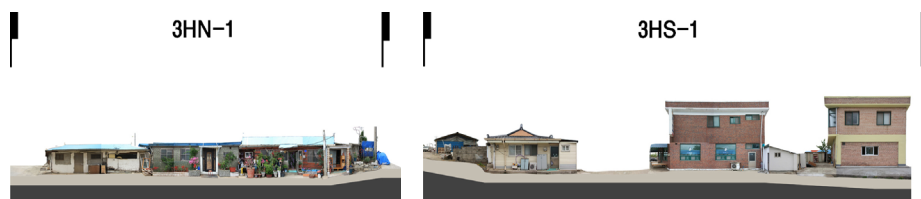
- 읍성 내의 저자거리 중심지로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남문지 쪽의 건물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많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이 형태, 색채, 재료 등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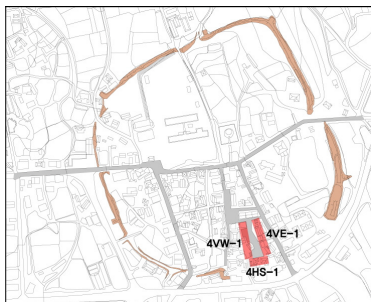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181.3	181.3	0.0
벽면 면적	162.3	162.3	0.0
개구부 면적	19.0	19.0	0.0



구분 (단위:㎡)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312.8	312.8	0.0
벽면 면적	253.9	253.9	0.0
개구부 면적	58.9	58.9	0.0





구분 (단위:m²)	전체면적	일반건축입면	전통건축입면
입면면적 합계	410.5	410.5	0.0
벽면 면적	346.6	346.6	0.0
개구부 면적	63.9	63.9	0.0



3.6. 기타경관 - 문화콘텐츠 자원

(1) 전설

복지점과 두견주

- 고려 복지점이 노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늙게 되자 효성이 지극한 딸이 아버지의 증병을 고쳐달라고 몽산에 올라가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던 날 산신령이 나타나, '정원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고,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다가 안샘물과 찹쌀을 넣어 술을 담가 아버지께 드려라'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 아버지의 병환이 나았다고 함

이형래와 남산봉 소나무 - 남산고송(면천8경)

- 이형래와 같이 지내던 호랑이가 노환으로 작고하자 호랑이가 명당자리를 찾아주었는데, 훗날 호랑이의 모습이 산신과 같다 하여 산신제를 남산봉 소나무 앞에 지내게 되었으며, 마을의 편안과 가정의 무고를 기원하였다고 함

좋은 묘자리를 잡아준 땡

- 면천면 죽동리 자연마을 이씨 집안에 포수에게서 총을 맞은 땡을 돌보아 살려주게 되는데, 그 후 집안에 부친상을 당하여 묘

소를 잡아야 하는데 살피준 꿩이 찾아와 상주를 잡고 묘소위치를 안내해 주어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소를 만들었으며, 그 묘소를 꿩이 잡아준 명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

아미산과 몽산의 용과 지내

- 아미산에는 용이, 몽산에는 지네가 살고 있었는데 용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반면, 지네는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였다고 함. 신령이 나타나서 용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지네를 없애면 승천할 수 있다며, 아미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할머니를 통해 쑥냄새로 지네를 죽이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음

성하리 색시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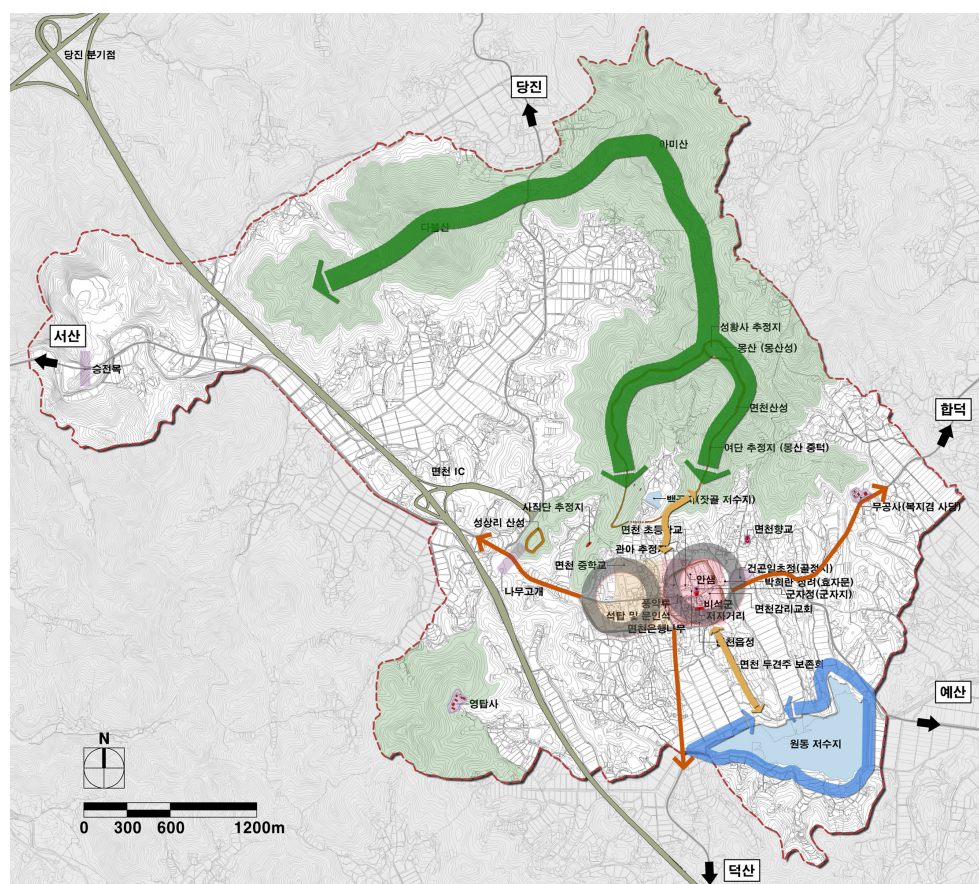
- 옛날 성하리 동학동이란 곳에 색시골이라 불리는 길목이 있었는데, 이 동학동 색시골을 밟으면 색시들이 모두 죽곤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전설임

(2) 민담 - 효부와 족제비

- 옛날 효부가 살았는데 추운 겨울날 모닥불로 화롯불을 만들어 방을 따뜻하게 하여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족제비가 와서 모닥불을 끄는 바람에 화롯불이 자꾸 꺼지게 되었다고 함. 아침에 일어나 화롯불을 보니 꺼져 있어 모닥불 자리로 가보니 또 모닥불은 꺼져 있고 불은 없고 그 자리에는 땅을 판자리가 있어 이상히 여겨 파보니 돈(지전) 뭉치가 나왔다고 함. 도둑이 돈을 가지고 가다가 날이 밝아서 못가지고 가는 바람에 모닥불이 꺼진 자리에 파서 돈을 묻고 간 것임. 효부의 효성을 보고 하느님이 축복해줘 족제비가 불을 끄게 하여 잘 살게 해준 것이라고 함

4.1. 경관권역, 거점, 축 분석

- 면천의 역사문화자원 분포 특성상, 대부분의 역사유산은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분포
-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서남쪽에는 영탑사, 동쪽에는 무공사, 북쪽에는 면천산성(몽산성)이 입지하며 역사적 경관권을 형성
- 면천읍성의 서쪽에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도시계획구역이 입지하며, 주민지원 편의시설이 입지
-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원동저수지가 입지하고 있어 수변 경관축을 형성
- 한편, 북쪽에는 면천읍성의 배후 산인 몽산이 입지하고 있으며, 몽산과 아미산, 다불산이 이어지는 자연경관 녹지축이 형성



[그림 2-13] 경관분석도

4.2. 조망경관 분석

- 면천의 조망경관 분석은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핵심지역인 면천읍성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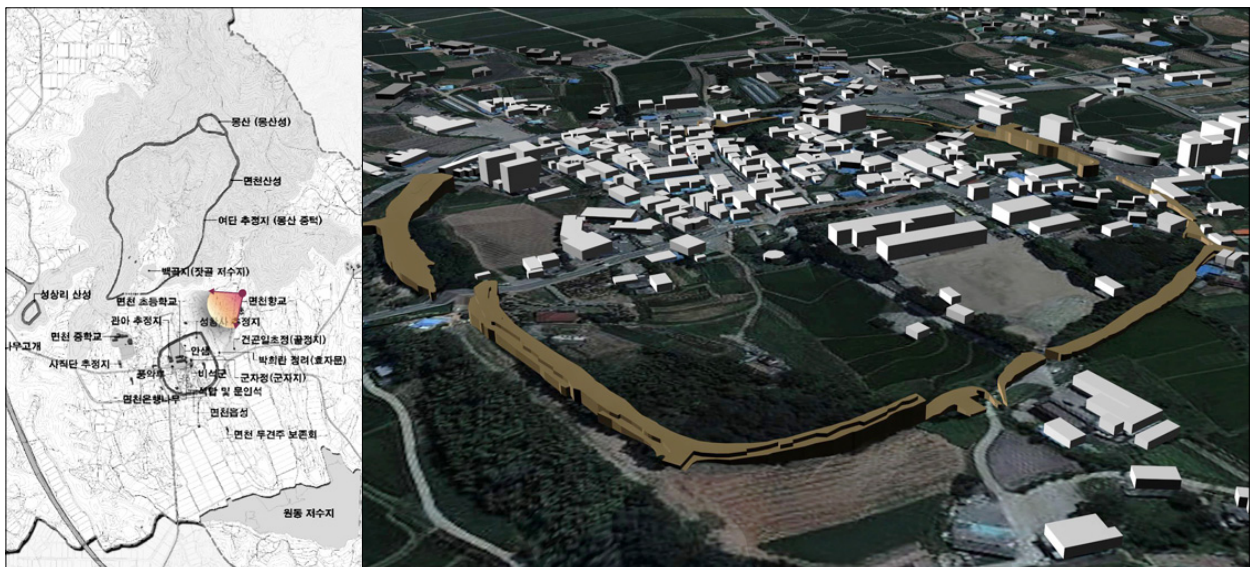
1) 면천 북쪽 조망

- 몽산성에서 바라본 면천 경관은 원경에서 가장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에 몽산성과 아미산의 연계방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그림 2-14] 몽산에서 본 면천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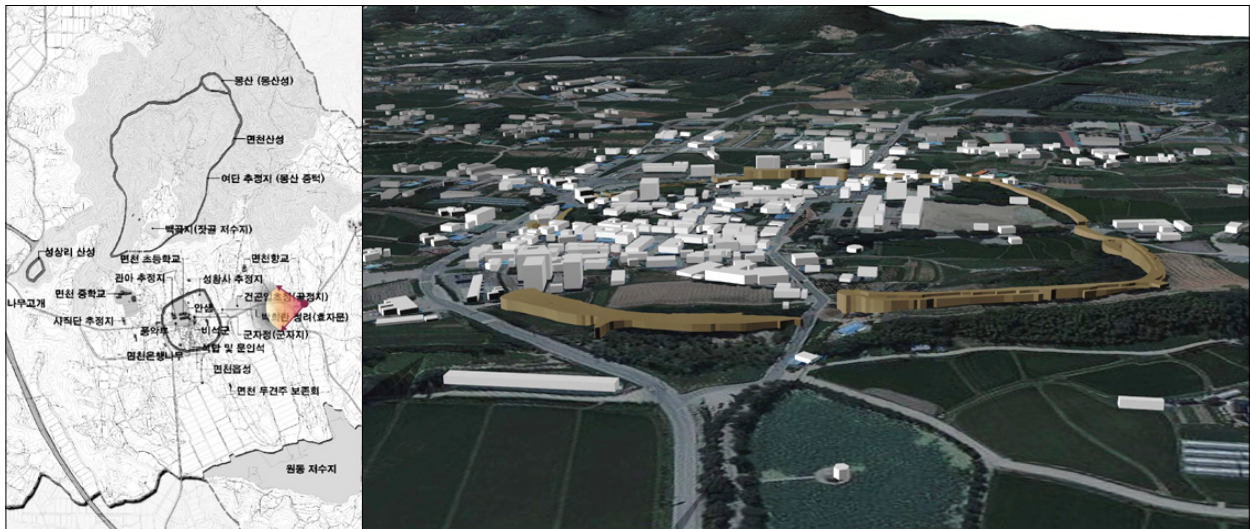
- 몽산성과 면천산성의 남쪽 상공에서 바라본 면천 조망경관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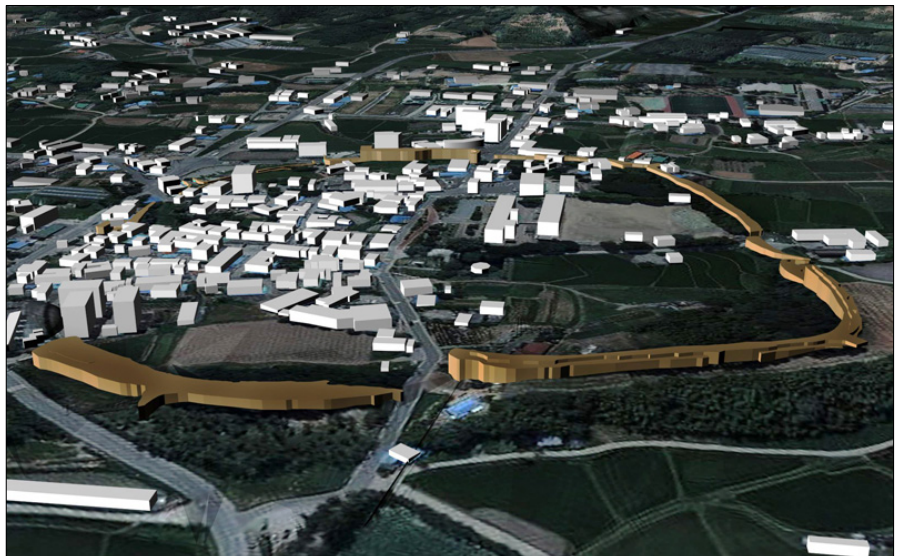
[그림 2-15] 몽산 방향에서 본 면천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3) 면천 동쪽 조망

- 면천읍성의 동쪽에서 바라본 조망경관은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에도 수목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구조가 잘 파악되고 있는 상태
- 이러한 현상은 면천읍성의 서쪽 내·외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이 많지 않고 골정지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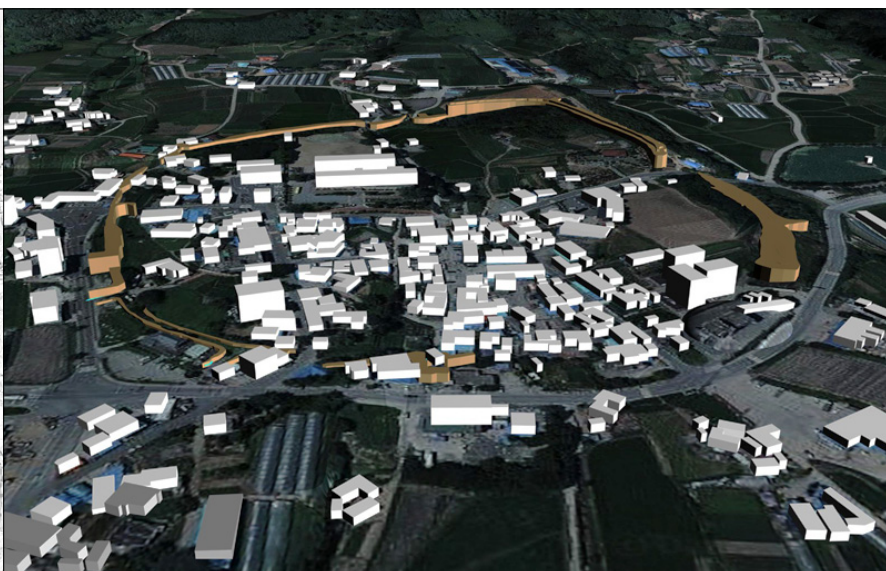
[그림 2-18]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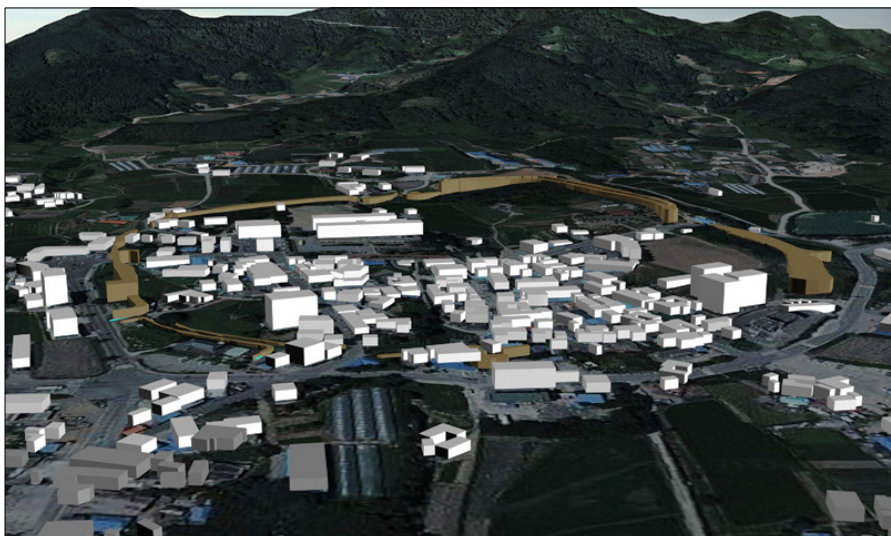
[그림 2-19]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4) 면천 남쪽 조망

- 면천읍성의 남쪽은 공간구조상 역사도시 경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가장 중요한 조망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읍성의 남쪽 성벽과 남문이 훼손되어 있고, 성벽 남쪽 변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 읍성으로서의 조망성이 매우 낮은 상태
- 역사문화도시로서 상징적 경관 조망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망



[그림 2-20]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낮은 상태



[그림 2-21] 동쪽에서 본 면천 경관 - 조망각도가 높은 상태

제 3 장

주민의식 및 이미지 조사·분석

1. 조사 개요

2. 면천의 도시 이미지

3. 면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1. 조사 개요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있어 현재 주민들이 면천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 면천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도시이미지에 대한 사항과 역사문화도시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 형성 요소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설문내용	세부 설문 내용 구성		비고
면천도시이미지	도시 인지도, 호감도, 독특성		·5점 척도
면천의 미래 도시이미지상	미래 도시 이미지상 요소		·자유연상법
면천 역사문화도시 형성 요소	역사	역사적 장소성, 역사유산보존성 역사유산 독특성, 미래가치성	·5점 척도 ·자유연상법
	문화예술	역사문화전통, 문화예술창조	·5점 척도 ·자유연상법
	경관	독특한 경관	·5점 척도 ·자유연상법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5점 척도 ·자유연상법
	주민의식	문화적 공동체 의식	·5점 척도

- 역사문화도시로서 면천의 도시 이미지 및 경관형성요소 조사 대상, 시기, 장소,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설문대상 : 면천 주민(30명), 당진 주민(30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시행
- 설문조사 방법 : 설문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원이 조사자와 1대 1면접조사를 시행

구 분	1차 조사	2차 조사	합계
설문 대상	면천주민	당진주민	
조사 기간	6월9일	6월10일	
조사 장소	면천면사무소, 면천터미널	당진군청, 중심시가지	
조사 방법	1대1면접	1대1면접	
설문/유효부수	30/30	30/30	60
남/여	16/14	16/1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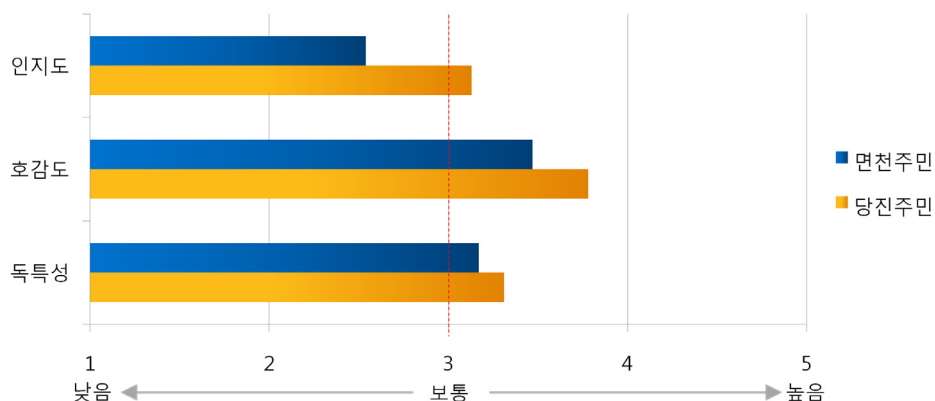
2. 면천의 도시 이미지

2.1. 면천의 현재 도시 이미지

- 면천에 대한 현재의 도시 이미지는 도시 인지도(2.82), 호감도(3.62), 독특성(3.24)로 조사되어, 도시에 대한 호감도는 있지만 독특성과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
- 특징적인 것은 면천주민들이 당진시민들 보다 면천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면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표 3-1] 면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평가

구 분	인지도	호감도	독특성	비고
면천 주민	2.54	3.47	3.17	5점 : 높음 3점 : 보통 1점 : 낮음
당진 시민	3.13	3.78	3.31	
평 균	2.82	3.62	3.24	



[그림 3-1] 면천의 현재 도시 이미지

2.2.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상

- 면천주민과 당진군민이 바라본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 상으로는 역사 및 전원도시, 역사도시, 두견주, 면천읍성, 문화도시 순으로 응답하여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 상을 역사문화도시로 하는데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 기타: 진달래 및 진달래축제 관광도시, 은행나무, 교통, 경관정비, 오래된 읍성, 산업도시, 행복도시, 살기 좋은 마을 등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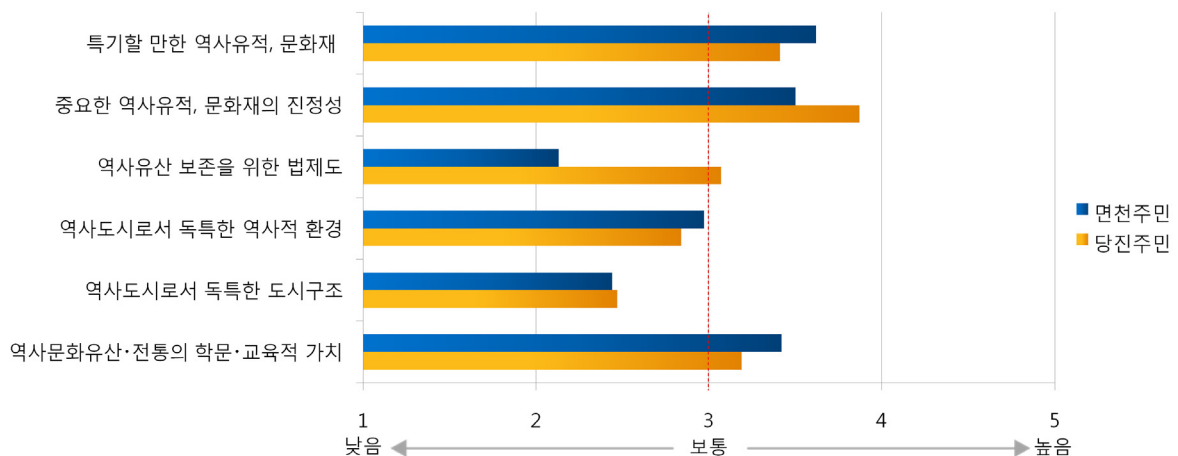
[표 3-2]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 상

미래 도시이미지	응답 계	비율	누적비율	비고
역사 및 전원도시	8	13.3%	13.3%	
역사도시	8	13.3%	13.3%	· 역사, 역사가 묻어있는 마을, 고도
두견주	5	8.3%	8.3%	
면천읍성	5	8.3%	8.3%	· 면천성, 읍성
문화도시	5	8.3%	8.3%	· 문화
기타	21	35.0%	35.0%	
무응답	8	13.3%	13.3%	
합 계	60	100.0%	100.0%	

3. 면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요소

3.1. 역사적 요소

- 면천의 역사도시로서의 장소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부 역사도시 이미지 형성요소에 대한 응답에서 면천지역에는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 문화재의 진정성, 학문·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반면,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 역사도시로서의 독특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



[그림 3-2] 면천의 역사적 요소에 대한 인식

1) 역사적 장소

- 면천의 역사적 장소로는 면천읍성, 영탑사, 면천향교, 은행나무, 골정지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천읍성이 가장 큰 장소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기타: 군자정, 안샘, 몽산성, 아미산, 몽산길, 면천면사무소, 면천초등학교 등을 연상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면천읍성	16	2	2		1	21	95	10.6%	10.6%	
영탑사	4	3	2	2	2	13	44	4.9%	15.4%	
면천향교	3	1	3	1	1	9	31	3.4%	18.9%	· 향교
은행나무	3	2	1			6	26	2.9%	21.8%	
골정지	3	1		2		6	23	2.6%	24.3%	
기타	8	14	6	4	1	33	123	13.7%	38.0%	
무응답	23	37	46	51	55	212	558	62.0%	62.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100.0%	

2) 역사적 사건

- 역사적 사건으로는 3.10만세 운동, 복지검의 탈인 영랑의 효행, 승전물 전투 등을 응답
- 기타: 천주교 박해, 고려 개국, 영탑사 금동불상 도난사건, 면천로 설치, 면천읍성 축조, 면양잡록, 과농소초 집필, 박지원 군수제직, 면천폐로, 승전목, 김윤식 귀향지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3.10 만세운동	9				2	11	47	5.2%	5.2%	· 만세운동
영랑의 효행	3	1				4	19	2.1%	7.3%	· 복지검 효사상 영랑 설화
승전목 전투	2	1				3	14	1.6%	8.9%	· 이배산 전투, 전투
복지장군	1					1	5	0.6%	9.4%	
복지검 근거지	1					1	5	0.6%	10.0%	
기타	3	2	3	2	0	10	36	4.0%	14.0%	
무응답	41	56	57	58	58	270	774	86.0%	86.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100.0%	

3) 역사적 인물

- 면천의 역사적 인물로는 복지검을 가장 강하게 연상하였고, 박술희, 박지원, 영랑공주, 원용석 등의 순으로 응답
- 기타: 김윤식, 복규, 유한재, 영탑사 까마귀, 인당장군 등을 응답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복지검	28	2	1			31	151	16.8%	16.8%	· 복지검 장군
박술희	3	6	1			10	42	4.7%	21.4%	
박지원	2	3	4			9	34	3.8%	25.2%	· 연암 박지원
영랑공주		4	2		1	7	23	2.6%	27.8%	· 영랑
원용석	1					1	5	0.6%	28.3%	
기타			2	3	1	6	13	1.4%	29.8%	
무응답	26	45	50	57	58	236	632	70.2%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100.0%	

4) 독특한 역사유적 또는 문화재

- 독특한 역사유적 또는 문화재로서는 면천읍성, 영탑사, 두견주, 은행나무, 군자정 순으로 응답함
- 기타: 골정지, 저수지, 금동삼존불, 몽산성, 면천향교, 복지검, 영탑사칠층석탑, 면천저수지, 초등학교 앞 은행나무, 안샘, 진달래축제, 막걸리, 불상, 아미망루, 의두암, 김대건, 면천중학교 은행나무, 면천읍성지, 동학, 박희란/박희전 효자비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면천읍성	16	6	3			25	113	12.6%	12.6%	
영탑사	8	6	5	1	3	23	84	9.3%	21.9%	
두견주	2	3	4	3	1	13	41	4.6%	26.4%	
은행나무	3	2	2	3		10	35	3.9%	30.3%	
군자정		3	3	1	1	8	24	2.7%	33.0%	
기타	12	13	5	6	2	38	141	15.7%	48.7%	
무응답	19	27	38	46	53	183	462	51.3%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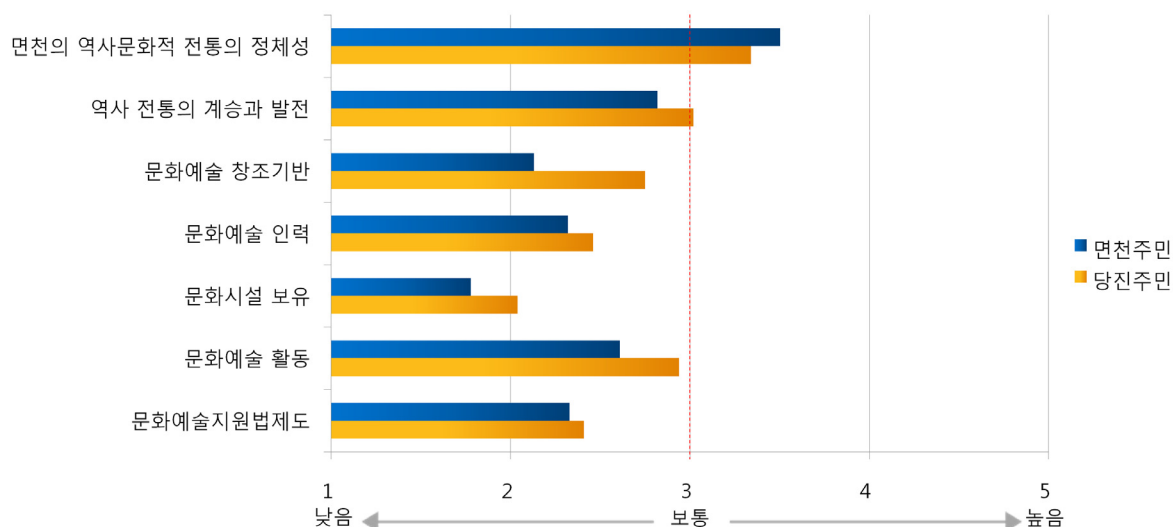
5) 역사도시로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

- 성상리, 성하리 지역을 포괄적으로 응답하였고, 면천읍성과 읍성 내 라고 응답
- 기타: 영탑사, 원동리, 은행나무, 소재지, 구시가지, 읍성과 산성 구조, 군자정, 공주, 죽동리, 몽산, 문봉리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성상리	11					11	55	6.1%	6.1%	
성하리		5				5	20	2.2%	8.3%	
면천읍성	4					4	20	2.2%	10.6%	· 성, 읍성
전주	2					2	10	1.1%	11.7%	
읍성 내	2					2	10	1.1%	12.8%	
기타	6	4	2	1	1	14	55	6.1%	18.9%	
무응답	35	51	58	59	59	262	730	81.1%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3.2. 문화예술적 요소

- 문화예술적 요소에 대한 설문에서 면천은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역사 전통의 계승과 발전, 문화예술 창조기반, 문화예술 인력,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지원 법제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인식



[그림 3-3] 면천의 문화예술적 요소에 대한 인식

1)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

- 면천의 문화적 전통면천주민과 당진군민이 바라본 면천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으로는 두견주를 가장 높게 제시했으며, 면천향교와 효사상, 애국 및 3.10만세운동을 응답
- 기타: 진달래, 동학, 면천초등학교, 충효, 전통계승, 유교, 면천 막걸리, 사물놀이, 면천교회, 솟대, 오래된 학교 박지원 애민사상, 천주교, 청정, 불교, 읍성과 산성, 독립, 사찰 등을 응답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두견주	5	1		2		8	33	3.7%	3.7%	
면천향교	4	1			1	6	25	2.8%	6.4%	
효사상	3	1				4	19	2.1%	8.6%	· 효
애국	1	2				3	13	1.4%	10.0%	· 애국심, 충
3.10만세운동		1	2			3	10	1.1%	11.1%	
기타	7	7	4	2		20	79	8.8%	19.9%	
무응답	40	47	54	56	59	256	721	80.1%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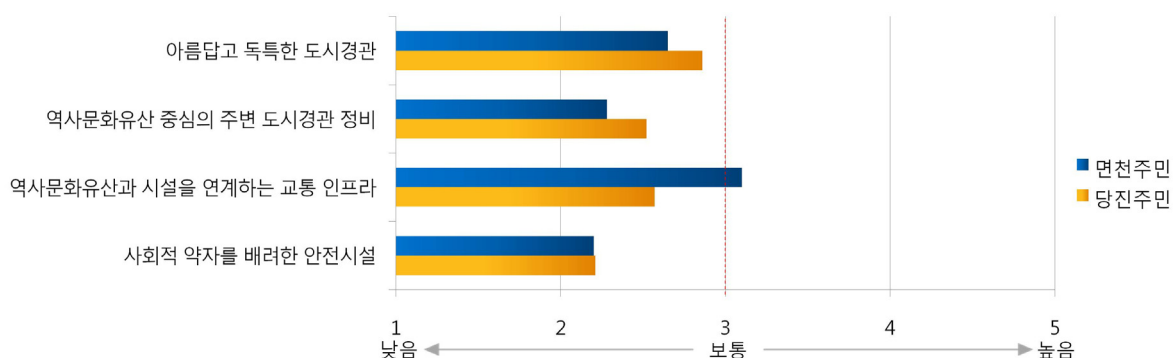
2) 대표적인 문화자원(인물, 문화시설, 공연 등)

- 진달래 및 진달래 축제를 면천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두견주, 복지검, 면천향교, 면천읍성 순으로 응답
- 기타: 은행나무, 영답사, 영랑, 사물놀이, 복지회관, 몽산, 아미산 등산로, 박지원, 까마귀, 3.10 만세운동, 향교 석전제, 몽산 투어, 감리교회, 아미산, 면천초등학교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진달래 및 진달래 축제	20	3	1	1		25	117	13.0%	13.0%	
두견주	4	1	3			8	33	3.7%	16.7%	· 두견주보존회장
복지검	2	2				4	18	2.0%	18.7%	
면천향교	1	1			1	3	10	1.1%	19.8%	· 면천향교
면천읍성	1	1				2	9	1.0%	20.8%	· 성
기타	5	3	3	3	2	16	54	6.0%	26.8%	
무응답	27	49	53	56	57	242	659	73.2%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3.3. 경관적 요소

- 도시경관적 차원에서는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응답
-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과 역사문화유산 중심의 주변 도시경관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응답



[그림 3-4] 면천의 도시경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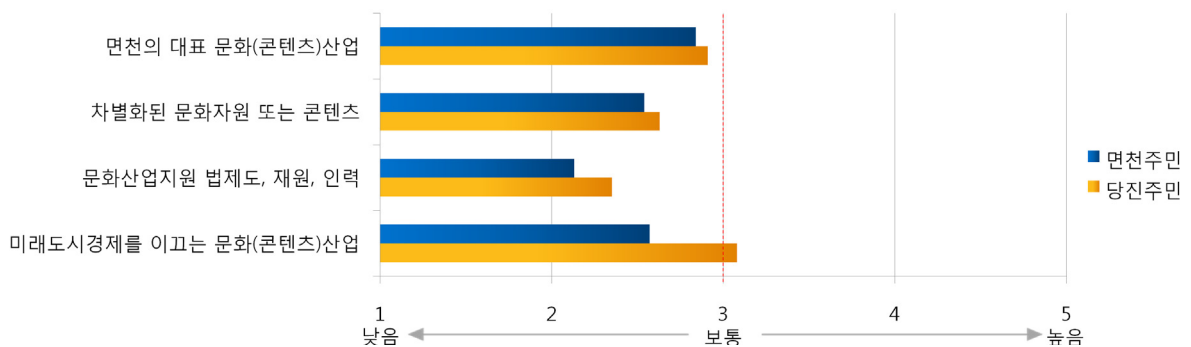
1) 대표적인 도시경관

- 주민들이 생각하는 면천의 대표적 도시경관 요소는 면천읍성, 면천향교, 영탑사, 골정지, 군자정, 진달래 및 진달래 축제 등으로 역사유산을 대표적인 도시경관으로 생각하고 있음
- 기타: 은행나무, 아미산, 저수지, 면천저수지, 몽산, 성상리, 성상리마을, 읍성주변, 면천읍 들어오는 길, 면사무소 앞, 터미널 앞, 깨끗한 도로정비, 몽산성 주위의 자연경관, 시장, 안샘, 복지점 사당, 원동저수지 등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면천읍성	7	3				10	47	5.2%	5.2%	· 읍성
면천향교	5	1	1			7	32	3.6%	8.8%	
영탑사	2	2		2		6	22	2.4%	11.2%	
골정지	2	1	1	1		5	19	2.1%	13.3%	
군자정	1	1	2		1	5	16	1.8%	15.1%	
기타	20	9	2			31	142	15.8%	30.9%	
무응답	23	43	54	57	59	236	622	69.1%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3.4. 문화산업적 요소

- 면천의 문화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것(2.87)으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자원 유무(2.59), 문화산업지원 체계(2.24), 미래 문화산업(2.81) 등으로 미흡하다고 응답
- 특히, 문화산업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며, 차별화된 문화자원과 콘텐츠도 부족하다고 인식



[그림 3-5] 면천의 문화산업(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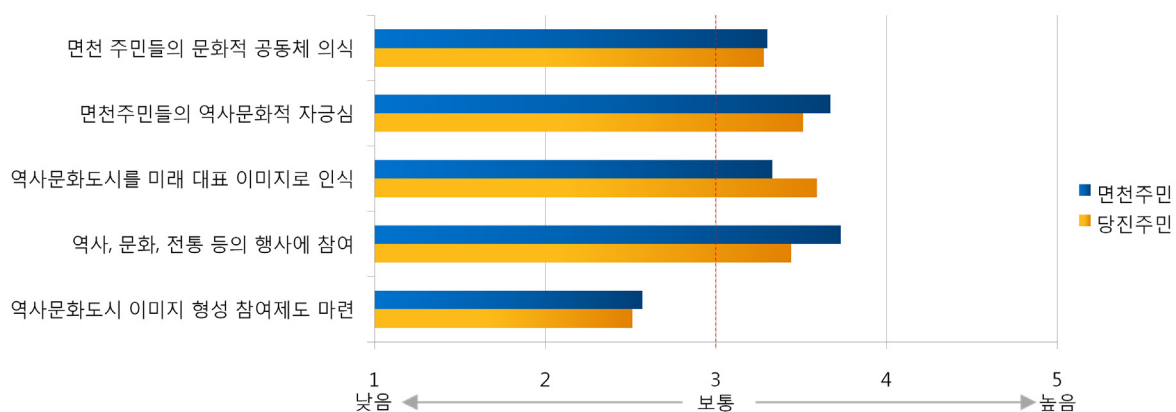
1) 미래 문화(콘텐츠)자원 조사

- 미래 문화자원으로는 면천읍성, 두견주, 진달래 및 진달래축제, 면천막걸리 등을 응답하여 역사문화유산과 주류(두견주, 막걸리)를 대표 미래 문화자원이라고 생각
- 기타: 몽산성 체험, 은행나무, 청정환경, 팸투어, 추어탕, 특산품, 인력, 체험놀이터(목장, 농장), 역사체험, 옛거리 복원, 전통 복원, 관광지 개발, 역사, 콩국수, 면천향교, 저수지개발, 영탑사, 자원, 축제활성화, 관광, 관광에 따른 상품판매, 문화, 자궁심, 짜리고추, 군자정, 복지점, 박술회, 박지원, 아미산, 박물관, 몽산, 아미산 등산로, 몽산, 오봉산 등산, 다른 지방과의 연계성, 전원도시 등을 응답

요 소	1번응답	2번응답	3번응답	4번응답	5번응답	합계	연상강도	비율	누적비율	비고
면천읍성	10	2				12	58	6.4%	6.4%	· 성, 읍성 복원
두견주	5	2	2			9	39	4.3%	10.8%	
진달래 및 진달래축제		3	3			6	21	2.3%	13.1%	
면천 막걸리	2	2				4	18	2.0%	15.1%	
문화재	2					2	10	1.1%	16.2%	· 문화유산
기타	12	15	4	3	1	35	139	21.4%	46.9%	
무응답	29	36	51	57	59	232	615	68.3%	100.0%	
합 계	60	60	60	60	60	300	900	100.0%		

3.5. 주민의식적 요소

- 주민들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3.29)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역사 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에 잠재력을 보임
- 면천 주민들이 면천에 대한 역사문화적 자긍심(3.59), 역사문화 도시를 미래 대표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3.46), 역사문화전통 관련 행사의 참여(3.58)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반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의체, 상설기구 등)는 미흡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그림 3-6] 면천의 주민의식적 요소에 대한 의식

제 4 장

관련법규·계획 및 사례조사

1. 관련법규·계획 조사

2. 사례 조사

1. 관련법규·계획 조사

1.1. 관련법규 조사개요

- 면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률 및 경관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경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 및 건축법 등이 대상이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
- 특히 당진시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조례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확보
- 국계법을 비롯한 경관관련 법률에서는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음
 - 국계법에서는 경관제어와 형성을 위해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경관지구 등을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과 현상변경허가에 의해 당해 문화재와 주변경관을 보호하고 있음

● 경관에 관련된 법률에서의 지역·지구·구역

구분	근거법	내용	규제사항
미관지구 (중심지/역사문화/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제한 등
고도지구 (최고/최저)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중요시설/생태계)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 (자연/수변/시가지)		경관을 보호·형성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허용되는 행위 별도로 규정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를 위한 완충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완충/전이구역)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 가 있는 지역	생태·전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행위 제한 등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	

- 충청남도과 당진시에서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의 기타 조례에서도 개발행위 시 경관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한편, 당진시는 경관관련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운영함

구 분	근거법	충청남도	당진시
경관조례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경관사업의 대상 및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 재정지원, 경관시범지역 지정,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관리,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경관사업 대상 및 추진협의체 구성,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경관협정 및 지원,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추진기구 및 개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군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	건축법	충청남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및 기준완화 등,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공개공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조례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원의 설치 및 관리, 이용시간 및 대상, 관리위탁, 점용허가, 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 보호법	도지정문화재의 정의 및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공공디자인조례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진흥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업무협의,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미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지원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안전도검사, 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교육, 광고물 실명제 및 행·재정 지원,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제법에서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가능시설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 농림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0)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장 -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 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0)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어가 주택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 창고시설, 발전소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용시설(발전소 제외) - 묘지관련시설

2) 경관법

- 지자체에서 경관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법이자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로 구성되며, 규제기준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유도·협정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 분	경관법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제2장 경관계획	•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함 (제6조)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제8조 제3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0조 제1항) •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제11조 제1항)
제3장 경관사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사업대상(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제15조 제1항)
제4장 경관협정	•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경관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음. 체결시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에게만 미침(제16조 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5장 경관위원회	•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둠. 단,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제23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받아야할 사항(제24조 제1항) :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 • 경관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할 사항(제24조 제2항) : 경관계획,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조례의 제정,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상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선양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현상변경 허가 범위를 당해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로 설정하고 있음

구 분	문화재보호법 주요 내용	이행주체
제8조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보호상 필요한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
제20조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경미한 행위(규칙18조2)는 제외)	문화재청장
제25조 (문화재 소유제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가 문화재보존상 부적당 또는 필요할 경우 소유자·보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제27조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관리자 선임, 해임, 매도, 소유자 변경 등)	문화재 또는 보호구역내 소유자
제55조 ⑤	시·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단체장
제74조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안전보존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안전보존상 필요시 공사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조치를 취함 ②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외부지역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문화재청장 당해공사시행자
제77조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선양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

구 분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이행주체
제43조의3	법74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지형·경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 정함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별로 보호구역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보호구역은 자연적·인위적조건,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에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 보존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이행주체
제3조	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지정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달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이내의 구역(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미터) 2. 석탑. 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의 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이내의 사방구역 10.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자연적·인위적조건,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문화재청장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의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군계획 위원회 심의 개발 행
위에 대해 면적 별로 심의를 받아 행위를 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용도지역, 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구분		주 요 내 용
제16조	조건부 허가	•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 있을 때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 30,000㎡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10,000㎡ 미만(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30,000㎡ 미만)
제18조	군계획위 원회 심의 개발행위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부피 30,000㎡ 이상 -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0,000㎡ 이상 / 공업지역 면적 30,000㎡ 이상
제2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1종,2종)(별표2,3) /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별표4,5,6), 준주거지역(별표7) - 중심상업지역(별표8), 일반상업지역(별표9), 근린상업지역(별표10), 유통상업지역(별표11) - 전용공업지역(별표12), 일반공업지역(별표13), 준공업지역(별표14) - 보전녹지지역(별표15), 생산녹지지역(별표16), 자연녹지지역(별표17) - 보전관리지역(별표18), 생산관리지역(별표19), 계획관리지역(별표20) - 농림지역(별표21) / 자연환경보전지역(별표22) / 자연취락지구(별표23) / 관리지역(별표24)
제24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미관지구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25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설치기준 - 건축물의 높이 : 중심미관지구 5층 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 (폭 20m이상 도로 연결시 5층 이하) - 건축물 규모 :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50% 이상 100% 이하) - 대지내 공지확보를 위해 미관도로변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건축, 이 공지 안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전신주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불가 - 부속건축물로서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 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가 -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지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례 시행규칙 규정 준수

구분	주요 내용
제28조 ~ 제29조	건폐율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전용주거지역(1종,2종), 일반주거지역(3종) : 50% 이하 - 일반주거지역(1종,2종) : 6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70%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20%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20%, 계획관리지역 : 40%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취락지구 6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수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 농공단지 70% 이하로 지정
제30조	건폐율 강화 •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낮출 수 있음
제31조 ~ 제32조	건폐율 완화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 80% 이하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축시 건폐율 : 40% 이하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축시 건폐율 : 50% 이하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 : 60% 이하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 30% 이하
제33조 ~ 제34조	용적률 • 용도지역의 용적률(기준 초과 불가)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80% 이하, 제2종 150% 이하 / 준주거지역 400% 이하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150% 이하, 제2종 250% 이하, 제3종 280% 이하 - 중심상업지역 1,2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1,1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7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2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50% 이하 (아파트형공장 350%) - 보전녹지지역 60% 이하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0% 이하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 농림지역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60% 이하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군계획시설의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시 따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서, 도시지역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수자원보호구역 80% 이하, 농공단지 150% 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 이하(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00% 이하)로 지정
제35조 ~ 제36조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공업지역(전용,일반,준) 내 건축물 용적률 완화 (군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시) - 공원·광장(교통광장 제외)·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120% -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120% •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군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시) : $\text{용적률} = [(1+0.3a) / (-a)] \times (\text{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quad a = \text{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 / \text{공공시설 제공면적}$

5) 당진시 건축 조례

- 대지안의 조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서 명시하고 있으며,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물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
- 한편,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 확보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 이상 대지에 필요한 조경기준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 보전녹지지역내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제외) : 대지면적 20% 이상(심의시 10%까지 완화 가능) • 조경이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골프연습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기타 유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제4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분할제한 기준 : 각 호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 주거지역 60㎡ / 상업지역 150㎡ / 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200㎡ - 이 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
제5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 맞벽대상 건축물의 기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당해 건축기준 적용)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 건축물의 수 및 층수 :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서로 같아야 할 것 -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할 것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봄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이내의 부분 -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개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구분	주요 내용
제5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축시(영 제86조 제1항),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 담장과 연면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제57조 공개공지 의 확보	• 공개공지 설치 기준(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 면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종합병원(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 이상 • 공개공지 시설 기준 -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제23조 기준에 의해 식재 할 것 (피로티 구조 제외) - 조명시설 / 벤치 / 식수대 /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 식재 이외부분에 보도블럭 등 포장 / 안내표지판 • 완화규정 기준 - 용적률(법 제48조)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 높이제한(법 제51조) : 높이제한 기준 $[1 + (\text{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div \text{대지면적})]$

1.2. 관련계획 조사

1) 관련 상위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글로벌 녹색국토」의 실현을 위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등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상징거리 조성 및 전통건축물 정비 등을 통한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것을 제안
- 특히, 역사 및 전통문화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창조지역 개발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경관의 한국적인 문화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적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제시
- 충청권의 발전방향으로서는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진 면천은 내포문화권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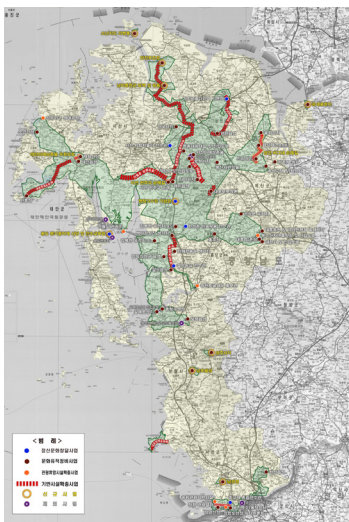
● 문화관광권역 및 관광벨트

(2)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 수정된 계획에서 충남의 기조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며,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제시
- 문화부분에서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시립박물관 건립을 제시
- 당진시의 발전방향은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를 목표로, 역동적인 수출 지향적 임해신산업지대,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유통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체험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를 기본목표로 역사문화관광부문에 천주교 및 불교자원, 면천읍성 복원 및 필경사 확충, 합덕제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추진



(3)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2011)(안)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 총 46개 사업 중에 당진시에는 정신문화창달의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문화유적정비의 안국사지 발굴 정비, 슬피·신리성지 성역화, 남이홍장군 묘역 및 유품정비, 소난지도의병충, 면천읍성 정비, 당진포진성, 합덕제 정비, 버그네순례길 등 총9개 사업이 포함됨
- 면천읍성 정비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성곽을 이용 지역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 사업의 필요성
 -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성곽을 정비·복원하여 체계적으로 역사·문화유적을 관리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업내용
· 면천읍성 정비 - 위치 :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96-1 일원(124,060㎡) - 사업비 : 29,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2020년	· 토지매입, 시·발굴조사 · 남·동·서문 복원 · 관아건물 복원 · 성곽 1,126m복원, 조경 및 성곽시설 조성 · 내포 저자거리, 전시관 조성



[그림 4-1] 면천읍성 정비사업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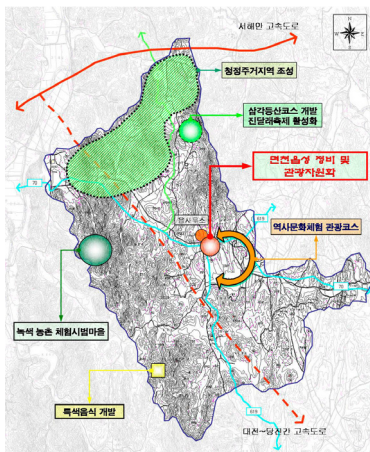
2) 군 관련계획

(1) 다이내믹 당진비전 21(2003~2022)



●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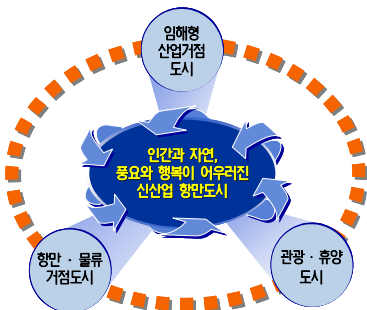
- 민선3기의 출범으로 당진이 나아가야 할 2022년까지의 비전계획으로서 당진시의 미래상을 인구20만의 도농통합형 산업·물류·휴양 관문도시로 설정하고 있음
- 면천면을 '역사문화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중산간 농촌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개발사업에는 면천읍성 정비 및 관광자원화 사업, 역사문화체험 관광코스, 특색음식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음
- ① 면천읍성 정비 및 관광자원화 : 역사유적 정비복원, 조경휴게시설 조성, 테마관광지 및 생활민속촌 육성
- ② 역사문화체험 관광코스 : 면천읍성~군자정~안샘~골정지~면천향교~영탑사~원동저수지를 연계
- ③ 특색음식개발 : 콩국수, 붕어찜, 어죽, 옷닭, 오리탕 등을 고품질화



● 다이내믹 당진비전 21
- 면천면 개발구상도

(2) 2025 당진시기본계획(2008)

- 2025년 당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장기발전방향,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법정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
- 당진시의 미래상을 '인간과 자연,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 항만도시'로 설정하고 있음
- 경관관리 계획상 면천은 경관개선대상지역으로서 취락지의 건축물 노후 및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산악경관으로서 아미산, 다불산 등의 연계, 역사경관으로서 아미산, 영탑사, 시가지 경관개선으로서 면천읍 내의 경관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 면천면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면천읍성 복원·정비, 원동리 저수지 공원화 및 아미산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관광개발계획상에 면천면의 관광자원으로는 영탑사, 아미산, 면천읍성터, 군자정, 면천향교, 면천은행나무, 면천두견주 등 7가지를 꼽으며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2025년 당진시기본계획상의
당진의 도시미래상

● 2025 당진시기본계획(2008)상의 면천읍성 정비방향

- 면천읍성과 함께 읍성내부 및 외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기반 조성
- 성곽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보전지역으로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읍성복원은 상징성이 높은 문루를 중심으로 하며, 성벽은 연차적·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지속적인 토지매입, 연차별·단계별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을 보존·정비
- 성곽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정비 후 성곽의 자족적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비 후 유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민가형식의 시설을 입지시켜 지역 문화체험 및 생활민속촌으로 육성
- 성곽 내 지원시설은 옛 모습을 기초하여 조성하되, 내부시설물은 현대화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

(3) 당진시 관광종합개발계획(2009~2020)



● 당진 관광권역별 개발구상

- 당진의 관광비전과 실천전략 및 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당진의 관광비전을 “서해안 관광 신천지”로 설정
-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로 고유성 높은 관광매력 강화
- 면천면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두견주 전승체험관 조성과 프로그램, 아미산 테마등산공원 조성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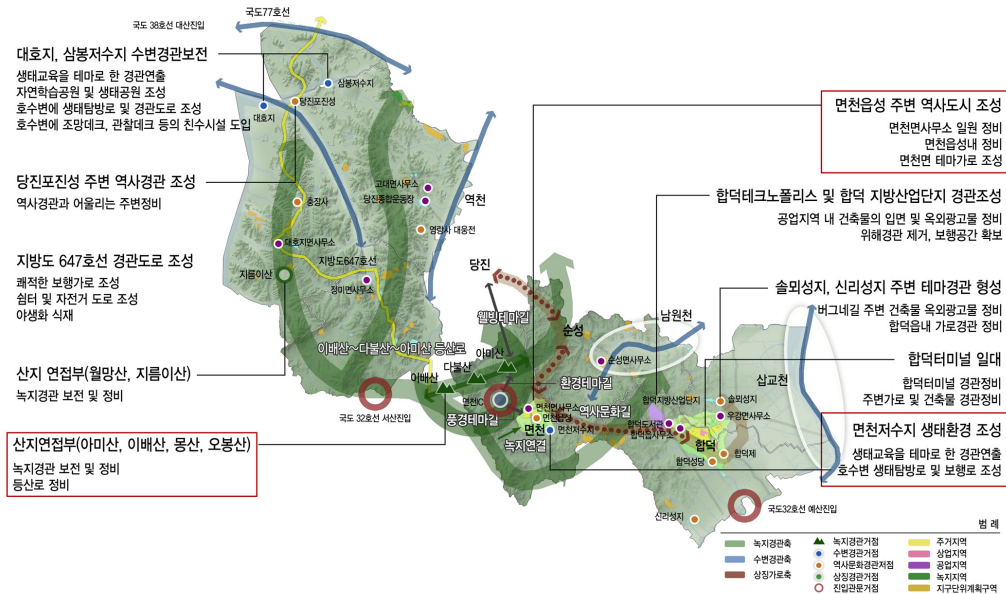
사업개요	사업 내용
● 두견주 전승체험관 조성 - 위치 : 면천읍성 복원구역 내 - 면천읍성과의 연계성을 높임	● 두견주 전승체험관 도입시설 - 전수회관·전수자 숙소, 제조공장, 전시관, 체험장, 전통주막, 소광장
● 아미산 테마등산공원 조성 - 위치 : 면천면 죽동리 일원 - 지역주민의 여가·체험관광 개발	● 아미산~다불산~몽산을 코스화 ● 아미산 테마등산공원 도입시설 - 송림원(식물원), 폐금광체험장

- 도입프로그램별 이벤트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	이벤트		내용
두견주 전승체험	봄	술 담그기	● 진달래꽃 채취에서 술 담그기에 이르는 과정을 소재로 한 체험형 이벤트 - 면천 진달래축제와 연계하여 실시
	초여름	백일주 마시기	● 100일동안 숙성된 두견주를 맛보는 이벤트
	가을 겨울	진달래 잎차 체험	● 진달래 잎을 채취하여 차를 빚고 맛보는 이벤트
아미산 테마등산공원	교육		● 폐금광의 역사 학습, 폐광 생태환경 학습, 금 채취 체험
	문화&휴식		● 폐금광 탐험, 피서 프로그램
	레포츠		●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4)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안)(2011)

- 당진시 경관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2025년까지 군전역에 대한 경관틀과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당진시의 경관미래상과 목표를 '역동적인 수륙산업환경 도시'로 설정하여 산업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사문화경관거점을 상징성과 활용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설정하고 대표적인 곳으로서, 면천읍성, 솔피성지, 합덕제, 합덕성당, 신리성지, 당진포진성, 필경사, 충장사 등을 제시
- 특히, 면천지역에 역사문화, 상징경관, 수변경관, 녹지경관거점을 형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청정자연권역 상의 면천주변 경관관리 및 형성 계획 -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안)



● 면천읍성 복원정비계획도

(5) 당진 면천읍성 정비복원 기본계획(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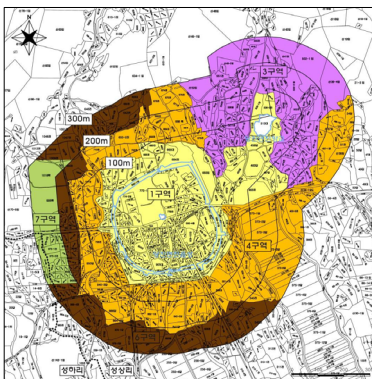
- 역사 및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면천읍성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기 위한 정비계획으로서 면천읍성을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회복
- 계획의 기본방향은 ①성내외 사유지 건물은 선별 매입 후 정비, ②유적 복원 정비는 발굴조사 선행 후 추진 ③면천읍성의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자연 교육문화시설 도입 ④ 탐방객에게 안락한 탐방환경을 위한 편의시설물 도입임

-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사업과 성체복원, 역사공원, 저자거리 시설물조성 등이 있음

구 분		세부사업 내용
기반사업	토지매입	● 총 199,745㎡ 중 사유지 79,513㎡ 매입
	건물매입	● 총 135동 중 58동 매입
	발굴조사	● 성곽 및 복원건물지 시굴 및 발굴조사
사업내용	복원	● 남문, 서문, 동문, 웅성, 성곽 380m 일부 복원 ● 건물일부 복원(내아, 객사, 동헌 등) ● 수로, 옛 도로일부, 성황사, 해자일부 복원
	정비	● 군자정, 안샘, 건곤일초정 주변 정비 ● 민가 정비
	개발	● 면천역사공원, 저자거리, 민속놀이마당, 체험시설, 주차장, 홍보관 등 조성
	사업비	● 29,200백만원
	사업기간	● 2008년~2017년(10년 계획)
관리운영		● 군사업소

(6) 면천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1.12.20)

- 당진 면천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2007)을 바탕으로 충남지정문화재 보호조례(제29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구역별 허용 건축규모 및 지붕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 면천 현상변경허용기준도

구 분	허가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현상유지: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1층(5m) 이하 적용	1층(7.5m) 이하 적용
3구역	2층(8m) 이하 적용	2층(12m) 이하 적용
4구역	3층(11m) 이하 적용	3층(15m) 이하 적용
5구역	4층(14m) 이하 적용	4층(18m) 이하 적용
6구역	5층(17m) 이하 적용	5층(21m) 이하 적용
7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1구역 및 2구역 한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 문화재위원회 개별 심의 ● 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등을 규정	

자료: 충남도보 제2144호

2. 사례 조사

2.1. 조사개요

-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추진한 사례조사 지역으로서 국내외에서는 당진 면천이 갖추어야 할 유사한 역사적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국내에서는 아산외암마을, 전주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을 사례조사지로 선정
- 국외에서는 한국과 물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형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시라카와 오기마찌, 분고타카다시 쇼와마을, 오키나와현 타케토미마을 등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

● 조사대상지

구분	조사대상지
국내	● 아산 외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북촌한옥마을
국외 (일본)	● 시라카와 오기마찌, 분고타카다시 쇼와마을, 오키나와현 타케토미마을

- 사례대상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게 된 배경과 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성과와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

● 조사 내용

조사항목	조사세부내용
사업배경 및 목적	● 역사유산을 보존하고 경관형성을 추진하게된 배경과 목적, 사업추진현황
사업개요	● 위치, 면적, 인구,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	● 분야별, 시설별 경관형성 세부사업내용 ● 제도(법, 조례 등) 도입 ● 사업추진에 있어 주체별(행정, 전문가, 주민 등) 역할
사업성과와 시사점	● 사업효과 - 방문객 수요 및 주민소득 변화 ● 성공요인

2.2. 국내 사례

1) 아산 외암마을



● 외암마을 내부

자료 : 아산외암마을 홈페이지

(1) 사업배경 및 목적

- 아산 외암리에는 예안 이씨들이 반촌을 형성하며, 거주하였던 와가와 초가가 입지한 곳으로 충청남도과 아산시에서는 그 가치를 인식하여 마을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됨
-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으로 친환경적인 체험마을을 조성, 농촌 체험관광(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현황

- 1978년 충청남도 '민속보존마을' 선정(78년3월 민속관광마을로 개칭)
- 1988년 8월 18일 국가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변경
- 2001년 1월 7일 외암마을이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
- 2002년 『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03~2012년 12년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안 수립
-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현재 41가구가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



● 외암마을 지도

자료: 지속적마을만들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2)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구
- 면적 : 21ha(207,847m², 문화재지정구역 내)
- 인구 : 약 65호의 가구가 20ha에 걸쳐 입지
- 건축물 현황 : 전통건축물 34동
- 사업기간 : 2003~2012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주요내용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시설, 마을기반시설, 관광객편의시설,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녹색농촌 관광 체험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음

- 총 사업비는 371.62억원(국비 240.77억원, 아산시 130.85억원)이며, 매년 행사지원비로 장승제에 300~500만원, 갯골제에 2억5천만원 지원되고 있음

● 외암마을 관련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원형 보존	• 퇴락가옥 61가옥 정비, 연90-130동 초가이엉잇기, 대문정비, 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돌담쌓기 정비 등 • 정비 대상 가옥 중 문화재 미지정 가옥 외관은 원형을 유지하고 내부는 '가옥내주 민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적용
마을기반시설	• 안길포장, 마을 우회도로 건설, 교량개량, 소화전 설치, 우·오수관 매설, 전선 지중화사업 등
관람객편의시설	• 마을 입구 정자와 주변정비, 디딜방아와 개천 옆 정자 주변 정비, 정려각 주변 쉼터 조성, 느티나무 주변정비와 쉼터 조성, 개천 옆 느티나무 주변정비 및 쉼터조성, 가로등 교체와 설치, 안내판 이전 및 정비 등
관광시설	• 저자거리 조성¹⁾, 마을 안내소 설치, 종합주차장 설치, 관리사무소 신축, 등산 및 산책로 조성, 마을전망대 설치, 마을상징 장승설치 등
팜스테이 (2003~)	• 개별 민박시설 실시로 지원금을 민박 내부시설 공사비로 사용함 (11곳)
녹색농촌관광 체험마을	• 주민참여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본격화(2004) • 2006년부터는 정부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41호 참여)

● 외암마을 보전대상별 보전방법

보전대상	보전주체	사용방식	보전방법	보전상태
외암천	아산시	변형	비정기적으로 청소, 제초	양호
동수	아산시	지속	시청 산림과 관리	양호
느티나무	아산시	지속	시청 산림과 관리	양호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보존회	대체	주민 고용해 청소 및 보수	양호
정자(반석정)	보존회	지속	주변 청소	양호
정려각	보존회	변형	주변 청소	불량
수로 유입구	아산시	지속	비정기적으로 청소 및 제초	보통
가옥	건재고택, 참판택	거주자	거주자 청소	양호
	송화택, 교수택, 감찰택	거주자	거주자 청소	양호
	종가	거주자	거주자 청소	보통
안길-수로-가옥진입	관리사무소 거주자	변형	미화원이 1일 1-2회 가로 청소, 거주자 청소	보통
안길-샛길-수로-바깥마당-건재고택				
안길-사당마당-이간사당				
가로체계	관리사무소	변형	미화원이 1일 1-2회 가로 청소	양호
수로체계			미화원 청소	

1) 저자거리는 외암마을 입구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강당골에 1만5천평 부지에 식당과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주차장, 농경유물전시관, 농산물판매점 등을 조성

● 외암마을 보전대상별 보전조직

구분	조직명	역할
행정	문화재청	• 전통가옥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
	농림부	• 녹색농촌 관광체험마을 사업비 지원
	아산시	• 국가지정 민속마을 사업비 지원
	농협	• 팜스테이 사업비 지원
전문가	아산시 체험 연구회	• 체험프로그램 자문
주민	운영위원회	• 녹색농촌체험 마을가꾸기 활동
	외암민속마을보존회 (2003년 사단법인)	• 이사장(보존회장) 1명, 부이사장(부회장)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 공공공간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 담당, 마을의 보존 및 활용에 관련된 활동, 장승제 및 달집태우기 운영
	부녀회	•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릇계 운영(주민에게 무료 대여)
	노인회(2006년)	• 마을가꾸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년회 (25세 ~ 45세 남성)	• 짚풀 문화제 등 마을 행사·축제, 떡매치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며, 장례 시에 상여매기, 주민 노래자랑 행사 개최
	외암민속 관리사무소 (2004년)	• 공공공간 관리, 유물관리, 보수점검을 위한 순찰, 관광객 및 방문객 안내, 입장료 징수, 사업비 운영과 집행, 보수관련 행정업무 등 수행

● 외암마을 녹색농촌 운영관리

구분	내용
공간	• 민박집은 마을추진위원회의 공동관리로, 예약인원수에 따라 집을 배정하여 운영하며, 체험공간은 주민들이 여러 조로 나누어 운영
프로그램 ²⁾	• 사무장이 체험을 개발한 주민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진행 • 최소 3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대규모 체험객의 경우 3개의 조로 나누어 순환
소득	외암골 협의회 공동기금인 마을가꾸기 기금과 주민의 개인수당으로 나누어 관리 ³⁾
홍보	• 리플릿,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마을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여 마을을 홍보 ⁴⁾
협약·규약	• 주민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정관/규약을 추가, 수정하여 결정함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공공문화시설의 방문객은 증가하였으나,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필요
- 방치가옥은 가옥주와 협의를 통해 민박체험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며 관리부실에 따른 폐허화에 대한 규제 필요
- 마을보존회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위상 제고 필요

2) 체험프로그램 수익금은 모두 마을만들기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위원회 사무실 등 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3) 숙박 소득에서 10%는 마을가꾸기 기금으로 적립, 나머지는 민박농가 주민의 수익으로 하며, 체험프로그램 소득에서는 20%는 마을가꾸기 기금으로 적립,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하며, 농산물직거래의 10%는 마을가꾸기 기금으로 적립, 각 판매수입금은 해당자가 소유한다.

4) 마을 사무장의 관리아래 예약시스템에 등록된 방문객에게 1년에 1~2차례 마을소식과 특산물 등 작은 선물을 발송한다

2) 전주 한옥마을

(1) 사업배경 및 목적



● 전주한옥마을 전경

자료: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

- 전주에는 1900년대 초부터 형성된 한옥집단지가 있었으나, 정비와 활용 미흡으로 한옥지구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음
-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주시를 전통 문화중심도시로서 육성하고 한옥마을을 역사·문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침체에 빠진 구도심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

추진현황

- 1970년 전주도시한옥 보전정책 수립-교동·풍남동 일대 신축 시 한옥만 허가
- 1977년 향교일대 288,000㎡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
- 1987년 개축 및 신축이 가능한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
- 1995년 제4종 미관지구 폐지 및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 2000년 이후 한옥마을 인근을 도시설계지구(현 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
-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고시

(2) 사업개요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교동, 전동 일원
- 면적 : 275,511㎡
(풍남동 3가: 97,484㎡, 교동 174,295㎡, 전동 3,732㎡)
- 인구 : 1,200여 세대, 3,900여명 거주
- 건축물 현황 : 총 779동(한옥 658동, 비 한옥 121동)
- 사업기간 : 1999~2009

(3) 사업내용

- 전주시에서는 한옥보전지원조례 제정(2002.2.15)을 통해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 및 공공시설물 정비는 모두

지구단위계획에 준하여 시행하며, 건축물 보존 현황 및 정비 방향 등에 따라 전통한옥지구, 태조로지구, 향교지구 등으로 구분 적용

- 전통한옥지구 및 향교지구는 1층 이하 도시한옥 중심의 고급 주거 지역 형성, 태조로 지구는 2층 이하 상업 활동 중심의 전통경관 지구, 전통문화지구는 3층 이하로 전통적인 경관조성 유도

● 전주한옥마을 보전 및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목표	기본방향	방법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구역	도시한옥의 보전·육성	·도시한옥의 보전
지역의 활성화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가로경관의 정비
정주환경의 구축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문화관광 시설 개선
		·역사문화 연계
		·전통상업시설 유치
		·생활기반시설 정비

자료 :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계획(2004)

● 전주한옥마을 지구 및 가로별 정비 내용

구분	지구/가로명	내 용
지구 정비	전통한옥지구	전주시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
	향교지구	전통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정비, 판소리 전용극장 계획과 연계
	전통문화지구	공공시설정비, 주변 도시한옥 및 향교와 조화된 경관형성
	오목대	도시한옥의 조망확보, 랜드마크적 효과와 야간경관 연출
가로 정비	태조로	전통문화예술거리 조성, 전통공예품 전시관·명품관 등 건설
	은행로	근린생활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린상점가로의 조성
	천변로	전통음식 특화거리 조성
	골목길 정비	담장·대문의 정비, 바닥 포장, 공급처리시설의 지중화

- 한편, 노폭이 좁은 태조로를 기존의 8~10m에서 15m로 확대하여 공간간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확보
- 공공문화시설 정비는 태조로와 전통한옥지구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명품관, 전통공예품전시관, 한방문화센터, 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공방촌, 테마한옥민박, 최명희문학관 등을 다양한 문화체험시설을 조성

● 전주시 도시한옥 정비 지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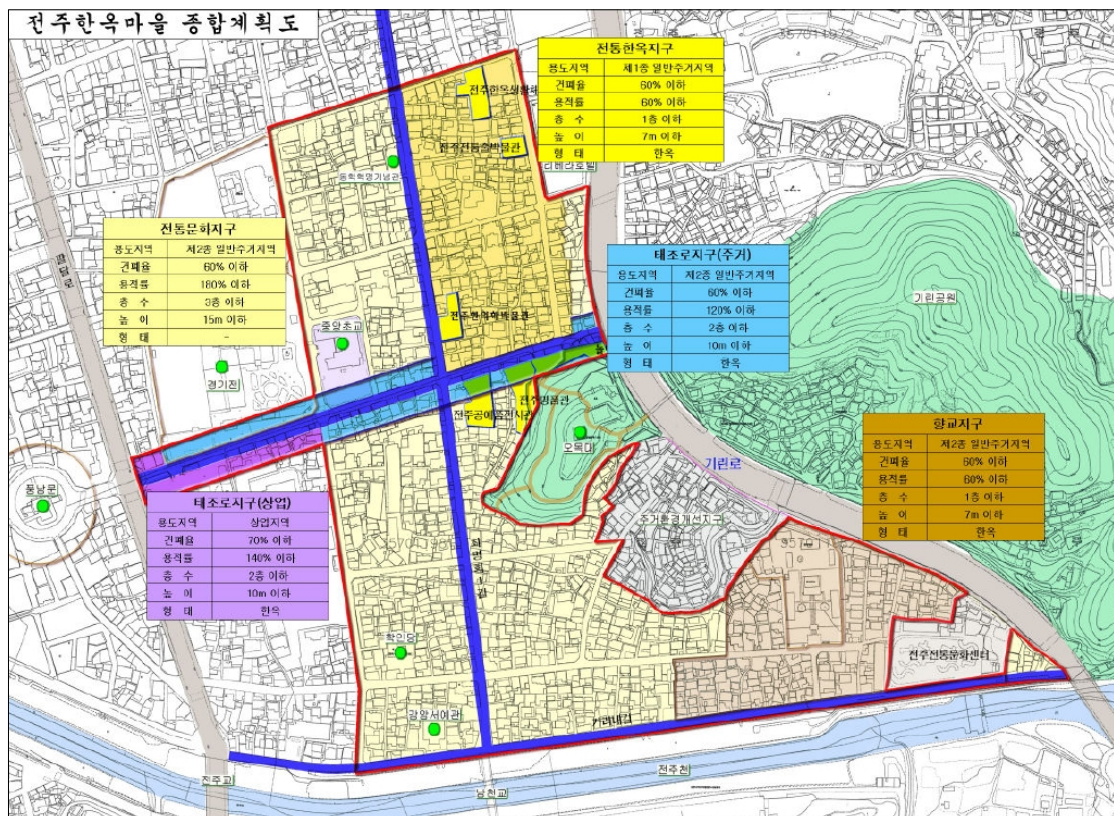
구분	대수선수선	신축증축개축	문화시설	비고
전통한옥지구	최고 5천만원		2천만원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 에서 지원
태조로 지구	최고 5천만원		2천만원	
향교 지구	최고 3천만원		2천만원	
전통문화지구	최고 1천만원	최고 5천만원	2천만원	

자료 : 전주시,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2004



● 한옥 마을 내 시설물 정비 모습

자료: www.dity.go.kr 도시포털 홈페이지



● 전주한옥마을에서 활동 중인 민간 보존조직

구분	조직명	역할
연구 조직	공공심심연구소	한옥마을 연구모임
	천년전주사랑모임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국적 모임 - 홍보 및 방문 추진
	전주전통사랑회	지역전통문화 연구 모임
	주민자치위원회	한옥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체
	한옥마을공동체	한옥마을 상인들의 자발적 협의체
	한옥마을사람들	젊은 층 중심의 한옥마을 연구 모임
공연 조직	전주전통문화사랑모임	각종 전통음악 공연 기획 및 추진
	산조축제조직위원회	산조음악 공연 기획 및 추진
	더듬회	판소리 공연기획 및 추진
	소리청	명창의 소리공방 - 교육 및 공연
협력 조직	한옥마을보존위원회	한옥보존 및 개축관련 활동 협의
	한옥마을민관위원회	한옥마을 개발에 관한 일상적 정책 및 사업 검토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민관추진조직 - 팸투어 및 홍보사업 추진, 강연회 개최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규제와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어 있던 한옥마을에 지자체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 한편, 주민들이 생활하는 전통생활공간이 관광시설 중심의 관광지 역으로 변모되어 고유한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
- 구도심 내 각 지구별 특성을 살리면서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전주한옥마을(전통문화중심도시)의 성과

구분	역할	내용
지자체	비전제시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조례제정 문화시설 건립(410억원) 규제완화와 한옥 개·보수 지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한옥마을 보존위원회 구성·운영 한옥 신축60동 전통문화 관련 고용 창출
대학	프로그램 개발	전북대-한옥마을 정비계획 제시 우석대-한방문화센터 건립 전주대·기전여대 관련학과 신설
민간자본	사업투자	전통문화시설 29건 79억 투자 전통문화산업 34억 투자

3) 서울 북촌한옥마을

● 북촌주변 문화자원 현황

지정 종별	문화재 명칭
사적	중앙고등학교 본관
	중앙고등학교 서관
	중앙고등학교 동관
	관상감관천대
천연 기념물	윤보선 가
	재동백송
민속 자료	백흥범 가
	산업은행 관리가
	백인제 가
	김형태 가
문화재 자료	이준구 가옥
무형 문화재	궁중음식(황혜성)
	오 죽 장(윤병훈)
	궁 장(권우석)
박물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가회박물관
기 타	인촌 김성수 기념관 석정골 보름우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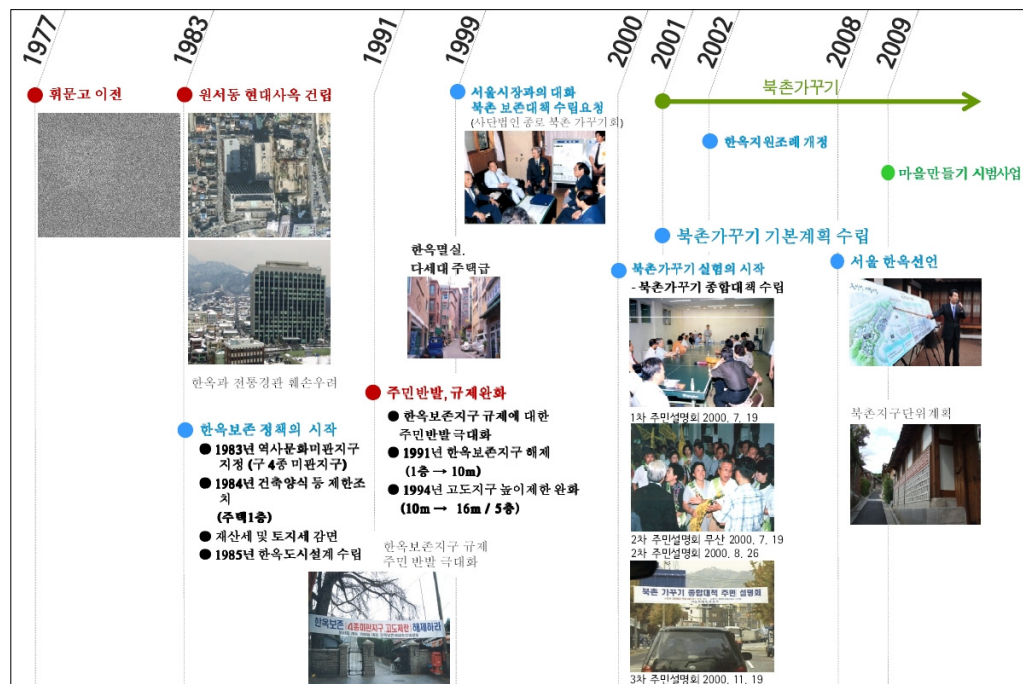
자료: <http://jongno.kccf.or.kr/>

(1)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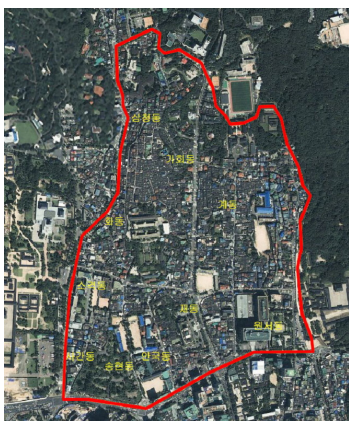
- 북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한옥보존지구 및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다세대·다가구건물들이 입지하게 되고, 한옥의 전통적 경관이 훼손되기 시작
- 경관차원에서 북촌의 지역정체성 상실 위기와 함께, 외지인 중심의 '쉽터'가 아니라 북촌주민들의 '삶터'로서 북촌가꾸기와 북촌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추진현황

- 1977년 최고 고도지구지정과 함께 한옥보존의 시작은 1983년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84년 건축양식 등의 제안조치를 취하면서 출발
- 북촌가꾸기의 전환점은 주민들이 1999~2000년 북촌마을 현안 및 보전대책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01~02년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및 한옥지원 조례 제정, 06년 북촌장기발전구상, 09년 북촌지구단위계획수립과 마을만들기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림 4-2] 연도별 북촌가꾸기 추진현황



● 북촌 위치 및 범위

한옥체험관 개설(계동72번지)



한옥 개보수(입면공사)



공공문화시설로 활용



자료: 정석,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운영실태 및 과제, 2011,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워크숍

(2)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계동 일대
- 면적 : 645,000m² (약 195,000평)
- 인구 : 12,835명 (가회동, 삼청동)
- 건축물현황 : 2,014동(한옥 924동, 비한옥 1,090동)
- 사업기간 : 2000~2011

(3) 사업내용

주요내용

- 한옥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한옥 목구조에 대한 방재처리지원 사업을 추진

구분	지원 내용
비용 지원	신축 및 개·보수 비용지원
환경 개선	공공주차장, 쌈지공원, 공동 정화조 조성 및 이용
제도적 지원	건축기준완화 및 세제감면 추진

- 한옥 매입 후 공공문화시설로의 활용
-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계획 추진

구분	사업내역
한옥등록제	1,022동 중 390동 등록
한옥개보수	305동 (사업비 153억, 1호 당 3천만원)
한옥 매입	-07년까지 서울시에서는 한옥23동, 비한옥 8동 등 총31동을 매입하여 활용 -한옥체험관(16동), 전통공방(8채), 박물관(2채), 북촌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한옥 방재처리	방염처리, 단독형 열감지기 등 (전액 지원)
북촌 복합 커뮤니티센터	생활편의시설(병원, 유치원, 탁아소, 노인정 등)
인프라 구축	골목개선 4.71km(바닥포장 등), 주차장 설치, 지중화 사업
문화시설	궁중음식연구원, 한국불교미술관, 한옥문화원, 북촌문화포럼, 티벳박물관, 국제갤러리, 학교재, 선재아트센터, 금호미술관, 세계장신구박물관

지역	정비 전	정비 후
가회동 11번지		
가회동 31번지		
계동길		
북촌길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북촌의 마을만들기는 초기 관의 주도에서 점차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조성된 사례로서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 계획에서의 주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한일 마을 만들기 주민교류를 통한 마을 만들기 국제협력 네트워크 토대 마련
- 사업 결과로 북촌의 한옥 멸실이 크게 감소하였고 역사경관과 한옥의 생명력 회복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상 수상

2.3. 국외사례

1) 시라카와 오기마찌

(1)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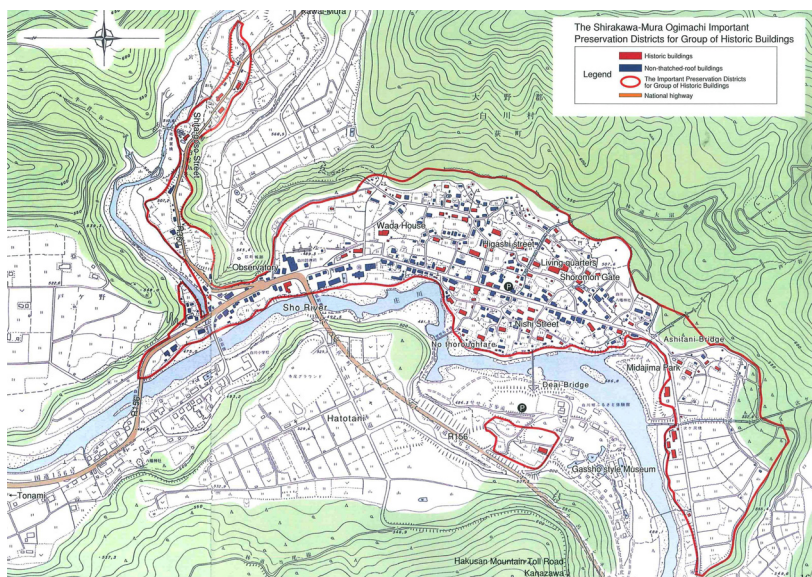


● 오기마찌 전경

- 시라카와 오기마을은 1960년대 전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유의 전통초가인 갓쇼가옥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
-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갓쇼가옥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을 부흥시키자는 인식을 공유
- 1971년 자치조직인 '시라카와향 오기마찌 집락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을 발족하고 '주민헌장'을⁵⁾ 제정하여 역사 마을만들기를 시작

추진현황

- 1971년 시라카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모임
- 1976년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 지정(45.6ha)
- 1995년 시라카와고·고까야마의 갓쇼쓰꾸리로 세계유산 등록
- 1996년 세계유산 시라카와 갓쇼형 가옥보존재단 설립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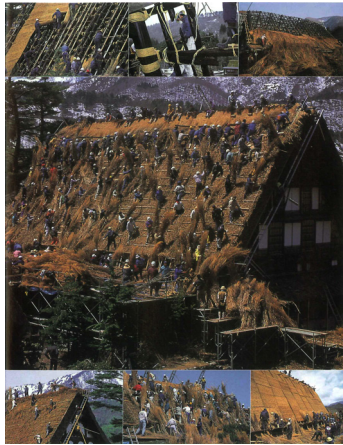
● 시라카와 오기마찌 보존지구 및 가옥

5) 주민헌장에는 마을의 갓쇼가옥, 논밭, 산림, 나무를 '팔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세가지 원칙과 자연환경과 가옥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주민들간의 약속을 담고 있다

(2) 사업개요

- 위치 : 일본 중부 기후현 북서쪽의 시라카와 오기마찌
- 면적 : 남북 약 1.5km, 동서 약 0.35km
- 인구 : 152세대, 634명 거주(1994년 기준)

(3)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 갓쇼가옥의 지붕개량

- 사업은 보존건축물 정비보존사업과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보존대상 건축물로서는 전통건축물, 부대시설물, 역사경관요소 등으로서, 마을 내 모든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하며 증축, 개축, 이전, 제거도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⁶⁾
-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역사적 환경과 조화되는 관리시설표지판, 해설판, 안내판 등)설치, 방화시설 설치 및 소방활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하수시스템개선사업, 주차관리, 보존지구 밖의 주거용지 개선사업을 계획 실행함
- 특히, 신·개축 시에는 갓쇼 가옥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여 정비
- 무형의 생활문화, 전통 관습과 기술의 계승, 보존지구 밖의 자연환경도 보존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존 추진
- 한편, '화재예방용 방수총의 일제방수', '갓쇼가옥의 지붕교체작업', '갓쇼가옥 야간경관 조명', '동계 사진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



● 갓쇼가옥의 방재작업(좌) 및 경관조명(우)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추진

6) 특히 과학적 복원에 의한 재건축을 제외한 갓쇼형태 가옥의 신축 개축은 금지하고 있다.

- 보존사업은 주민자치조직, 행정(교육위원회), 전문가(문화재보호 심의회, 보존재단, 보존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

구분	조직명	역할	
행정	교육위원회	성격	보존재단과 보존회에 대한 행정적, 학술적 보조단체
		역할	1. 시라카와촌을 대표하는 대외적 업무 담당 - 마을만들기, 세계유산 등에 관한 대외적 회의 참석, 마을 내외 강연 및 세미나개최, 문화재청과 주민 간 연결, 상담역할 2. 현상변경신청업무 보조
전문가	문화재보호 심의회	성격	보존재단과 보존회에 대한 행정적, 학술적 보조단체 - 시라카와촌 오기마찌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조례 13조에 의해 설치
		역할	현상변경 지도
	보존재단	성격	마을경관보존 및 관리에 관련한 제반 사업 시행주체
		역할	1. 수리사업 : 모옥의 지붕 얹기, 전통적 건조물 수리비 조성, 옹마루의 모 교체사업 등 2. 경관관리사업 :외벽 등 경관관리 공사, 원색합석지붕교체, 비닐시트 지정색 장려사업 3. 지역활성화사업 : 마을 내 자치보존회 활동을 조성하고 육성하기위한 사업 ('시라카와오기마찌 갓쇼쓰꾸리마을의 자연환경 보전회' 활동비 조성) 4. 조사보급사업 : 건축물 이외의 마을 내 가치 있는 경관요소 조사 및 복구, 정비계획 관련 사업
	보존회	성격	마을 내 현상변경신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단체
		역할	현상변경신청 협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계몽활동
주민	주민자치 조직	● 마을과 주변 자연환경의 보존 활동, 현상변경의 심사와 지도, 합장가옥의 지붕 교체와 기술자의 육성, 합장가옥 지붕에 사용되는 띠의 확보와 재배 부지 조성, 보존기금 모금 등 ● 합장가옥의 지붕 교체를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작업하는 '유이(結)'의 전통계승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주민 스스로 마을의 역사적 경관 유지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
- 역사적 가옥 보존이 문화재 보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되어 매년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났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공동 번영을 이룩

● 년도별 방문관광객 수

년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당일귀가	556,000	573,000	582,000	886,000	989,000	1,175,000	1,483,000	1,384,000
숙박	112,000	113,000	89,000	133,000	58,000	62,000	62,000	64,000
계	668,000	686,000	671,000	1,091,000	1,047,000	1,237,000	1,545,000	1,448,000

● 시라카와 오기마찌 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 보존조례

주요사항	관련 내용
보존계획 5조	교육위원회는 보존지구 결정시 심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보존지구의 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존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 1. 보존에 관련한 기본계획, 전통적건축물 및 역사환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관요소를 결정, 2. 건축물의 보존정비계획, 3. 마을보존에 필요한 관리시설설비 및 환경정비, 4. 보존계획의 고시(告示)
현상변경 행위규제 제6조	보존지구에서 다음의 행위는 우선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제거, 2. 건축물의 수선, 규모변경, 색채변경 등 외관 변경에 관련된 행위, 3. 주택조성 및 기타 토지이용변경, 4. 목재의 벌채, 5. 토석(土石)의 채취
허가기준 제7조	교육위원회는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현상변경의 허가를 금함 1. 전통건축물의 개축, 보수, 모양변경, 색채변경 등의 외관 변경 이후에도 전통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의장, 색채 등 전통적건축물군의 특성을 유지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2. 이전, 제거 이후에도 전통적건축물군의 특성을 유지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3. 전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모양변경, 색채 변경 등의 외관변경 및 이전, 제거 이후에도 전통마을의 역사적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4. 각 행위 이후 건축물, 토지이용이 전통마을의 주변 환경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 11조	촌(村)은 제6조 현상변경행위규제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해 손실을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적당한 손실보상을 마련함
경비보조 12조	촌(村)은 마을의 전통건축물 및 역사경관의 보존을 목적으로 특히 필요한 경관요소의 관리, 수리, 복구에 관해서는 그 경관요소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보조
심의회 설치 13조	심의회(審議會)는 마을보존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각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건의

● 시라카와 오기마찌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주요사항	관련 내용
지방정부의 책무 제3-7조	촌(村)은 국가, 현의 정책에 상응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책 작성, 정책 실시 등의 일련사업을 행하여야 함 1.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상상을 고양(高揚)시키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 자발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2. 중요한 향토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경관보호지구'를 지정하여 훼손 및 가치저하를 막도록 함 3.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및 시설을 적극 매입하도록 함 4.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 정비,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사업자의 책무 제8조	마을에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호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2.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 정책에 적극협조하며 필요시 관련장치 및 시설설치
주민의 책무 제7조	마을주민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1. 자연환경보호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2.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협조
협정체결 제13조 시행규칙 제3-4조	현재 주택조성,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정해진 개발행위에 있어서 규칙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며 자치단체장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규칙이 정한 기준 : -택지조성 약 0.1ha, 골프장, 스키장 면적 약 10ha, 차도 건설 약 500m, 토석채취, 벌채 면적 약 1ha

2) 분고타카다시 쇼와마을

(1)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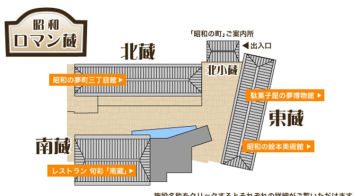
- 분고타카다시(市豊後高田)는 지리적으로 관문의 도시로서 번영하였으나, 교외에 대형 점포가 들어서고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이 쇠퇴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과 상가주민들이 마을 살리기에 나서게 됨
- 마을살리기는 마을의 현대화가 아닌 과거의 번영을 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역사, 상품, 상인재생 등 4가지를 키워드로 하여 사업을 추진
- 쇼와30년(1955)대에 번성하였던 상가 100여개를 500m의 거리에 재현하여 독특한 역사적인 경관형성을 통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됨

건축물 현황

- 마을에 잔존하는 건물의 약70%가 쇼와3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임

사업추진현황

- 2001년 「昭和 마을」 사업 개시
- 2002~03년 「쇼와로망장(昭和ロマン蔵)」 - 쇼와시대 상징거점 시설 구축
- 2003년 「싸구려 과자가게의 꿈 박물관」 조성
- 2004년 「昭和 그림미술관」 개관(입장객 22만명)
- 2005년 분고타카다시 관광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설립(입장객 25만명)
- 2006년 「旬彩 南藏(미나미구라)」 레스토랑 개점



● 쇼와로망장의 구성

(2) 사업개요

- 위치 : 일본 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 북부
- 면적 : 206.64 km²
- 인구 : 24,271명(2011년 11월말 현재)
- 사업기간 : 2001~2006

(3) 사업내용

- 쇼와 정취를 핵심테마로 하여 4개 부문의 주요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부문	관련이미지	사업내용
쇼와 건축 재생		● 쇼와거리 조성 - 쇼와의 정취를 가진 가로경관조성 1. 전통적 건축양식복원, 2. 간판 및 시설 정비
쇼와 역사 재생		● 마을과 점포의 옛 이야기 만들기 : 일점일보(一店一寶) - 각 상점마다 옛 물건을 하나의 보물로서 전시
쇼와 상품 재생		●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 일점일품(一店一品) - 각 상점마다 점포를 대표하는 상품 또는 특산품을 하나씩 판매
쇼와 상인 재생		● 방문객과 상인들간의 정감있는 교류만들기 : 상인들의 의식제고 -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대화와 교류의 장소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그림 4-3] 쇼와거리 안내도 및 모습



● 쇼와시대에 사용된
운송수단을 전시

추진체계

구분	조직명	역할
행정	분고타카다시	국가지정 전통마을 사업비 지원
	분고타카다 상공회의소	분고타카다시 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
제3섹터	(주)분고타카다시 관광마을만들기	각종 진흥사업을 추진 - 시,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지역기업, 주민들이 출자를 하여 설립
주민	분고타카다시 상가 연합회	상가주변 관리
	보존회	지역문화와 전통의 계승 및 발전에 주민, NPO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커뮤니티를 조직해 대응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쇼와의 거리가 조성되자 중심시가지가 활성화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 지역주민들이 급증하게 됨
 - 급증하는 방문객을 대응하기 위해 쇼와의 거리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고용 기회가 확대됨
- 쇼와마을의 재생 성공비결은 첫째, 모방할 수 없는 지역 고유의 개성 발굴, 둘째, 거점 시설 확보 및 지속적인 운영시스템 개선, 셋째, 쇼와 시대 붐을 활용한 마케팅, 네째, 긴밀한 민·관의 협력, 다섯째, 경제 주체들의 높은 참여의식 등 5가지를 들 수 있음
- 특히, 도시의 경쟁력을 타도시와의 차별성에서 찾고 그 차별성의 요소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유산이 쇼와시대의 건축물에서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
-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하게 되며, 일본 지방도시 재건의 성공사례로 2006년 JTB교류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됨

3) 타케토미마을(竹富町, 마찌나미 보존지구)

(1) 사업배경 및 목적

- 오키나와현 최남단에 위치한 타케토미마을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도시로의 접근성, 생활편익시설의 열악함, 고령자의 높은 비중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마을의 고유한 전통적 경관요소인 역사문화경관, 주거경관 및 마을환경디자인 재구성을 통해 전통의 관광마을로 가치를 재창출
- 특히,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유지전승하면서, 주민들이 관광에 자율적,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질 높은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문화재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16건, 국가선정문화재 1건(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 면적38.3ha)⁷⁾, 무형 민속문화재 1건, 등록문화재 12건, 타케토미지정문화재 110건이 분포⁸⁾
- 1977년 마찌나미 보존지구, 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타나두이 축제) 지정

(2) 사업개요

- 위치 : 일본 최남단 이시카키섬~니시오모테 사이의 대산호초지역
- 면적 : 둘레 9.2km(직경 약 3km, 가로 약 2km)
- 인구 : 318여명(평성23년[2011년] 1월)

(3) 사업내용⁹⁾

- 사업은 주민들간의 합의에 이루어졌으며, 보전을 위한 주민합의 사항으로는 6가지를 합의하여 추진
- 첫째 다리를 놓지 않는다, 둘째 마을의 토지관리방법을 주민규약으로 정하고, 셋째 마쓰나미 보존을 위한 지구를 지정한다, 넷째 마을

7) 花岡拓郎; 西山徳明, 歴史的集落・町並みにおける保存対象の選定手法に関する研究－竹富町竹富島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を事例に,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v. 625(2008-03)

8) 자료 <http://www.town.taketomi.lg.jp/town> 참조

9)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건채, 일본 마찌나미 보존지구 타케토미마을(竹富島)의 경관활용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3호 통권 30호'의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전통주택 및 길을 복원하고 전통적 경관요소를 관광자원화 한다
다섯째 산호층을 보호하고 생명보호의 교육장으로 한다, 여섯째 타
케토미주민현장을 제정하고 합심함

- 역사문화경관 요소, 민가 및 건축물 요소, 마을환경디자인 요소
등 요소별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역사문화경관 요소의 보존과 활용



[그림 4-4] 역사문화경관 요소

민가 및 건축물 요소의 보존과 활용

- 민가의 보존과 경관유지를 위해 건축물을 단층으로 낮게 건축



[그림 4-5] 민가형의 공공건축물

마을환경디자인 요소의 정비

환경디자인 종류	세부설명
마을지도	- 마을지도는 마을원형을 토대로 ‘죽의 자(竹の子)’, ‘願壽屋’ 등의 위치 소개 - 마을길의 구조, 민박집의 위치, 자전거대여소와 공공시설물의 위치, 민가배치 작성 - 수기로 상세히 설명, 흥미유발
자전거지도 (대여소포함)	- 자전거 코스, 숙박시설의 위치, 식당 등과 함께 명기 - 글씨체 선택과 컴퓨터그래픽스의 간결함 유지 - 손으로 그린 마을지도와 동일계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성 고려
안내판	- 개별 입간판형식과 종합안내표지판으로 이원화함 - 전통민가형 안내판: 주택의 붉은 기와와 지붕형태 - 친환경재료 사용으로 전통적 이미지를 나타냄 - 크기, 색채, 글자체, 높이 등을 규정
입간판	- 글씨체 통일. 예) ‘茶屋 たかじゃ’ 등 - 민박집 표시, 찻집 간판, 음식 메뉴판 등 입간판의 종류 다양함 - 수공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 주조색: 흰색, 갈색(재료) / 강조색: 녹색, 파랑색, 빨강색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	- 종류: 자판기, 우체통, 전주, 가로등 등 - 돌담과 마을안길에서 돌출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치 - 빨강 등 고채도를 사용하여 무채색의 주조색 체계에서 포인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함
로고디자인	- 원형에 특산품을 담음 ‘竹富島 관광협회 회원증’으로 사용 - 竹富島 스탬프 사용(주택과 꽃문양)



[그림 4-6] 마을환경디자인의 종류

(4) 사업성과와 시사점

- 마찌나미 보존지구의 마을 경관조성은 기존의 역사와 문화, 전통민가와 마을기반시설, 마을환경시설물 디자인 측면의 유형문화재와 전통음악과 무용, 축제, 직물 등의 무형문화재를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전통적 마을만들기를 시행
- 1895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량한 붉은 기와를 이용하여 전통적 마을 경관만들기에 활용
- 타케토미마을의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지정과 활용은 주민들이 관광에 자율적,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활이나 문화가 적절하게 유지 전승되고, 질 높은 관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공으로서 관광객과의 교류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와 조건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됨¹⁰⁾

10) 일본의 역사마을·거리 보호제도로써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가 있고, 교토(京都)나 타카야마(高山), 쿠라시키(倉敷) 등의 거리에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하여 전 건지구에서는 지금도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과 관광객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기기도 함(大河直躬·三船康道, 歴史的遺産の保存・活用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p73 참조)

제 5 장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SWOT분석

2. 계획과제 도출

1. SWOT 분석

1.1. 강점요인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적 인물, 장소, 사건 등에 대한 역사유산을 보유

- 역사적 인물로서는 고려 복지검, 박술회에서 조선 박지원, 유제 등 다양한 시대에 걸친 인물이 활동하였으며, 역사적 장소로는 면천읍성, 산성, 성상리산성, 골정지, 군자지 등이 있으며, 역사적 사건으로는 충효와 항일항쟁 운동이 전개

●면천읍성 내 고유한 역사적 도시구조 및 가로망이 잔존하고 있어 역사도시 경관형성에 잠재력을 보유

- 지적도 상 읍성 내부의 옛 도시 구조가 잔존하고 있어, 역사도시 경관 형성에 유리
- 읍성 내에 주요 가로와 함께 주요 가로 이면에 있는 세가로는 아름다운 가로구조를 보유

●아름다운 산악(다불산, 아미산 등) 및 수변경관(원동저수지) 보유

- 면천 시가지와 읍성의 북쪽으로는 당진시에서 가장 높은 아미산과 다불산, 몽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원동저수지에 의해 형성된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입지

●역사유산과 문화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

- 대다수의 주민들이 면천의 미래도시 이미지상을 역사문화도시로 생각하고 있고, 면천읍성 복원 추진위원회, 복지검장군 기념사업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음

1.2. 약점요인

●면천읍성 내외 정연하기 못한 건축 및 시설물로 인한 경관 인지성 부족

- 서문, 남문, 동문 등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이 질서있게 입지하지 않아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러한 것이 경관의 인지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디자인 요소 미흡으로 역사 문화적 경관형성 저해

- 가로에 면한 건축물과 시설물에서 역사적 전통적 건축물과 시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면천 시가지를 보행하며 시각적으로 역사문화적 경관 이미지를 느끼지 못함
- 특히, 읍성 남쪽 외부에는 건축물들이 입지하여 읍성을 인지할 수 없음

●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정주환경성이 낮으며 정체성 없는 도시 경관을 보임

- 읍성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정체성 없는 도시경관을 형성
-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은 면천읍 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1.3. 기회요인

● 문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역사문화자산과 경관의 중요성 및 인식증대

- 20세기 산업시대에서 21세기는 문화시대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잠재자원으로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서해안권 산업화 급속한 진전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연계 활용 잠재력 증대

- 송산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서해안권 산업화로 인하여 당진시 내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계 관광수요의 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음

●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

- 서해안 고속도로에 의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와 함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확충과 면천IC 개통으로 세종시 및 대전광역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대도시권과의 교류활성화에 양호한 여건이 형성

1.4. 위협요인

●면천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주변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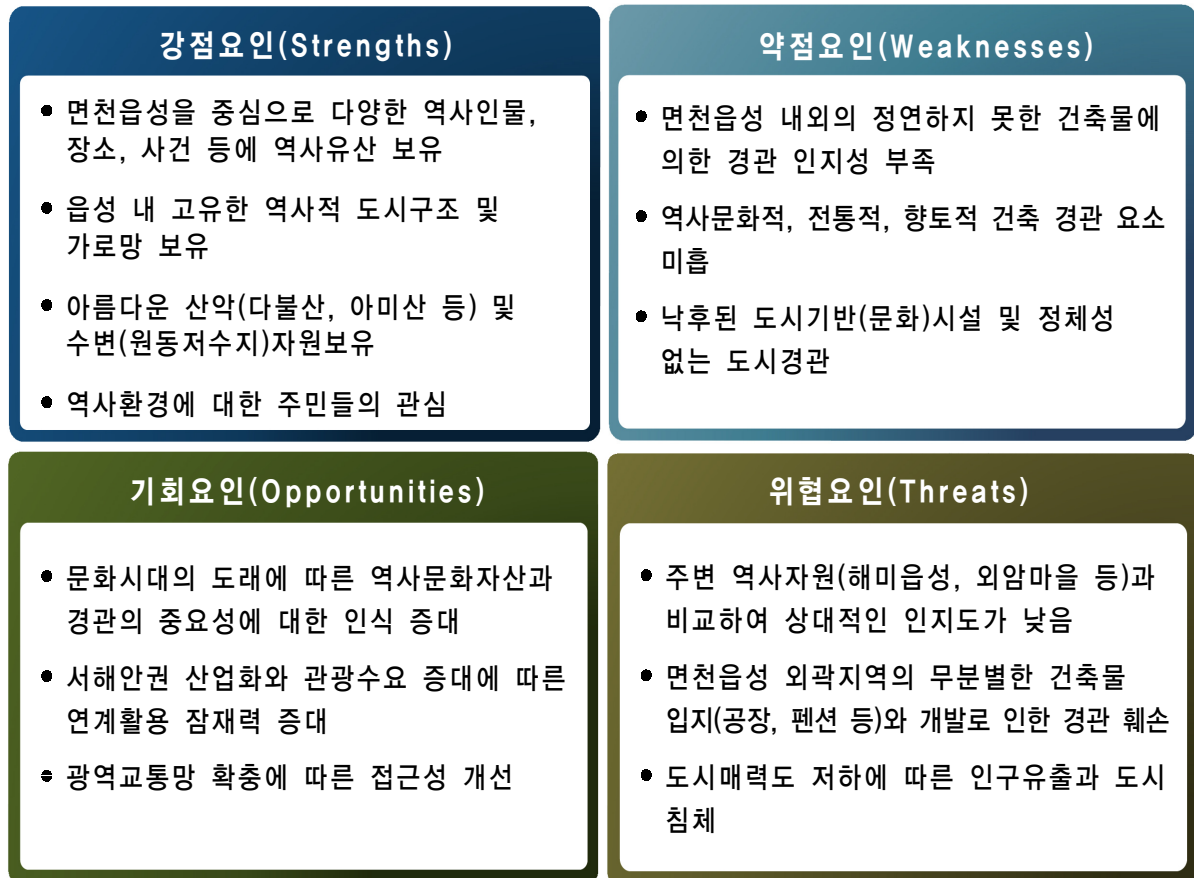
- 면천읍성을 기반으로 한 면천은 인근 해미읍성을 기반으로 한 해미와 외암마을을 기반으로 한 아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도시 간 경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
- 특히, 아산 외암 민속마을의 경우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미읍성은 내포지역의 주류성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면천과 면천읍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면천읍성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건축물 입지(공장, 펜션 등)로 경관 훼손

- 당진시의 산업화와 주변지역에 공장입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역사적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건축물과 색상으로 경관적 훼손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원동저수지 등과 면천 동쪽에 입지하고 있는 펜션 등은 역사성과는 거리가 먼 건축양식으로 건립되어 면천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저해하고 있음

●주변도시의 성장과 면천의 도시적 매력도 저하에 따른 인구유출과 도시쇠퇴

- 낙후된 도시환경은 도시의 매력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환경 만족도 저하가 인구유출을 유발하고 있으며 도시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그림 5-1] SWOT 분석

2. 계획과제 도출

2.1. 강점의 극대화

- 면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적 장소,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박물관 및 경관형성 사업 추진

- 면천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역사적 장소,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기록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도시로서의 경관을 형성
- 박물관과 같은 거점문화시설을 도입하여 역사와 함께 창조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읍성 내 고유한 역사적 도시구조 및 가로망에 대한 보존·정비와 정체성 부여

- 읍성 내 현존하는 옛 도시구조와 가로를 보존·정비를 통하여 면천의 정체성을 확보
 - 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 높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역사도시 구조를 회복하고 가로망에 대한 정비를 통해 역사적 가로 분위기를 창출

●역사문화경관 형성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역사도시로서의 면천 경관을 형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경관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2.2. 약점의 개선

- 역사문화도시로서 면천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

●면천읍성 내 옛 도시구조 회복을 통한 역사도시 경관형성

- 조선시대 면천읍성 내에 도시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된 경관이 형성되도록 주변지역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

●공공건축 및 시설물에 전통적인 디자인의 도입을 통한 역사적 경관 형성

- 역사도시로서의 경관형성을 위해 공공건축, 시설물에 대해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추진

●개성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통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 가로는 주민들이 통행하며,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특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가로공간의 질은 주민 생활과 경관에 중요
- 면천읍성 내에 있는 가로에 가로별 개성있는 전통디자인 요소를 부여함으로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함

2.3. 기회의 확보

- 외부환경의 변화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고려 복지검, 진달래, 두견주, 충효 등 면천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에 기반한 경관형성

- 면천은 조선읍성 외에 시대적으로 고려, 진달래, 충효와 관련된 독특한 역사문화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다른 역사문화도시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며, 공공의 영역인 가로공간에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

●면천읍성 주변지역 건축물,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행

- 읍성 주변의 건축환경은 역사문화도시 경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변지역 건축물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주민주도형·참여형 역사문화도시만들기 추진

-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면천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 공공차원 뿐만아니라 민간차원에서 가칭 ‘진달래 역사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주도형 역사도시만들기를 추진

2.4. 위협의 대응

- 역사문화도시로서 면천도시에 노정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

●역사문화도시 장소마케팅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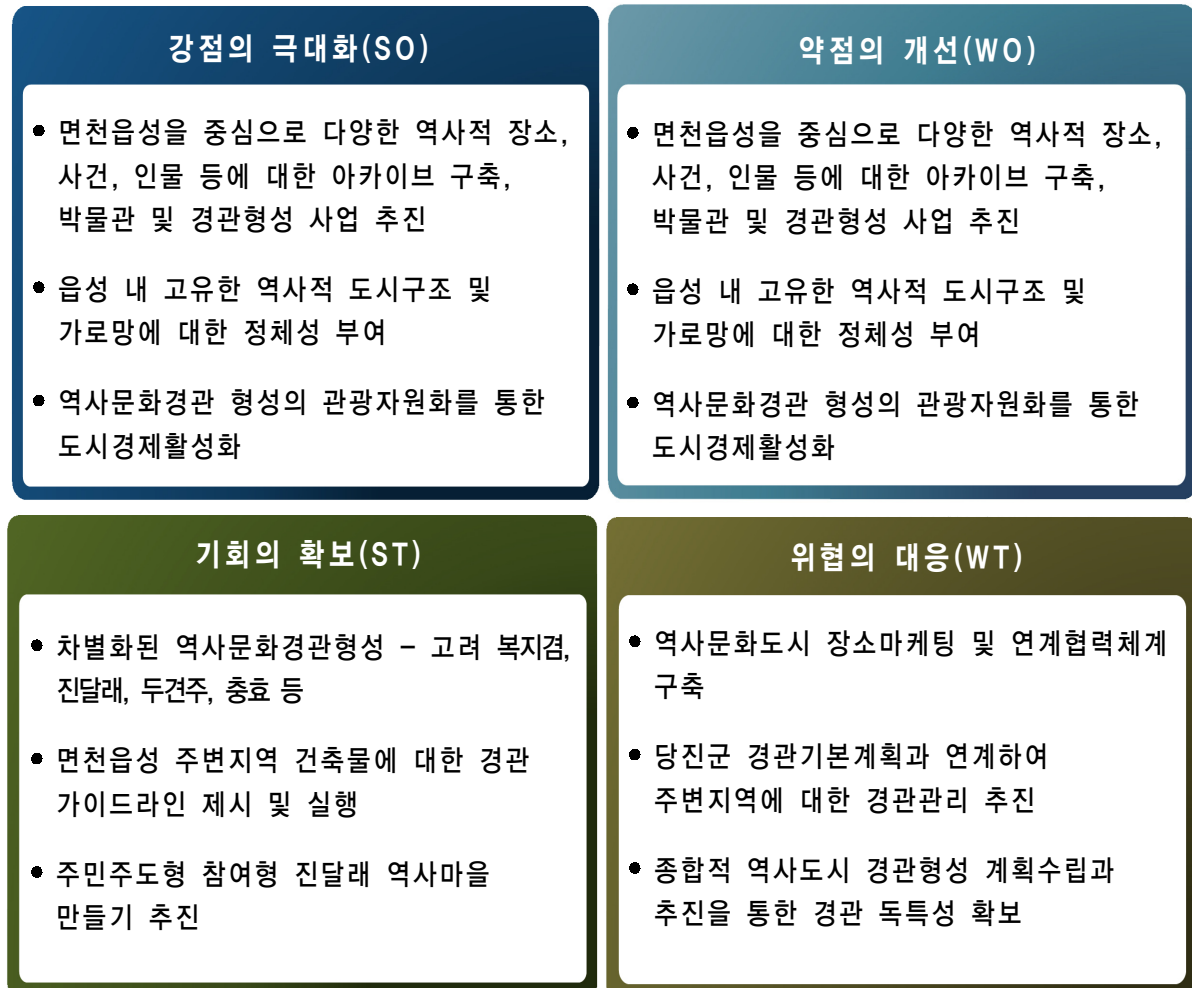
- 면천의 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장소마케팅 사업을 개발하여 전개하고, 지역 간 관광연계 프로그램 시행 등의 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당진시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추진

- 훼손되어가는 주변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상위계획인 당진시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를 추진

●종합적 역사도시 경관형성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한 경관의 독 특성 확보

- 매력적인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며, 면천만의 독특한 경관확보를 위한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그림 5-2] 계획과제 도출

제 6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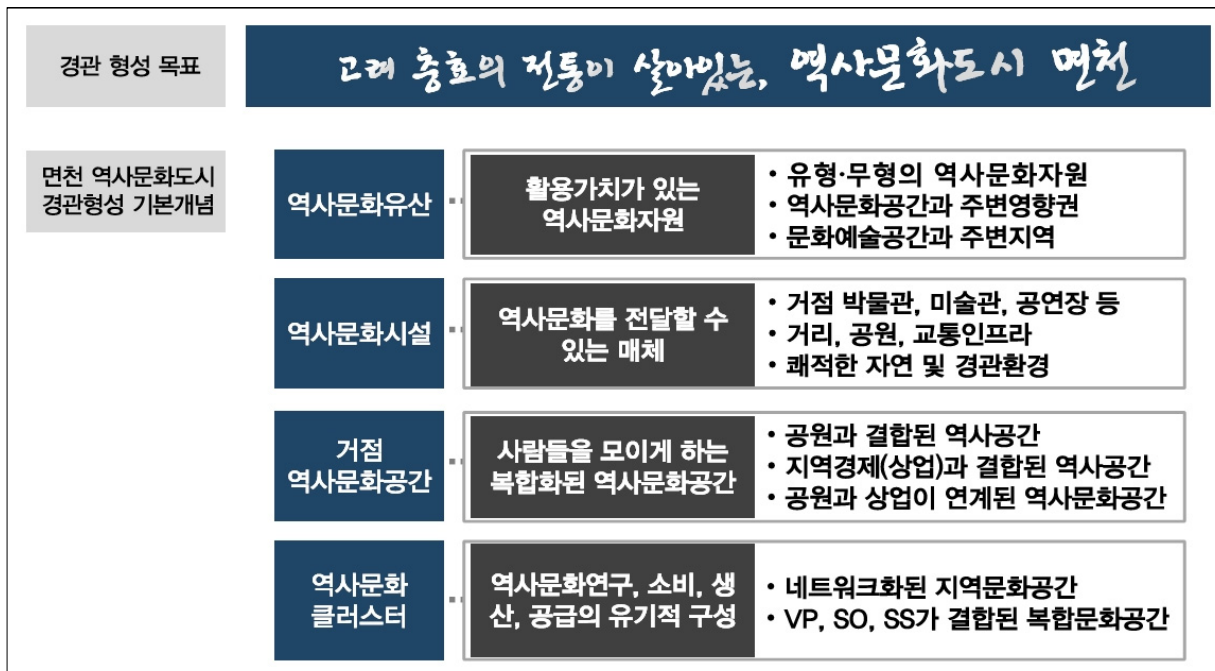
기본구상

1. 경관형성 목표와 전략
2. 경관권역 설정과 설계 기본방향
3. 권역별 기본 구상

1. 경관형성 목표와 전략

1.1. 경관형성 목표

- 면천은 고려에서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인물이 활동한 곳으로서 조선시대 면천읍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배경이 면천의 특징이자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
-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관형성의 목표는 면천의 시대적 위상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고려 충효의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설정
- '고려 충효의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의 기본적인 개념은 활용적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역사문화공간화하며, 면천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 거점 문화공간(박물관, 공연장 등)을 도입하며, 역사문화공간과 문화시설, 도시의 상업적 활동을 연계하고 복합화함으로써, 역사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



[그림 6-1] 경관형성 목표와 기본개념

1.2. 경관형성 전략

- 면천을 '고려 충효의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관을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략을 설정

첫째, 고려의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적 경관을 형성

- 면천만이 가지고 있는 고려, 복지점, 복지점의 딸, 충효, 진달래 등 고려의 시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인물 꽃 등을 소재로 역사 박물관, 체험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고려의 역사적 전통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둘째, 읍성 내 역사문화거리의 형성과 창조적 활용

- 거리는 주민들이 삶의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면천읍성 내의 중요 거리를 역사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거리경관을 회복하며 창조적 문화시설 도입과 활용 및 연계를 통하여 거리를 활성화함

셋째, 거점 문화공간(시설)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경관의 형성

- 역사유산의 보존과 함께 가치를 확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박물관, 전시관 등)을 도입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역사문화와 예술이 발현된 창조적인 역사문화경관이 형성되도록 함

넷째, 역사문화유산과 공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면천읍성 내 점적인 역사유적과 중심가로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의 연계를 통한 이야기와 역사, 문화,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

2. 경관권역 설정과 설계 기본방향

2.1. 기본방향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을 위해 읍성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경관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형성 지침을 마련
- 경관권역은 역사적 장소성, 상징성, 랜드마크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2.2. 경관권역 및 설계방향

- 경관권역은 역사문화도심경관권과 문화도시경관권으로 설정하며, 옛 도시조직(읍성 및 읍성내 가로)과 도심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망 확보 및 건축물 배치 유도

[표 6-1] 경관형성 목표와 기본개념

형성구역		형성구역	경관 이미지 형성설계지침	
			기본설계지침	중점설계지침
경관권역	역사문화도심권	1) 역사도심경관권	● 옛 도시조직(읍성 및 읍성내 가로)과 도심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망 확보 및 건축물 배치 유도	● 거리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 입면, 공공디자인 계획 ● 역사자원 조망 확보를 위한 도시정비
		2) 문화도시경관권		
경관축	성곽축	3) 면천읍성, 면천산성, 몽산성, 성상리 산성	● 성곽의 상징성 제고와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조망 확보	●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복원·정비 추진과 경관축 형성
	자연녹지축	4) 몽산, 아미산, 다불산	● 몽산, 아미산, 다불산의 녹지축 보존과 네트워크 형성 유도	● 산지 녹지축을 경관을 형성하며 주요 조망점에 조망경관 형성 ● 산지 연접부 건축물 정비와 유도를 통한 난개발방지
	수변축	5) 원동저수지, 백곡지, 골정지 및 읍성내 수로	● 수변공간으로서의 생태성을 회복하고 역사공간과 조화 연계되는 경관을 형성	● 수변 생태경관을 형성 ● 읍성 내 수로를 복원하여 역사적 생태경관 회복
경관보존거점	역사보존거점	6) 무공사 7) 영탑사 8) 나무고개	● 역사보존거점으로서 점적 차원의 경관형성 - 거점 내 양호한 경관 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도	● 경관형성 사업 추진 ● 경관조화를 위해 주변 시설물에 대한 재료, 형태, 색채 권장 및 유도

-
- 성곽축
 ■ 역사도심경관권
 ■ 점적 역사경관보존
 ■ 문화도시경관권
 ■ 수변축
 ■ 녹지축
 — 산책로

124

3. 권역별 기본 구상

3.1. 역사 및 문화도심권 경관권

1) 경관적 의미 및 중요성

고려의 전통과 전설이 살아있는 공간

- 고려의 개국공신인 복지검과 딸이 살았던 지역으로 복지검의 딸이 심은 은행나무, 두견주를 담았을 때 사용된 안샘이 있는 곳으로 고려시대의 전통과 전설이 살아있는 공간

면천읍성과 읍소재지가 있었던 역사적 장소

- 면천은 조선 후기까지 당진군의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며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 유적인 면천읍성과 관아시설들이 입지하였던 곳으로서의 장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면천주민들의 주된 생활공간

- 면천 주민들의 대부분이 생활하며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업, 교육 및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2) 기본방침

면천읍성 내의 역사유산을 정비·복원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

- 읍치시설이었던 관아, 내아, 객사 등을 복원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도록 함

읍성 내 주요 가로를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전통적 경관을 연출

- 읍성 내의 주요 가로를 역사적인 분위기가 나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전통적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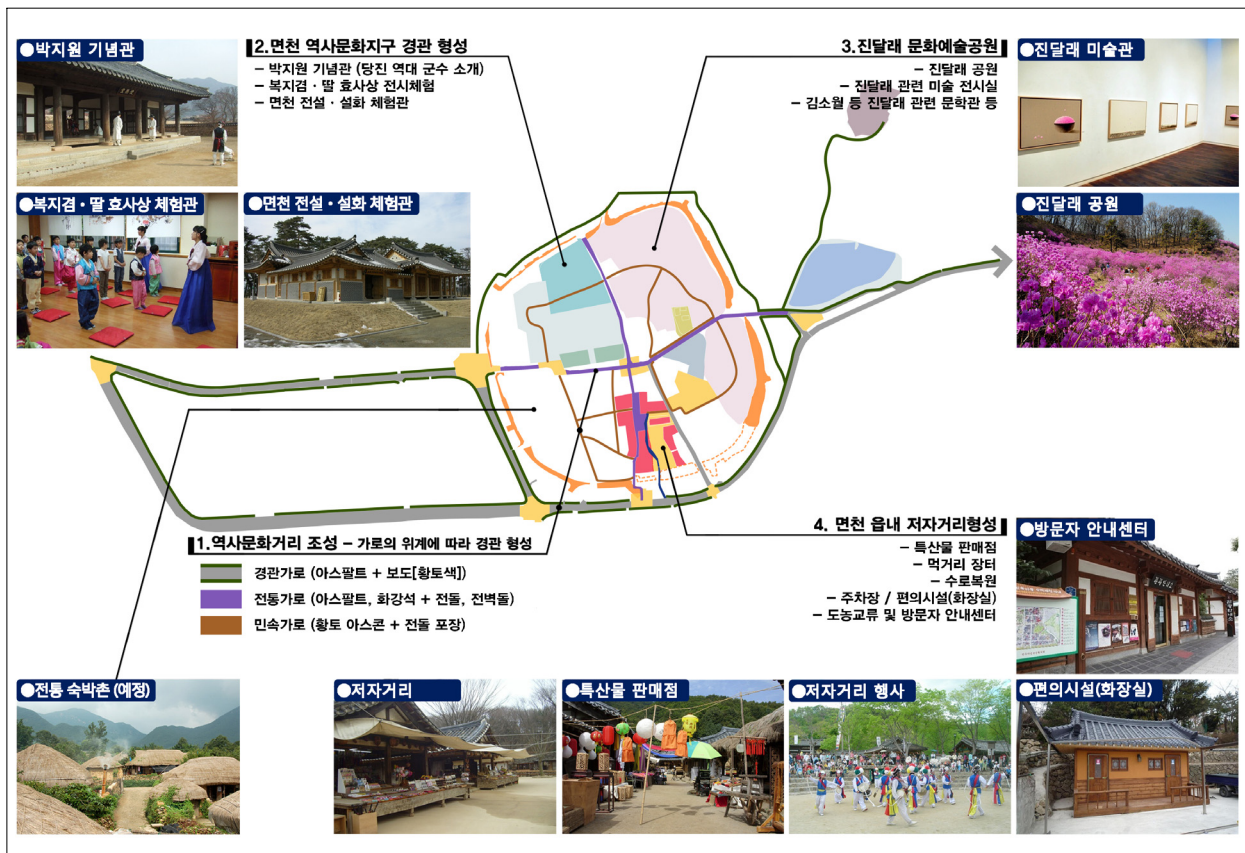
옛 저자거리의 경관을 형성하여 상업적인 활력을 부여하도록 함

- 옛 저자거리의 토속적인 경관을 복원하고 상업용도를 도입하여 활력있는 경관을 형성

3) 경관형성 지침

목표 | 충효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거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경관 플랫폼 구축

- 고려 복지검과 딸의 전설이 있는 은행나무, 진달래 등을 소재로 하여 면천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읍치의 주요시설인 동헌, 내아, 객사를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역사문화적인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역사문화거리는 가로 위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포장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등을 도입하여 가로별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저자거리 중심부에 수로를 복원하여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저자거리 건축물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한옥으로 조성하여 토속적인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그림 6-3] 역사문화도시 경관권 기본구상

1) 면천 역사문화지구 경관형성

목표 | 면천의 전통인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역사문화지구 형성

사업개요

- 현 면천면사무소에 입지하였던 동헌, 내아, 객사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읍치로서의 역사적 경관을 회복
- 면천면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시발굴조사를 통해 전통한옥 건축물로 동헌, 내아, 객사를 복원

경관형성 및 활용지침

- 동헌은 복원한 후에 면천군수로 재직하였던 박지원군수를 기념하여 박지원 기념관으로 활용
- 객사는 복원한 후에 복지검 딸의 효사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 내아는 면천지역의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면천도시 역사와 설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그림 6-4] 역사문화지구 형성 기본구상

2) 박물관 조성 - 당진시립박물관

목표 ■ 당진·면천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전시·교육하는 지역
거점 역사문화시설 도입과 문화경관 형성

사업개요

- 연면적 800평(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36,000m²
- 면천읍소재지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입지하여 보행으로 면천 역사문화경관과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 조성 기본방향

- 당진과 면천의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
 - 시대별·테마별 당진·면천의 역사유적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공간
- 보존에서 교육 중심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조성
 - 역사·문화교실, 학술세미나·워크숍, 영상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으로 조성
 - 뮤지엄숍, 서점, 어린이 놀이장, 야외 역사유적 전시장 등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도입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
- 당진과 면천주변지역이 역사문화공간을 거점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조성
 - 면천을 중심으로 합덕, 기지시 등 당진의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경관형성 지침

- 박물관 건축의 디자인에는 면천의 역사문화적 이미지, 상징성,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색채, 재료 등을 사용
- 면천읍성 성곽 및 문루의 높이를 고려하여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는 건축규모를 설정하도록 함
- 면천 읍소재지의 주요 조망점 및 경관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입지하여 경관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함
- 박물관 주변지역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경관의 개방성과 박물관 확장가능성을 대응하도록 함

3)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

목표 ■ 면천의 진달래를 소재로 한 고려 복지겸과 딸의 역사적 전설의 경관화를 통한 정체성 구현

사업개요

- 면천읍성 내 동쪽지역에 약 15,800m²
- 진달래를 주제로 한 주제공원 및 갤러리, 문학과 등을 도입

경관형성 지침

- 진달래 군락, 상징조형 미술품,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진달래 공원을 조성하여 면천의 경관적 정체성을 확보 하도록 함
- 방치되고 있는 (구)우체국 사무실, 창고 등을 진달래 갤러리, 문 학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진달래 관련 문예공간으로 활용
- 복지겸의 딸과 진달래, 안샘, 은행나무와 연계된 경관체험 루트 를 조성하여 선적인 경관을 형성



[그림 6-5]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예시)

4) 면천 읍성 내 저자거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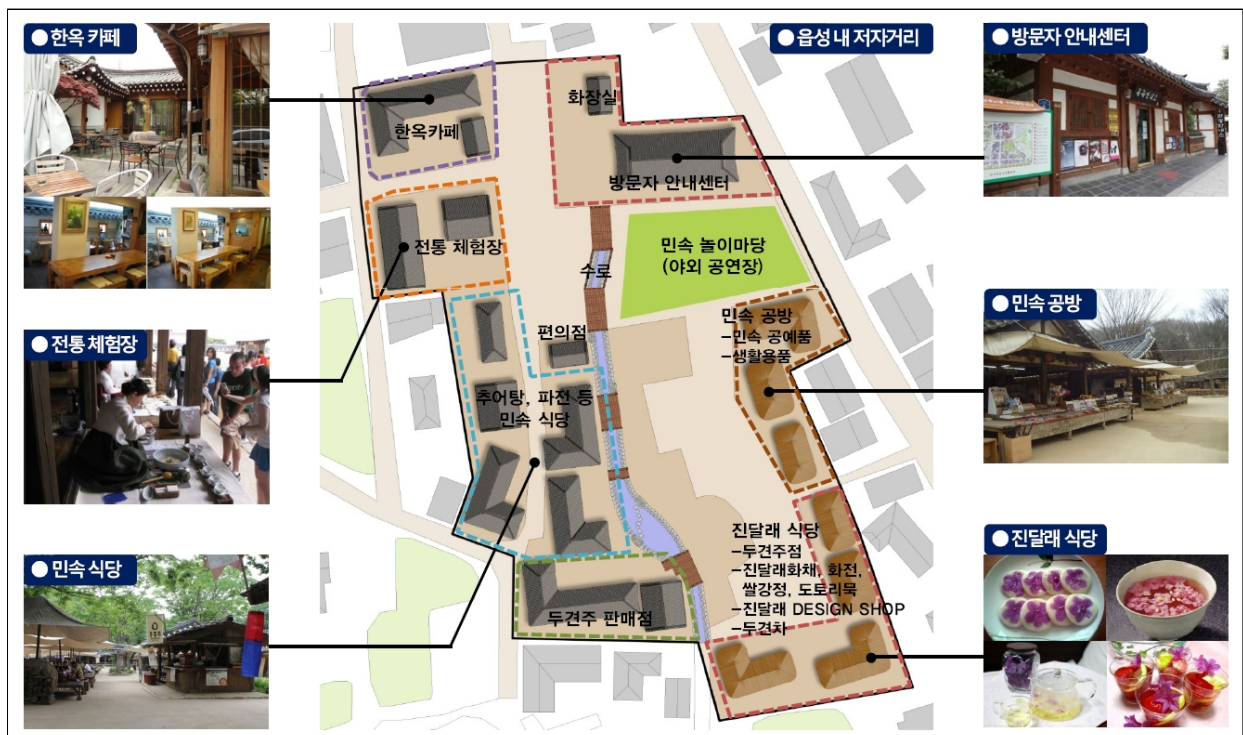
목표 | 면천 읍성 내 저자거리 경관을 형성하여 상업적으로 활력있는 역사도시경관 형성

사업개요

- 저자거리가 형성되었던 면천읍성 내의 남문지역 약 11,200m²
 - 특산물판매점(민속공방), 전통체험장, 먹거리 장터, 도농교류·방문자 안내센터,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도입

경관형성 지침

- 전통한옥(와가, 초가)양식으로 시설물을 조성하여 토속적 전통적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저자거리 중앙을 흐르고 있는 수로를 복원하고 수로에는 목교(또는 석교), 자연석 쌓기로 마감하여 수변경관을 형성
- 조성 시에 옥외로 노출되는 전기 및 소방설비의 외부는 목재 또는 목재색깔의 재료로 마감하여 주변 저자거리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그림 6-6] 저자거리 형성(예시)

3.2. 자연녹지 및 성곽축-면천산성 및 아미산 경관형성

1) 경관적 의미 및 중요성

면천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적 배경 역할을 하며, 면천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보유

- 아미산, 몽산, 다불산으로 이어지는 자연녹지축은 면천도시에 배경이 되는 자연녹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면천도시에 경관배경을 형성하며, 한편으로는 면천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공간이 형성되어 있음

역사적으로 중요한 면천산성, 몽산성 등이 입지하여 성곽축을 형성하고 있음

- 몽산에는 면천읍성을 축조하기 전에 쌓은 면천산성과 산 정상부에 몽산성이 입지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형성



[그림 6-7] 자연녹지 및 성곽축 경관 현황

2) 기본방침

면천산성으로의 경관체험을 위한 접근성 및 상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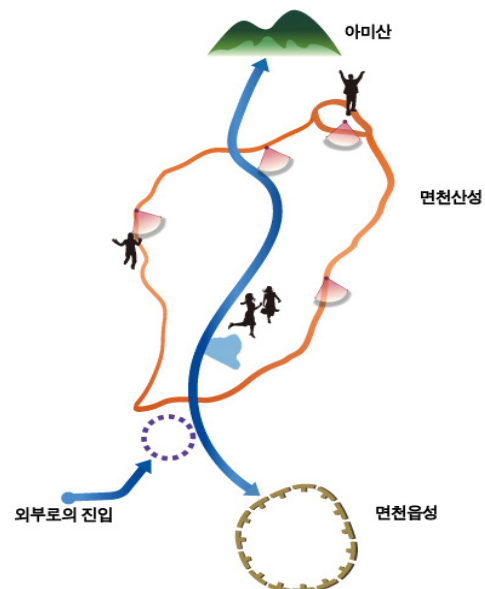
- 현재 면천산성으로의 진입은 면천읍성 내를 관통하여 북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경관체험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로 개성과 주차장 확보를 통해 접근성 개선이 필요
- 한편, 진입부에는 면천산성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경관형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면천산성에서 아미산, 면천읍성의 조망성 확보하도록 함

- 면천산성 내에서 아미산과 면천읍성을 조망할 수 있는 양호한 조망점을 발굴하여 조망공간을 형성하도록 함

산성 내의 수변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민속공원 경관 형성함

- 산성 내 입구에 형성되어 있는 백곡지 주변을 정비하여 산성 내 역사적 수변생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산성 내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재료, 색채 등을 역사·자연 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



[그림 6-8] 자연녹지·성곽축 경관형성 기본방침

3) 경관형성 지침

목표 | 면천산성과 백곡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생태 경관 형성

- 성안 산성길 정비**

면천산성 주요 조망점 경관형성

 - 수목 정비를 통한 조망축 확보 (아미산, 시무나루, 면천읍성 경관바라보기)
 - 조망공간 확보 (정자, 대크, 천광대 도입)

몽산성 복원/정비

 - 주변 식재 정비를 통한 조망축 확보
 - 편의시설 도입 (KIOSK 등)

면천산성길 보행로 정비

 - 몽산성 마룻길 조성(2010)과 연계

성안 역사민속공원

 - 건축물 정비
 - 역사공원 조성

백곡 수변생태 체험로 조성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

 - 대형차량주차장 포함

면천산성 상정GATE 조성

시무나루 군락지

아미산 성황사 추경지

여단 추경지 (몽산 중턱)

안성

면이 추경지

동학루

교동위충정(龜洞慰忠亭)

백침란 경의(倭차문)

교자령(교차지)

비석교

여천읍성

면천산성

0 300 600m

3.3. 수변축-원동저수지 경관형성

1) 경관적 의미 및 중요성

면천읍소재지를 중심으로 배산임수의 수변공간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

- 아미산을 배산으로 원동저수지는 임수의 역할을 하는 수변공간으로서 배산임수의 경관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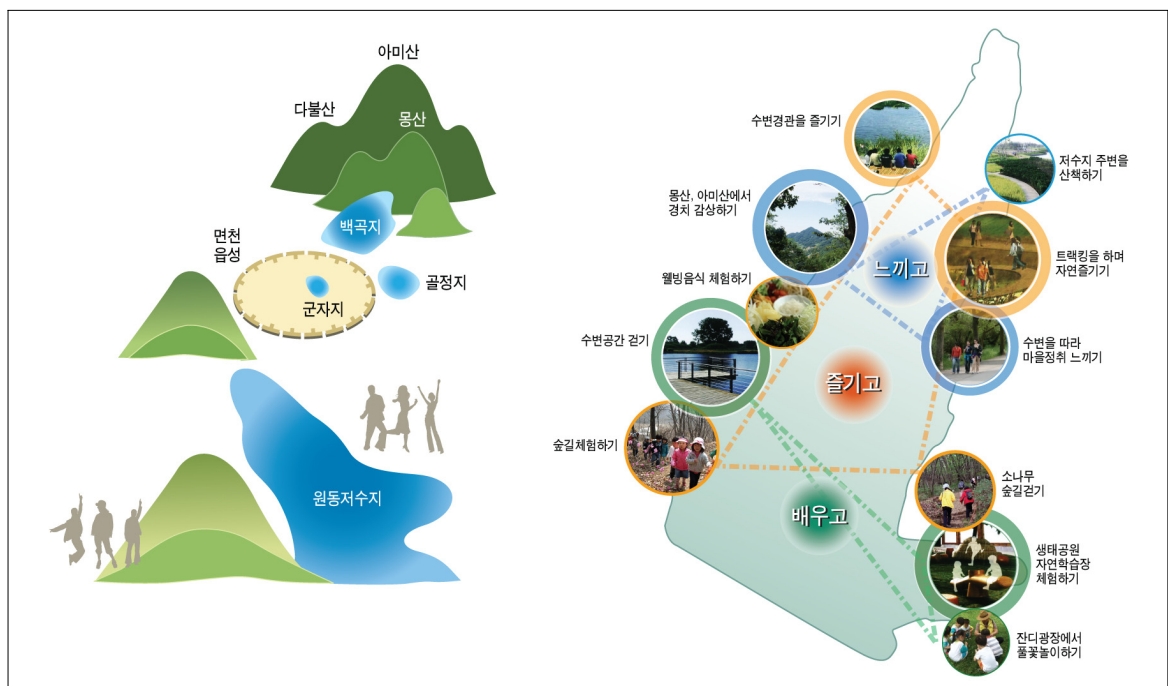
저수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중요한 잠재적 요소

- 저수지 주변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형성되어 있어 수변경관조망 및 체험공간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2) 기본방침

면천읍성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함

-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면천역사유적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로 정비의 미흡으로 면천읍성과의 연계도로를 확충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함



[그림 6-9] 수변축 경관형성 기본방침

생태적 수변경관을 형성하여 경관의 매력도를 증대시킴

- 수변경관을 조망하며 느끼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 순환산책로 조성 등의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

원동저수지의 수변경관을 조망·체험할 수 있는 조망점을 형성

- 아름다운 원동저수지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경관형성 지침

목표 ■ 면천 원동저수지의 생태문화적인 수변 경관형성

- 면천읍성과 원동저수지간의 도로를 확폭(현재1차선→2차선으로) 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며, 읍성과의 경관축을 확보하도록 함
 - 도로 측면에는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변에는 유도경관식재를 하여 시각적인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수변생태 경관의 매력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생태공원과 체험교육공간을 조성
 - 면천읍성과 연계되는 경관축 선상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하는 생태경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는 생태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 교육장 등이 조성된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
 - 한편, 생태경관공원과 체험공간을 네트워크화하는 연계로를 조성하고, 연계로의 재료는 목재, 마사, 자갈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확보하도록 함
- 원동저수지를 보행과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는 순환로를 조성하고 주요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조망점을 형성하도록 함
 - 순환로는 기존에 개설된 농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며 생태적 보존성을 확보하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는 경관조망 브리지, 데크와 쉼터 등을 설치하여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10] 원동저수지 수변경관형성 지침

제 7 장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2.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3. 공공시설물 설계지침
4. 색채 경관설계지침
5. 주요 가로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1.1. 기본지침

목표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적 건축 경관이미지 형성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에 있어 건축물 경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
-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에 한옥(와가, 초가 등)양식을 도입함
 - 그러나, 실제 한옥양식의 건축물은 시공에 많은 비용이 들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음
- 한옥양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어느 안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역사·고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1종 한옥 : 전통한옥의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한옥건축물로 건축
 - 2종 한옥재료 적용 : 전통한옥 건축재료를 사용하되 현대적 디자인 또는 전통적 건축물로 건축
 - 3종 한옥색채 적용 : 전통한옥 건축재료 색채만을 적용하여 현대적 또는 전통적 건축물로 건축

●건축안 적용에 대한 만족도 및 적용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건축 설계지침 안	만족도	적용안 채택	비율
1종 - 전통한옥	3.29	2	22%
2종 - 한옥재료 적용	4.05	4	44%
3종 - 한옥 색채 적용	3.64	1	11%
경우에 따라 차등적용		2	22%
평균 / 합계	3.65	9	100%

- 조사결과, 1~3종 중에서 2종(한옥재료 사용)에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 3종(한옥 색채 적용), 1종(전통한옥) 순으로 응답
- 적용안의 채택에 있어서는 2종(한옥재료 사용), 1종(전통한옥)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경우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하자는 것에도 응답(22%)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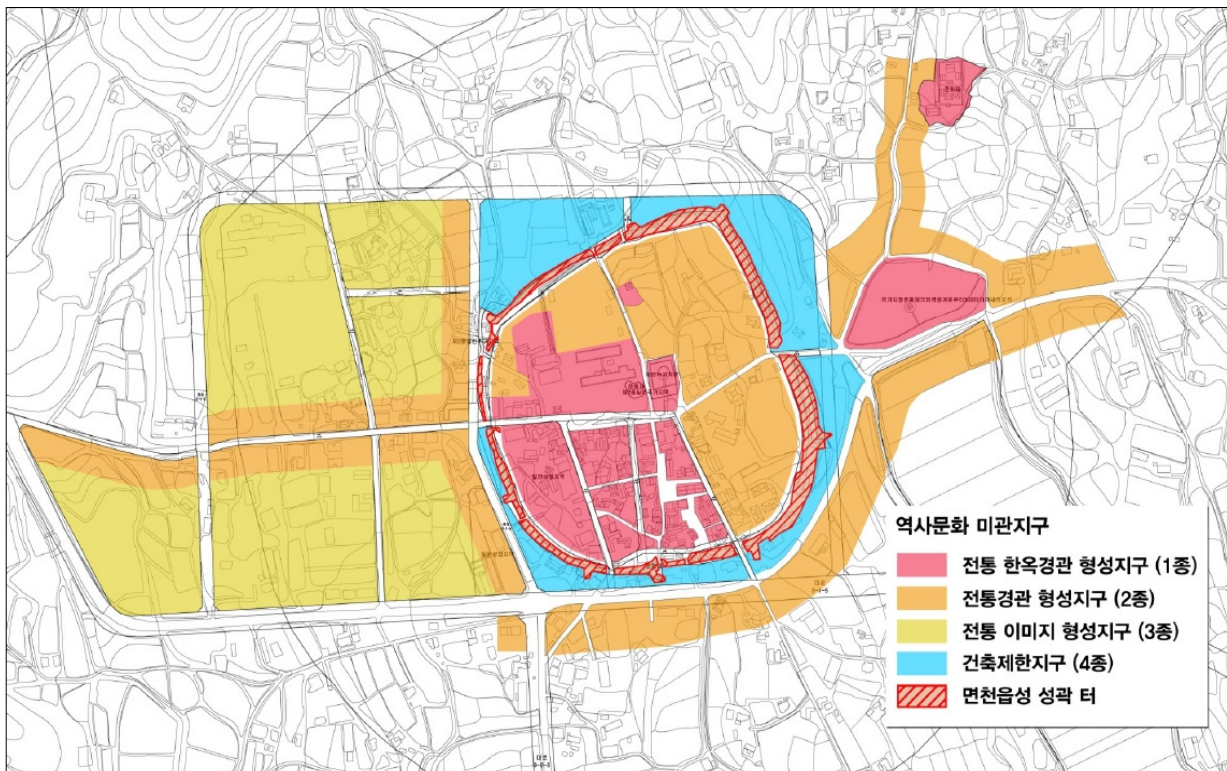
- 면천의 건축설계지침의 목표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적 건축 경관이미지 형성이며, 구역별로 차등화된 전통 건축 디자인을 도입하여 역사도시 경관이미지를 형성

1.2. 구역별 건축가이드라인

- 구역을 1~4종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 건축안 적용에 대한 만족도 및 적용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종 구분	건축 가이드 라인	대상지역
1종 지구	전통한옥의 와가, 초가양식 적용	읍성 내 관아, 저자거리, 군자지, 골정지, 면천향교 일원
2종 지구	전통한옥 재료 적용	읍성 내, 면천 진입 도로변, 면천읍성과 접하는 도로변
3종 지구	전통한옥 색채 또는 재료 적용	읍성 외곽의 도시지역으로 이면 블록지역
4종 지구	건축 제한 지구	면천읍성과 면한 외곽지역



[그림 7-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1.3. 종별 세부설계지침

1) 1종 - 한옥중심 경관형성

- 한옥중심의 경관형성에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됨으로 공공건축에서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추진
- 민간에서 한옥건축을 할 경우에는 한옥건축양식(입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한옥건축물을 등록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함

●경관설계지침	
주요원칙	●전통한옥 양식으로 보존·정비, 신축하여 역사도시로서의 경관을 형성
중점사항	●면천읍성 내부 및 문화재 주변지역에 경관 및 축 형성 유도
설계지침	●지붕, 처마, 외벽(창문 포함), 담장, 대문, 기단, 굴뚝 등을 한옥양식으로 설계하여 건축 ●건축 내부공간도 전통공간 구조를 권장하지만, 건축주에 따라 현대식 공간 및 설비 도입을 허용 ●외부로 노출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목재, 석재 등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외부를 마감하여 경관을 형성

변경 전



변경 후



2) 2종 - 한옥+전통이미지의 건축 경관 형성

-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한옥의 재료와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건축하여 역사도시 이미지를 형성
- 2종 지역에서 민간이 한옥건축을 할 경우에도 한옥건축양식(입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한옥건축물을 등록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함

● 경관설계지침

주요원칙	● 외부입면은 한옥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구조는 현대식 구조
중점사항	● 주요 가로 및 문화재 주변지역에 역사문화적 환경 형성 유도
설계지침	● 외부입면에 전통한옥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도록 유도 - 외벽에는 회벽, 사고석, 자연석 등으로 처리하여 전통한옥 벽체 구성인 형태나 문양을 살린 구조로 할 것 - 창문은 교자살, 아자살, 완자살, 정자살, 띠살, 소슬비살, 귀갑창 등의 모양으로 살을 짠 형태를 도입할 것을 유도 ● 현대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통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 개구부(창문 등)의 부분에는 목재를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문양을 도입할 것 ● 상업 건축물의 경우 상품진열창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전면 유리창 허용

변경 전



변경 후



3) 3종 - 전통적 경관이미지 형성

- 면천도시 도로 이면 지역에 역사문화도시 경관이미지와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여 광역 경관적 측면에서 전통적 분위기 형성
- 3종 지역에서 민간이 한옥건축을 할 경우에도 한옥건축양식(입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한옥건축물을 등록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함

●경관설계지침

주요원칙	●민간건축의 외부 입면에 전통색채 사용 의무화 ●한옥양식 건축에 대해 권장 또는 유도
중점사항	●읍성 외부의 도시지역에 역사문화도시 환경 조성
설계지침	●건축물 입면 재료의 색채는 전통건축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할 것 - 구체적인 색채는 경관 색채 설계지침 참조 ●재료자체의 색채가 전통색채와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권장 - 콘크리트, 원색적인 페인트 적용을 지양

변경 전



변경 후



1.4. 일반 설계지침

1) 배치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도시적,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배치

- 역사자원(풍납루, 골정지 등)을 중심으로 조망축이 형성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 건축물에 의해 역사자원의 조망이 차폐되지 않도록 하며, 조망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 역사자원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역사자원에 연결하는 건축물은 건물의 방향이 역사자원을 향하도록 하며, 가로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와 면하여 배치



가로연속성을 저해하는 배치(X)



가로연속성을 갖는 배치(O)



가로연속성을 저해하는 배치(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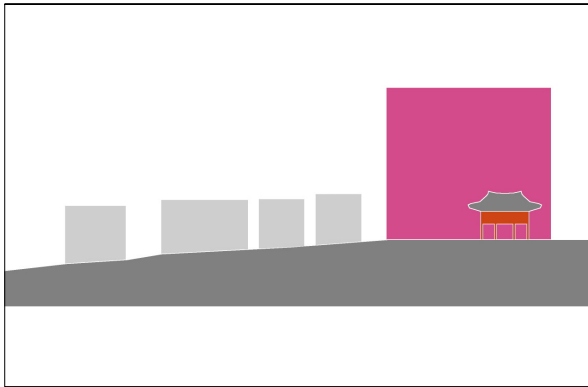
가로연속성을 갖는 배치(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비고
조망 확보	● 역사자원으로의 조망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 ● 5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 시뮬레이션 3곳 이상 의무 실시	
건축물 배치	● 가로변의 건축물은 가로선과 연속되게 배치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함 ● 역사자원과 연결한 건축물은 건물의 방향이 역사자원을 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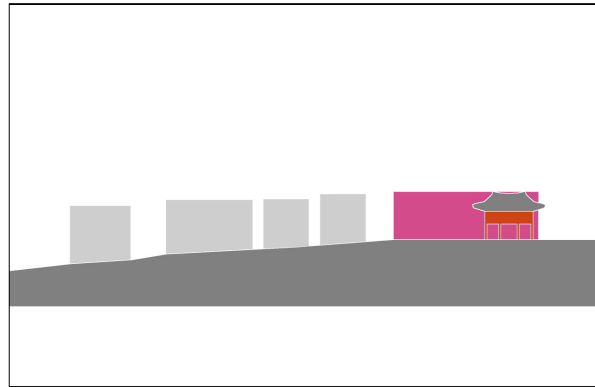
2) 규모 높이

●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건축규모와 스카이라인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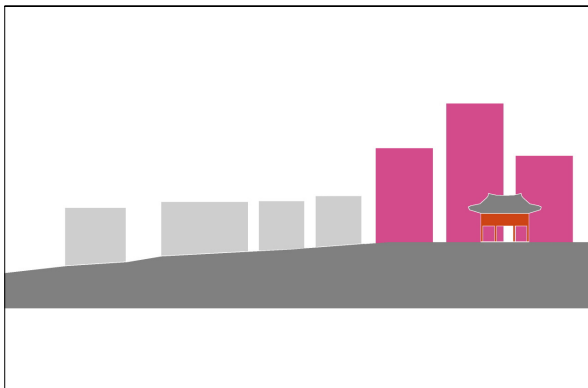
- 건축물 규모 및 높이는 역사자원 및 주변 건축물들과 시각적 조화를 도모하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규모를 배려
- 부득이하게 큰 규모의 건축물 조성 시에는 건축물 매스 또는 입면의 분절을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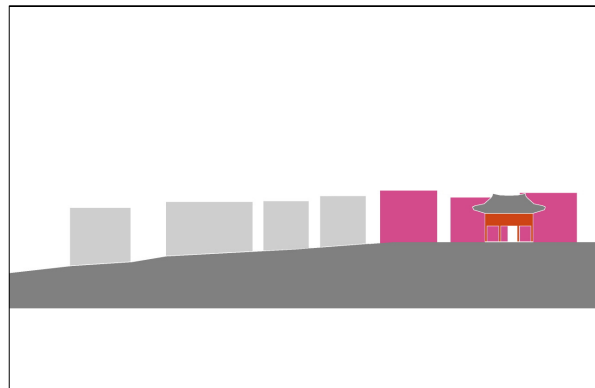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규모 및 높이(X)



조화로운 규모 및 높이(O)



역사자원을 배려하지 못한 스카이라인(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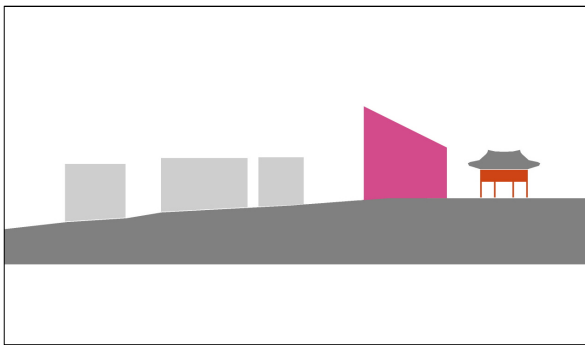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비고
주변과 조화	• 역사자원 및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루는 규모와 높이로 건축함	
스카이라인	• 역사자원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함	
위압감	• 지나치게 거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 - 건축물 매스를 가급적 분할하여 규모와 높이가 역사자원과 조화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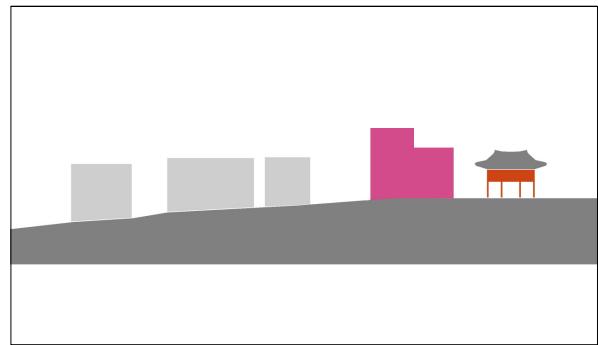
3) 형태 외관

● 역사경관을 돋보이게 하고,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으로 건축함

- 역사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경관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고려함
- 읍성, 누각 등 역사건축 내부공간에서 밖을 조망하는 주변경관도 역사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외부 건축물의 외관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함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감함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형태(X)



조화로운 형태(O)



설비시설의 시각적 노출(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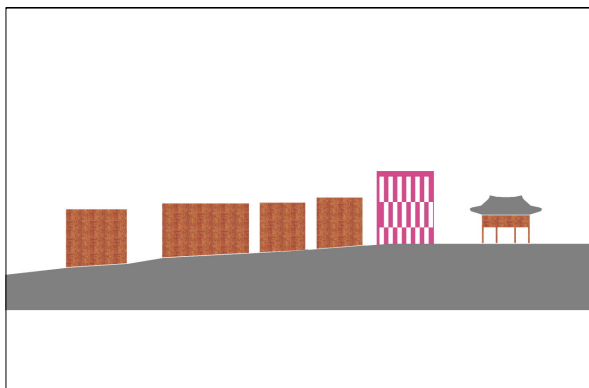
디자인을 통한 설비시설의 처리(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비고
주변과 조화	● 역사자원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 ● 주변지역 건축물의 리듬감이나 공통된 외관디자인요소(지붕형태, 개구부 형태 등)를 존중하여 형태적 조화를 도모	
고층부 디자인	● 역사자원 내부에서 조망을 고려하여 고층부 외관을 계획함 ● 건축물 고층부는 역사적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함	
입면 디자인	● 건축물 입면 디자인은 역사자원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하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충분히 배려하여 계획	
일체적 디자인 (부속설비)	● 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함 ● 건축물 부속설비, 발코니 등은 한옥건축물 의장으로 처리하거나 식재 등으로 차폐하는 등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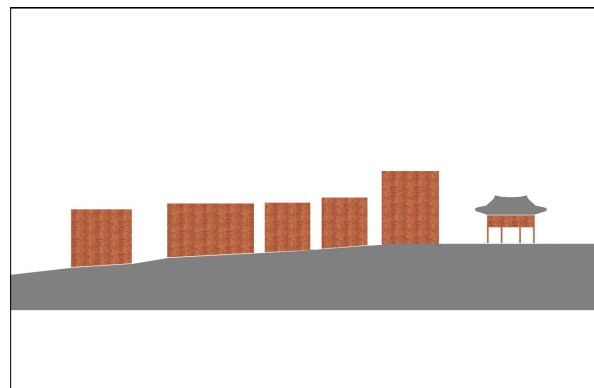
4) 재질

● 역사자원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재질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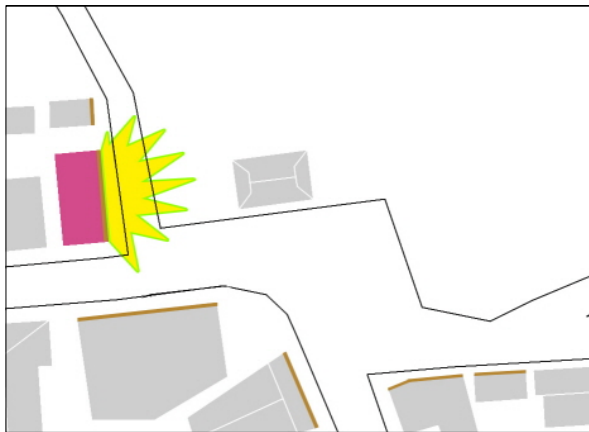
- 건축물의 재질은 역사자원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자원의 담장이나 벽면에 사용된 소재를 모티브로 한 재질 등을 사용
- 역사자원의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의 사용을 지양 - 예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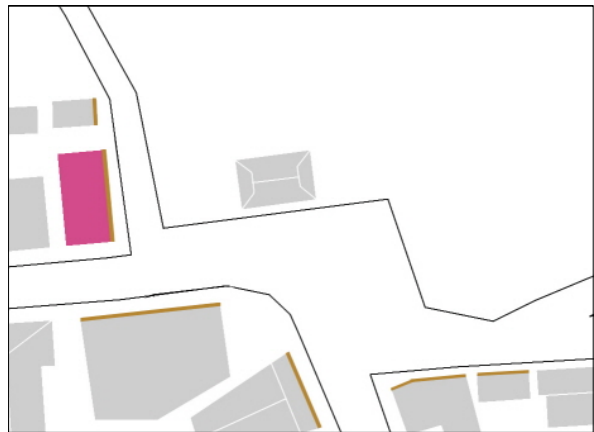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재질(X)



조화를 이루는 재질(O)



역사자원 주변의 이질적 소재(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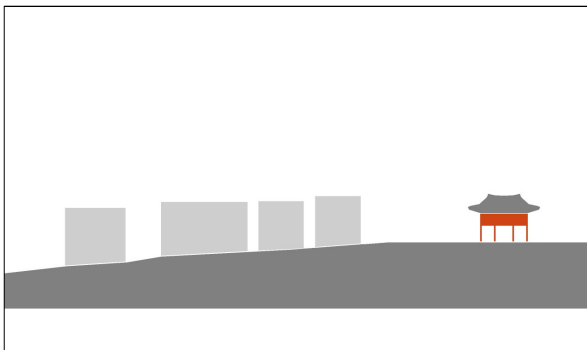
역사자원과 조화로운 소재(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비고
재질 조화	• 역사자원이 지닌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 - 역사자원의 담장이나 벽면에 사용된 소재를 모티브로 한 재질 등	
내구성 소재	• 시간적 흐름을 배려한 소재를 선택 - 페인트 도장, 드라이비트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노후화 되는 소재 사용 지양	
이질적 소재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철골구조 노출 등 역사유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재 사용을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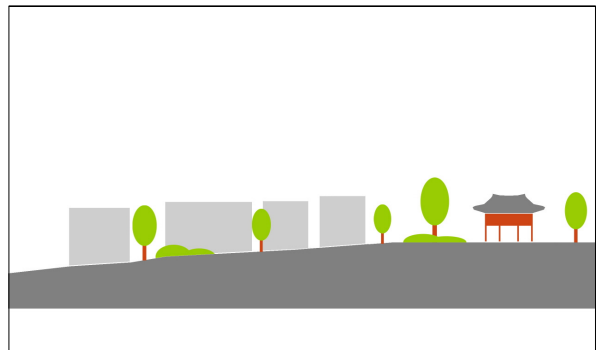
5) 외부공간

● 외부공간은 역사자원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함

- 외부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역사자원과의 조화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공지 및 녹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계하여 조성함
-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상 또는 벽면녹화, 조경 등을 통하여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
- 지형보호를 위하여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 면천읍성의 성곽과 조화되는 색채와 재질의 재료를 사용함



삭막하고 건조한 외부공간(X)



녹지공간이 풍부한 외부공간(O)



단절된 외부공간(X)



연속성을 갖는 외부공간(O)

핵심어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비고
연속성	● 주변 경관자원 및 인접한 공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함	
개방감	● 역사자원과 연접한 경우, 역사자원에 면하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함	
녹화	● 부지 내 기존 녹지는 최대한 보존함 ● 외부공간의 조경녹화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방식을 도입하여 녹시율 (綠視率, 눈에 보이는 녹지의 시각적 양)을 증대시킴	
수종	● 식재의 수종은 역사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전통수종과 진달래를 권장	
공작물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 - 부득이 한 경우, 면천읍성과 조화되는 자연적 소재 및 재료를 사용	

2.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2.1. 기본지침

목표 ■ 역사문화거리와 조화되는 광고물 이미지 형성

1) 기본원칙

- 옥외광고물의 지침은 정량적 측면에서 수량, 크기의 최소화, 정성적 측면에서 간판의 디자인이 전통성, 기능성, 시인성, 조화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정량적 : 수량, 크기(규모)의 최소화
- 정성적 : 역사적 전통성, 기능성, 시인성, 조화성

2) 설치지침

(1) 간판 설치 수량 및 위치

-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를 원칙으로 함(1업소 1간판 원칙)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차등화
- 간판의 종류 및 건축물에 따른 세부적인 규격과 표시내용은 세부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설치함

[표 7-1] 옥외광고물 설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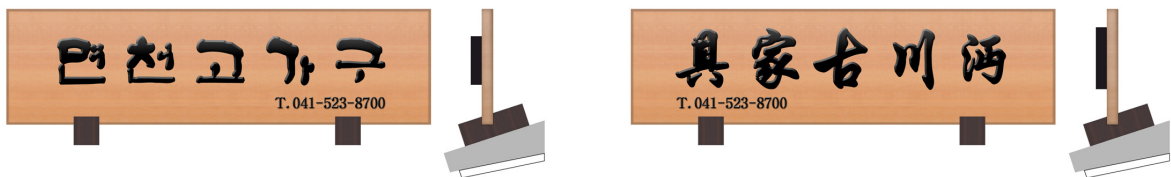
권역구분	업소당 간판 총수량	가로형 간판 설치위치	점멸조명 및 광원노출	권역분류 대상지역
상업지역	2	3층 이하	심의허용	•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 - 3층은 건물폭의 1/2범위 이내 - 돌출형 간판은 5층 이하까지 허용
주거지역	2	3층 이하	불가	•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 - 3층은 건물폭의 1/2범위 이내 - 돌출형 간판은 5층 이하까지 허용
관리지역	1	2층 이하	불가	• 문화재 보호구역, 경관 보존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지역
특화권역	3	심의완화	허용	•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예: 읍성내 저자거리)

(2) 간판 기본 디자인 유형

- 간판디자인 유형은 기본형을 판류형으로 하며, 재료는 목재로 하고, 내용 글자는 목재에 음각, 양각 또는 입체형을 함
- 읍성 외 지역의 간판은 목재의 색채와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 역사유적인 읍성과의 조화를 이룸
- 읍성 내에서는 본 유형을 의무화하며, 읍성 외부에는 권장 또는 유도하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간판교체비용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그림 7-2] 가로형 간판 상세 디자인 일반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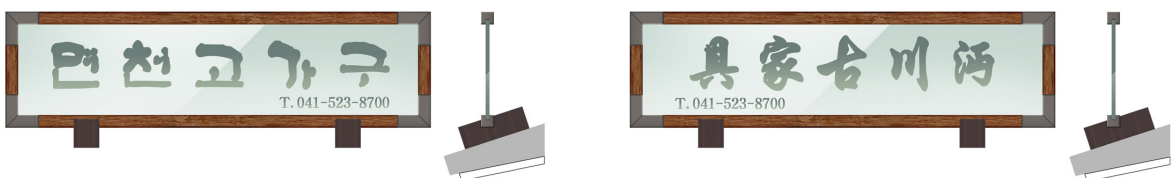
간판 유형 1 [액자형 간판] - 구성: 간판면_원목, 목재면 글자



간판 유형 2 [입체 루버형 간판] - 구성: 간판면_목재루버(Wood louver), 입체형 글자



간판 유형 3 [액자형 간판] - 구성: 간판면_유리사용, 유리면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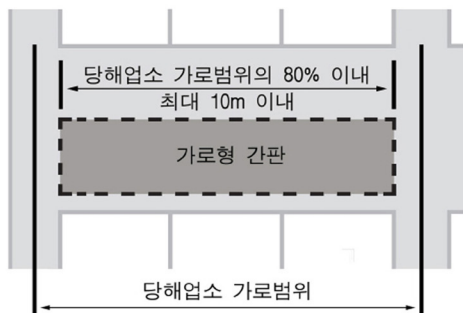
※ 본 디자인은 가로형 간판의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간판의 설치 주체가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2.2. 설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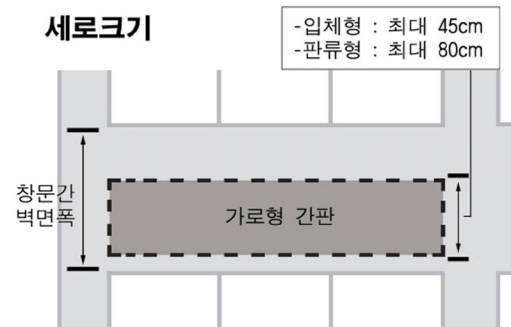
1) 가로형 간판

구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가로 : 당해 업소 가로 폭 80%이내, 최대 9m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표기내용	- 상호 또는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하여 여백 확보 (취급품목, 메뉴, 실물이미지 표기 금지) - 외벽이 유리마감 건축물일 경우 판류형 표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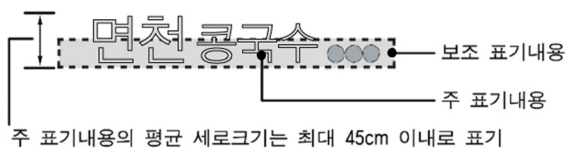
가로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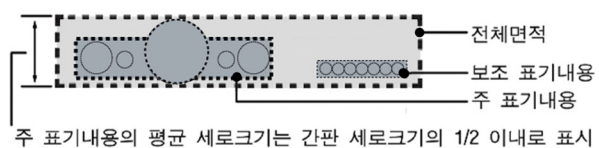
세로크기



입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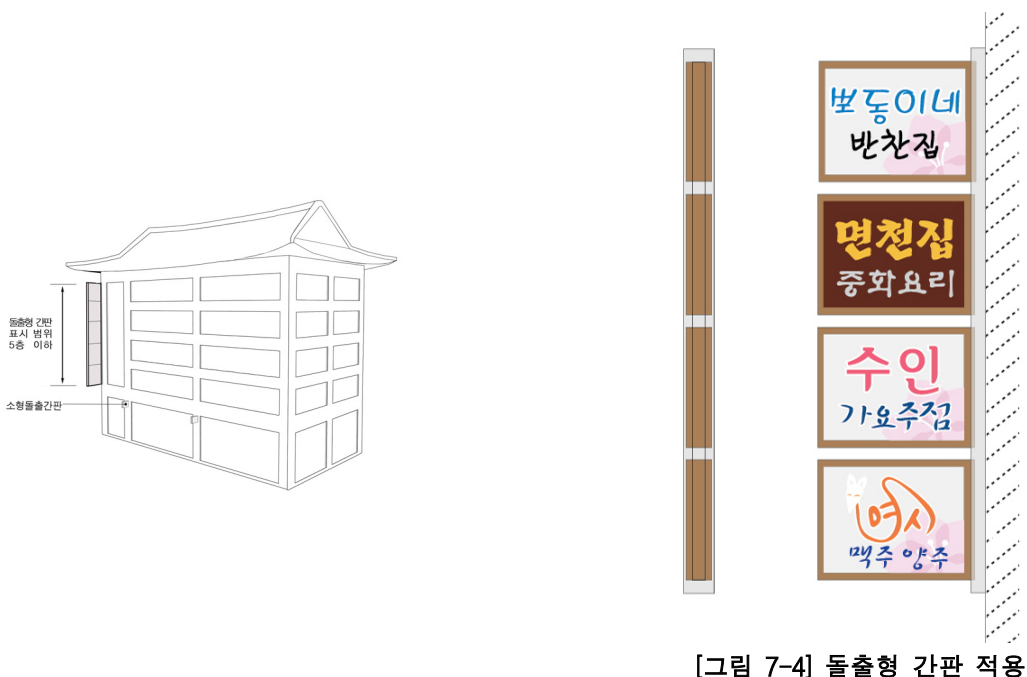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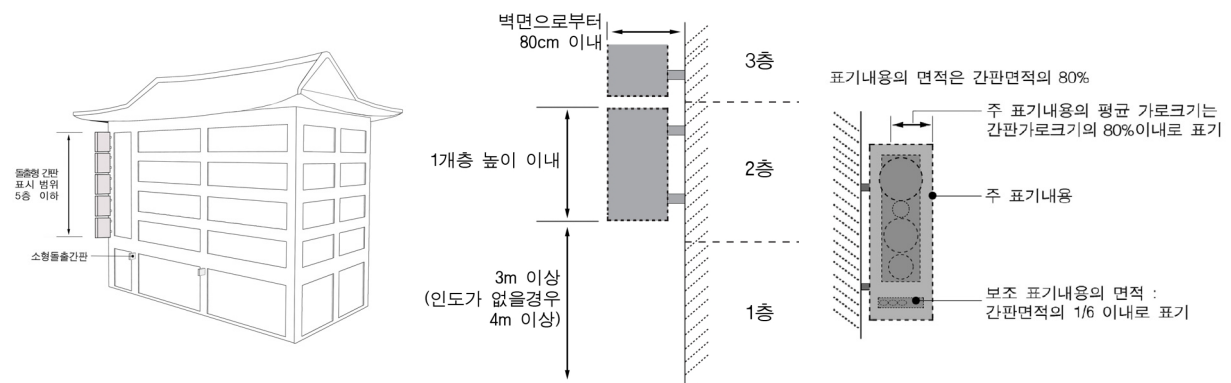
판류형



[그림 7-3] 가로형 간판 적용

2) 돌출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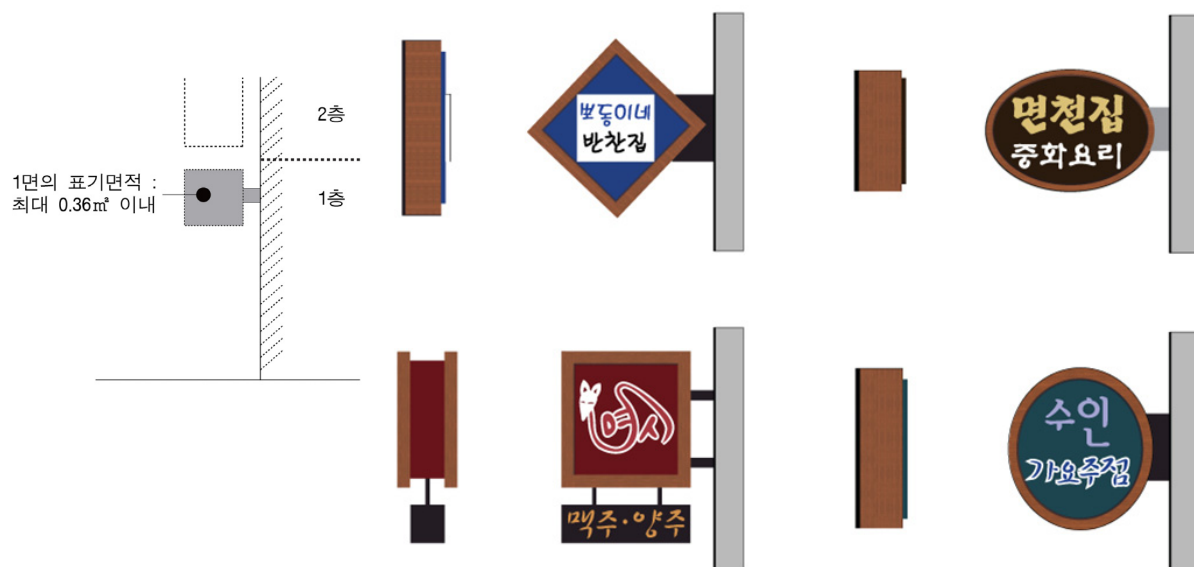
구 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 돌출폭 : 0.6m 이내 • 높이 : 5층 이하 • 개별크기 : 1개층 높이 이내
표기내용	-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설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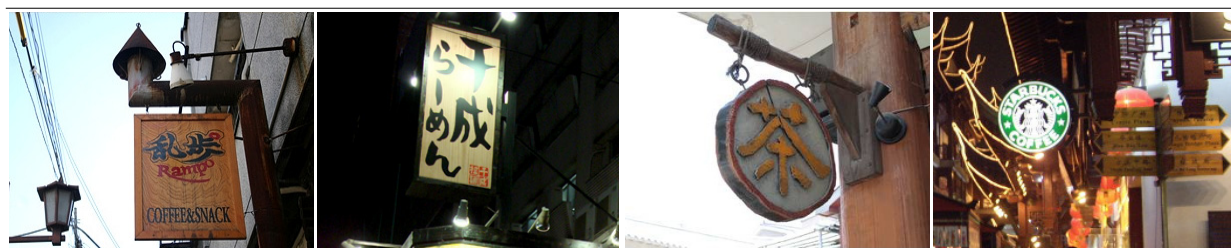
[그림 7-4] 돌출형 간판 적용

3) 소형돌출 간판

구 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개별크기 : 최대 0.36㎡ 이내, 두께 0.2m 이내
설치위치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 곳에 설치
표기내용 등	심의를 받아 표시, 총수량에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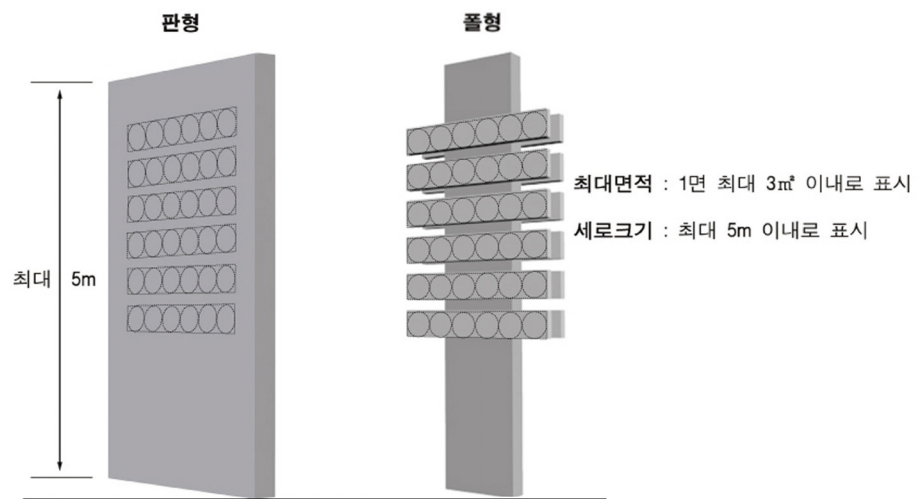
[그림 7-5] 소형돌출 간판 적용



[그림 7-6] 소형돌출 간판 적용 사례사진

4) 지주이용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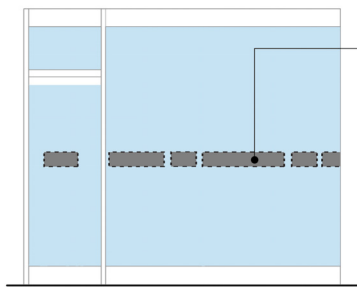
구 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 면적 : 1면 3㎡ 이내, 합계 6㎡이내 • 높이 : 5m 이내
표기내용	• 위치 : 부지 내 • 형태 :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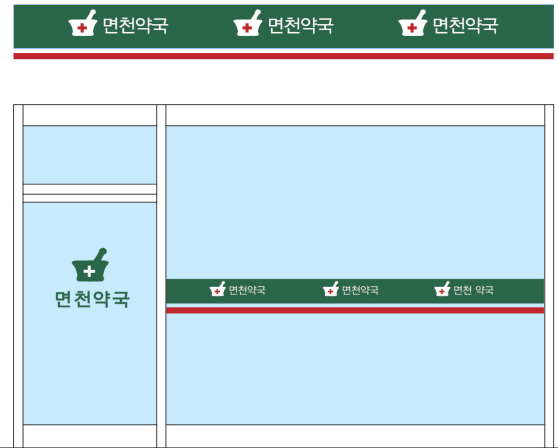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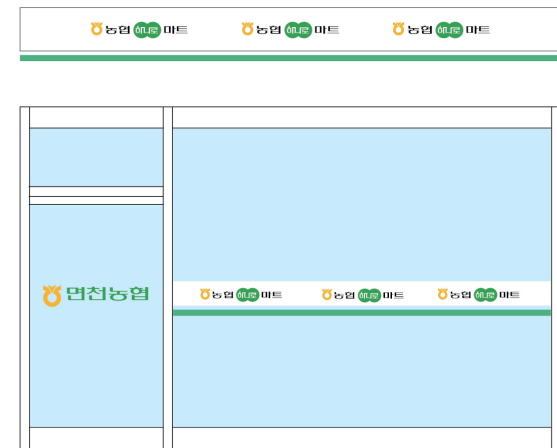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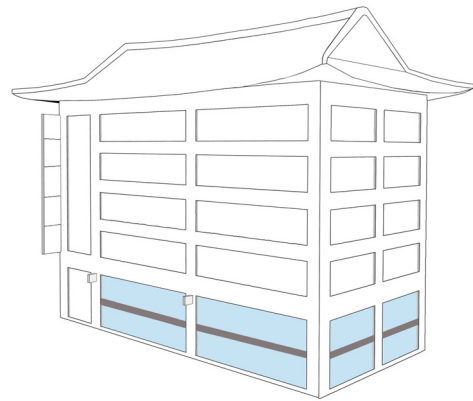
[그림 7-7] 지주이용 간판 적용

5) 창문이용광고물

구 분	가이드라인
표시규격	• 1층에만 부분적 표시 • 높이 0.2m 이하, 한 줄로 표시 • 창문 내외부 입체형 점멸방식 금지
표기내용	- 유리면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 -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 표시가능



상호와 점포명 외에 관련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안전띠 개념으로 높이
20cm 이하로 매우 작게
표시한다.



[그림 7-8] 창문이용광고물 적용

3. 공공시설물 설계지침

- 공공시설물 설계지침은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에 기본적인 설계지침으로서 디자인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진군의 요청으로 기본지침을 제시하되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음

3.1. 기본지침

목표 | 전통의 멋이 담겨있는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

- 역사성, 전통성을 반영하되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장식적 요소는 최소화하며, 시설물 목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물에 개방성과 조화성을 확보하여 역사적 유산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공공공간의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및 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디자인, 안정성이 확보된 디자인을 함
- 시설물의 수직, 수평을 확보하여 안정감을 확보하고, 재료를 미려하게 마감하여 재질의 심미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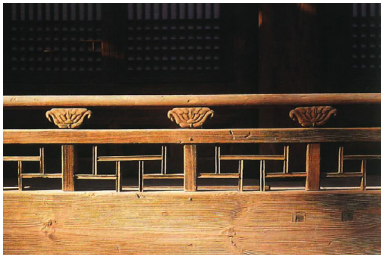
3.2. 디자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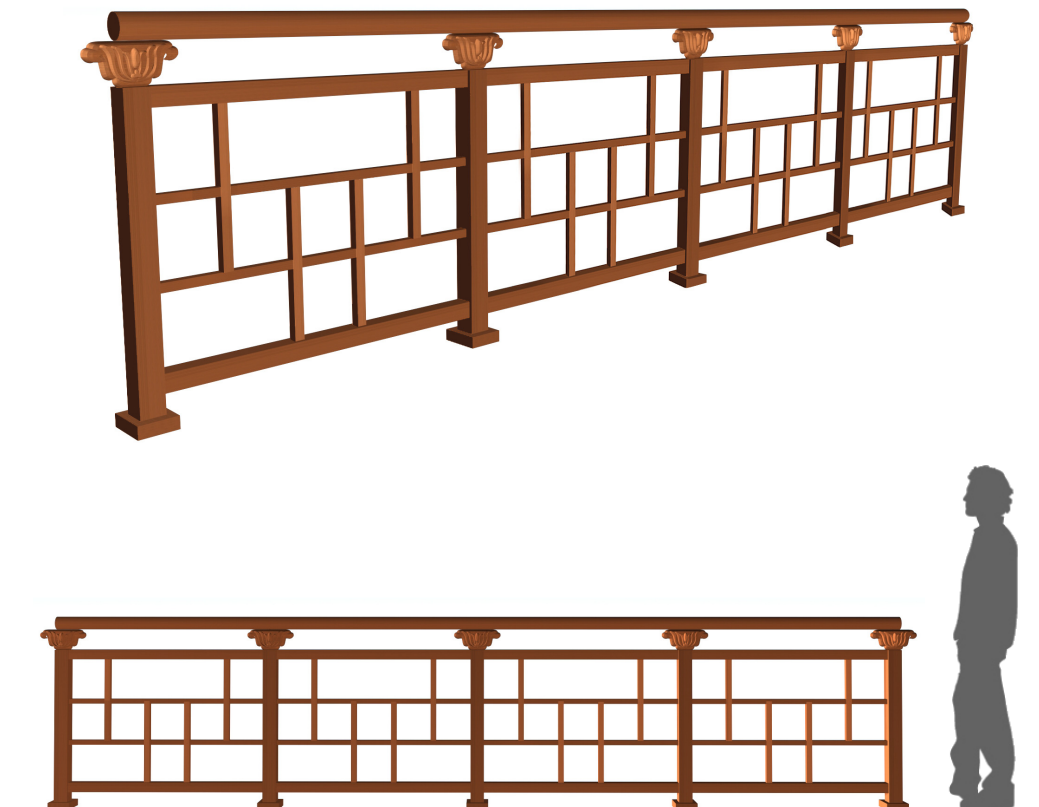
- 면천은 다수의 역사적 장소, 인물, 전설이 있는 역사도시이나, 경관적 측면에서 역사경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의 역사적 정체성과 조화성이 미흡한 실정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지침에서는 한국의 전통한옥과 가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가로시설물에 적용하여 디자인함
- 디자인적 개념은 '전통의 멋'으로 설정하고, 시설물을 디자인하였으며, 특히 재료자체의 질감과 색채가 반영되도록 하며 마감 색채에서 전통의 멋이 반영되도록 선정

3.3. 가로시설물별 디자인

1) 보행자 - 안전시설

(1) 보호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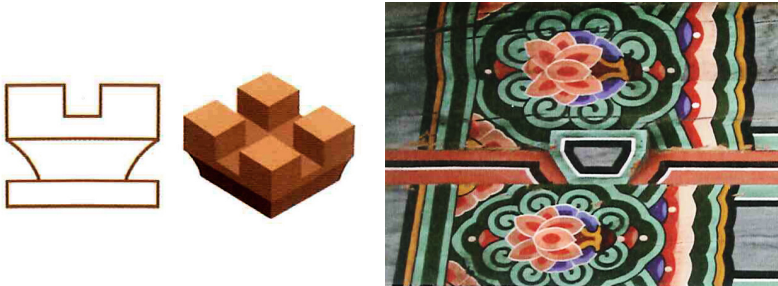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난간디자인을 접목하여 절제미, 균형미를 드러내고 연모양의 하엽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 - 기본규격은 H900 × L1200mm(난간 스팬의 기본규격)로 하며, 목재색채로 마감
현재모습	컨셉이미지
	 



규격 : H900mm (1경간 : 1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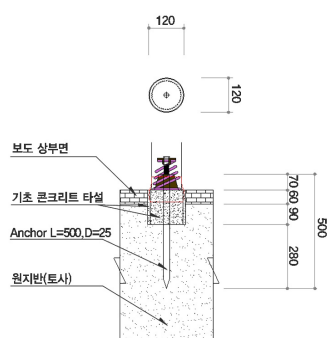
Material : AI-Casting/Steel-Plate/Hardwood

(2) 블라드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한옥기둥의 '주두'형태를 단순화하고, 한옥의 단청과 진달래의 봉우리를 접목시킴 - 상부에는 단청의 색상 중 주의를 의미하는 색채를 적용하여 전통성, 기능성을 부여 - 기본규격은 R120×H600mm로 하며, 하부에는 스프링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현재모습	컨셉이미지
	

● 기본형

● 기본형응용-진달래 블라드



● 탄성블라드 하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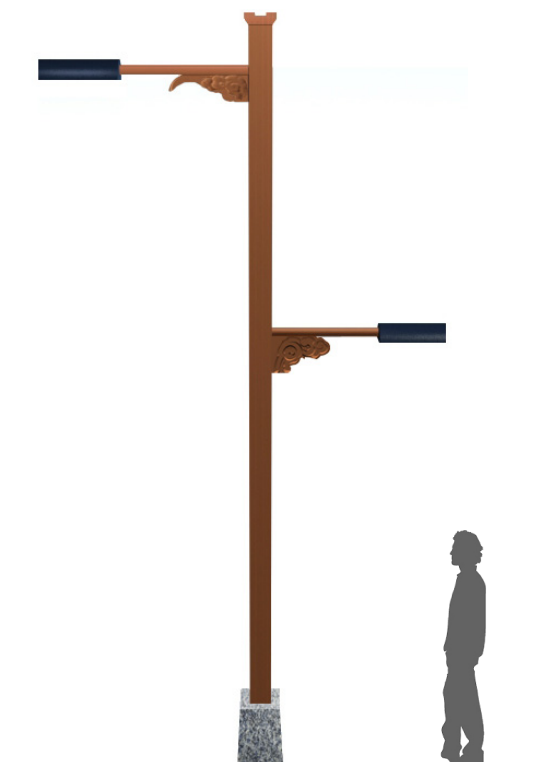
규격 : R120×H600mm
Material : Al-Casting

2) 조명 - 가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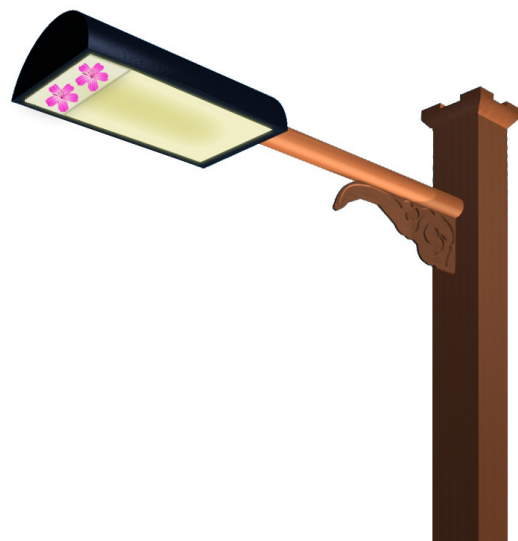
(1) 가로등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기와와 기둥, 주두, 공포(익공)형상을 가로등의 등기구, 기둥에 적용하여 디자인하여 전통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기본규격은 L1600(1200)×H8000(5000)mm으로 하며, 등기구의 색채는 목재색채로 지정색 도색 마감
현재모습	컨셉이미지
	  

● 기본형



● 기본형응용-진달래 가로등



규격 : L1600×H8000mm, L1200×H5000mm (2등형 기준)
Material : Al-Casting

(2) 보행등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기와형태를 조합하여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창출 • 기본규격은 L1600(1200)×H8000(5000)mm으로 하며, 등기구의 색채는 목재색채로 지정 색 도색 마감

컨셉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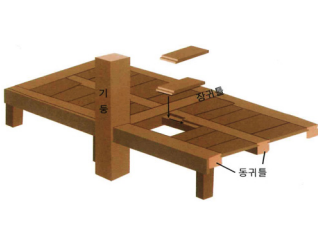
규격 : Lamp-Dulux EL-12~15W, IL-60W

Material : Aluminum Alloy/Stl Pipe/Glass/Polycarbonate

3) 편의 - 휴게시설

(1)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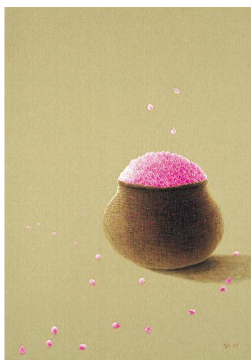
구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마루와 평상을 형상화한 벤치디자인 - 기본규격은 L2424×W89×H38mm으로 하며, 평상은 목재, 기둥은 화강석 또는 목재를 이용

현재모습	컨셉이미지
	  

● 기본형



● 기본형응용-진달래 평상



● 김정수 작가의 작품 <진달래>를 벤치에 응용 작가 동의하에 저작권고



● 기타 진달래 그림



규격 : L2424×W89×H38mm
Material : 목재 및 화강석

4) 공공 시설

(1) 종합안내판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지붕과 입면을 단순화하여 역사유적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기본규격은 2000×200×1900mm으로 하며, 지붕면은 Steel 지정색 도장 또는 목재로 하며, 안내판과 기둥은 목재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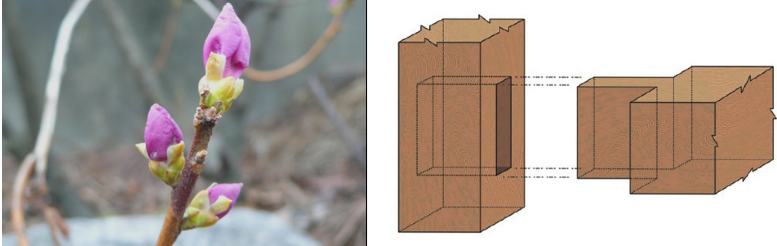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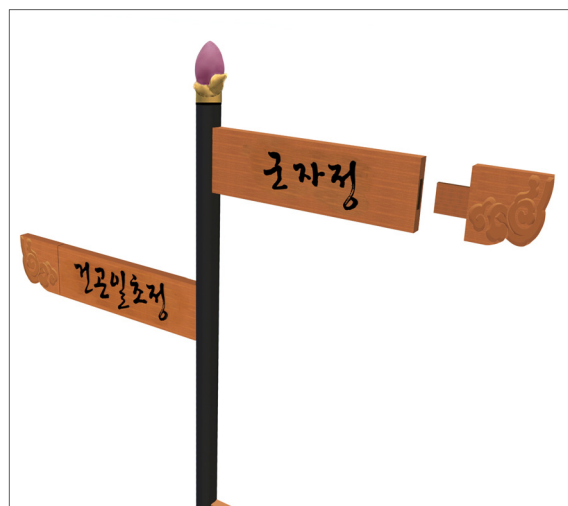
규격 : 2000×200×1900mm

Material : Hardwood/지붕면 Steel지정색 도장

(2) 보행 및 방향안내 사인

구 분	설계지침
디자인 지침	- 전통한옥의 목재결구방식과 공포를 방향안내 판에 응용하여 경관과 조화롭게 디자인 - 기본규격은 기둥은 D80×H1900mm, 안내판은 L400×H120으로 하며, AL Steel Pipe에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하며, 안내 판은 목재를 이용

현재모습	컨셉이미지
	



규격 : 기둥 D80×H1900mm, 안내 판 L400×H120

Material: AL_Pipe/Hardwood

4. 색채 경관설계지침

4.1.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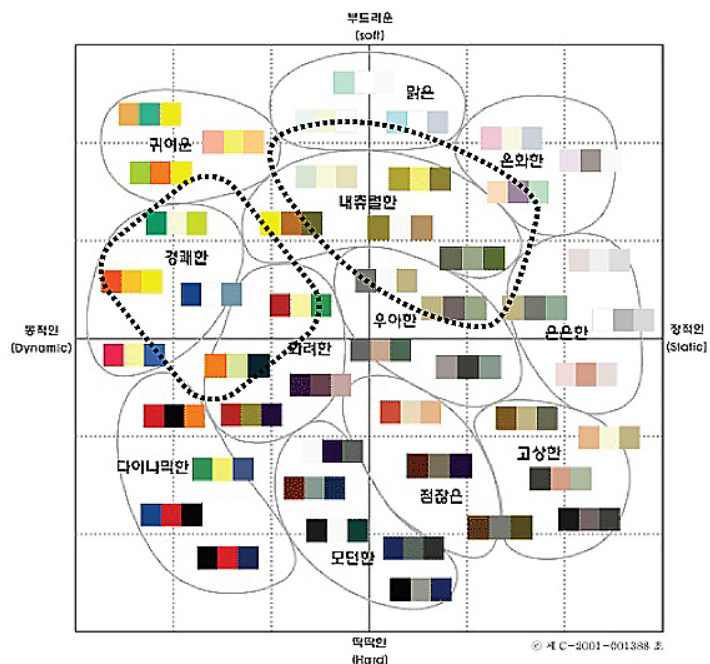
목표 ■ 면천의 역사유산과 조화되고, 정체성에 나타내는 색채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적 분위기 창출

- 면천과 당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면천은 역사문화 도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됨
- 따라서, 색채경관설계 지침의 목표를 '면천의 역사유산과 조화되고, 정체성에 나타내는 색채도입을 통한 역사문화적 분위기 창출'로 설정

4.2. 기본방향

1) 색채 현황분석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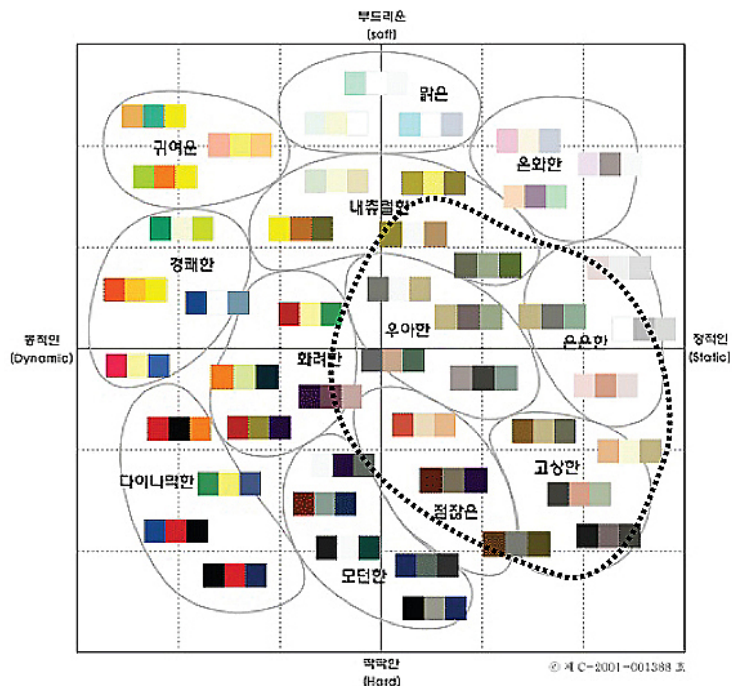
- 면천의 색채현황조사결과, 건축물의 색채 및 가로시설물 색채는 색상, 명도, 채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어 통일성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그림 7-9] 면천의 색채이미지 현황

2) 색채 경관설계지침의 기본방향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의 목표인 “고려 충효의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면천”과 부합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역사자원의 고유한 분위기와 고유의 정체적 요소인 진달래의 특성이 반영된 색채계획을 수립함
- 당진 면천의 지역 색 즉 역사환경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도록 외벽의 재료 및 소재를 고려
- 디자인 형태가 전통적 요소를 모티브로 한 경우에는 색채 또한 그에 준하는 색채를 선정하며, 부분적인 강조색으로 진달래의 색채를 도입하여 정체성을 표현
 - 자연재료(목재, 석재, 황토 등)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본연의 색채를 그대로 인정하며, 그 외 가공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연재료에 준하는 색채로 처리하여야 함
 - 면천의 주변 경관을 형성하는 자연경관 색채(하늘, 산, 수목, 돌 등) 및 읍성내부의 인공환경색채, 주변건축물 등 가로환경색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지나친 투명, 발광, 반사, 원색 등의 역사문화도시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색채 및 소재사용을 지양함



[그림 7-10] 당진 면천의 미래 경관색채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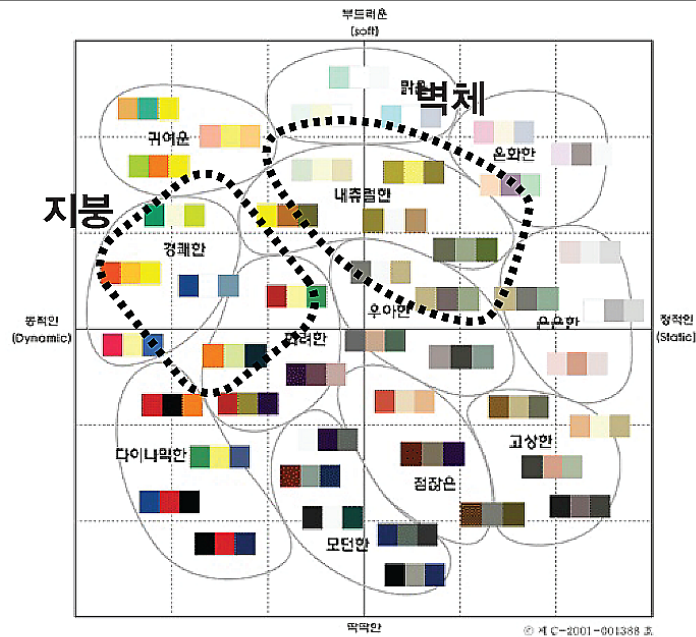
● 경관설계지침

주요원칙	역사자원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외벽의 재료 및 소재를 고려하여 재료자체의 색채가 색채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중점사항	- 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함 -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함
설계지침의 적용	면천의 경관구성요소인 건축물, 공공공간, 가로,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신축·신설, 리모델링, 외벽의 색채변경 등을 시행할 때 이것에 기초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함

● 당진 면천의 건축물 현황색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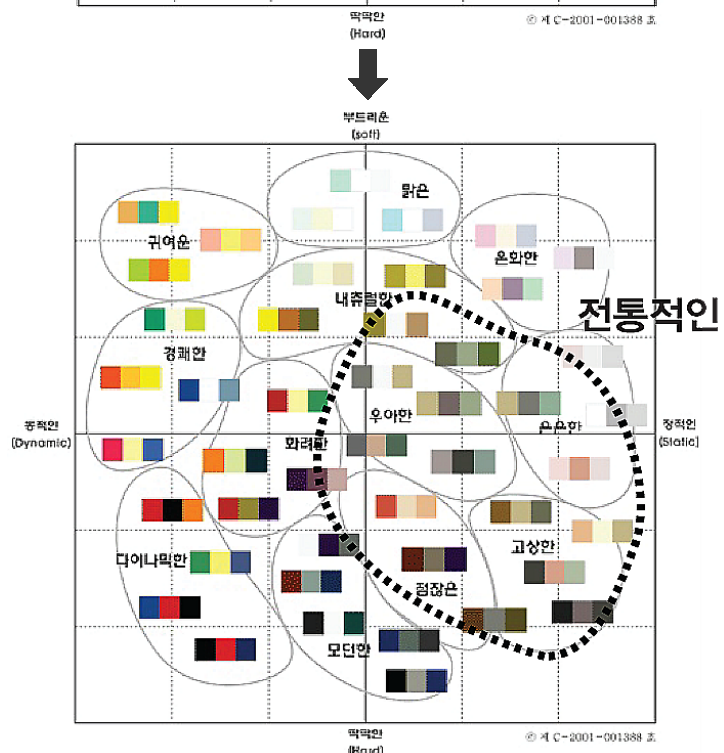
지붕-경쾌한

벽체-내추럴한



● 당진 면천의 건축물 지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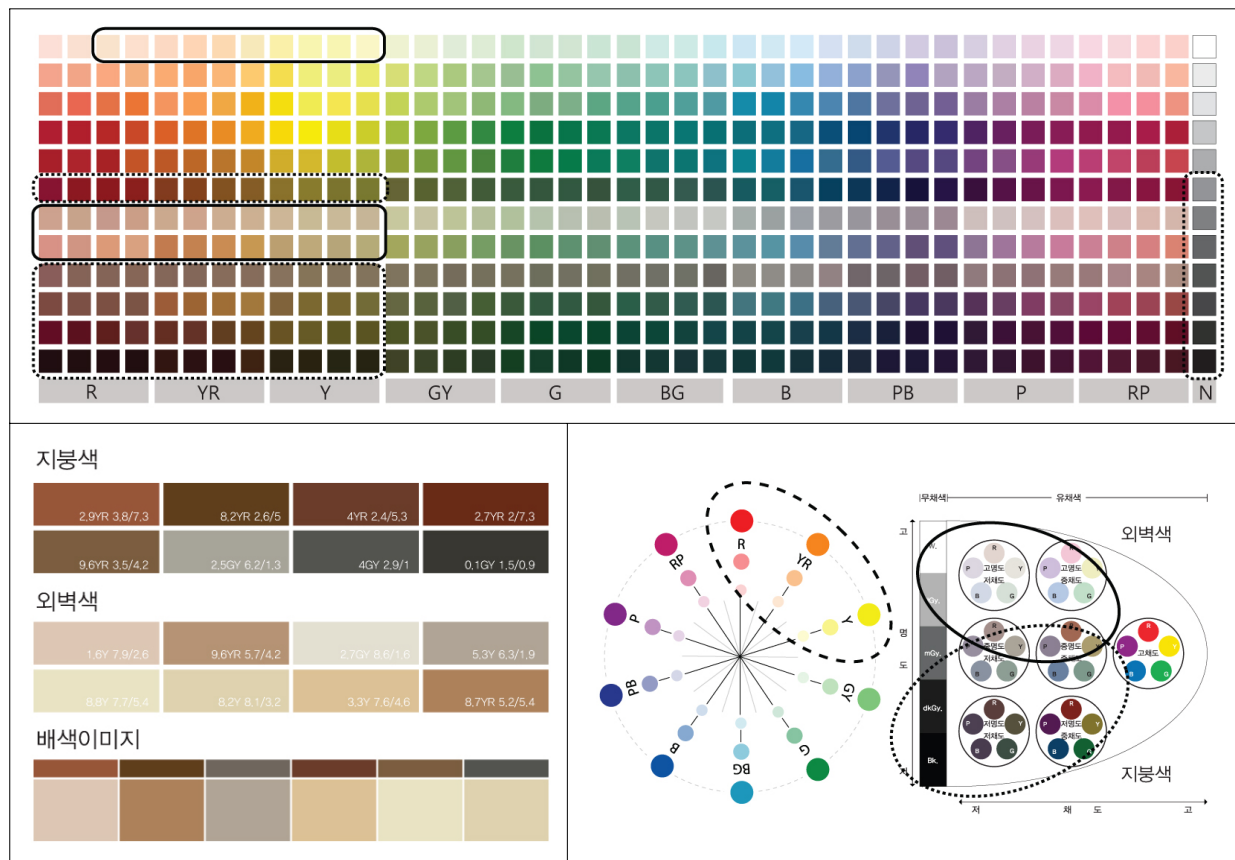
전통적인 (점잖은, 고상한, 우아한)



4.3. 구성요소별 색채설계지침

1) 건축물의 경우

-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건축물은 역사문화도시에 어울리는 품격이나 차분함이 느껴지는 색채를 계획
- 외벽의 기본색인 주조색은 주위의 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난색계(R, YR, R계열)의 저채도(채도 4이하)/고명도(명도 7이상)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며, 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보조색에 대해서도 차분함이 느껴지는 난색계의 저·중명도의 중채도까지의 색채로 선정하여 유사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지붕색채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이나 눈썹지붕인 경우에는 주변 경관색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에서 제시된 난색계의 저채도/고명도인 외벽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상(R, YR, Y계열)이나 무채색 N계열로 선택한 후, 명도나 채도값을 1-3정도 낮춘 색채를 사용하여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계획
- 단, 평지붕의 지붕면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전



●적용 후 - [대안 1]



●적용 후 - [대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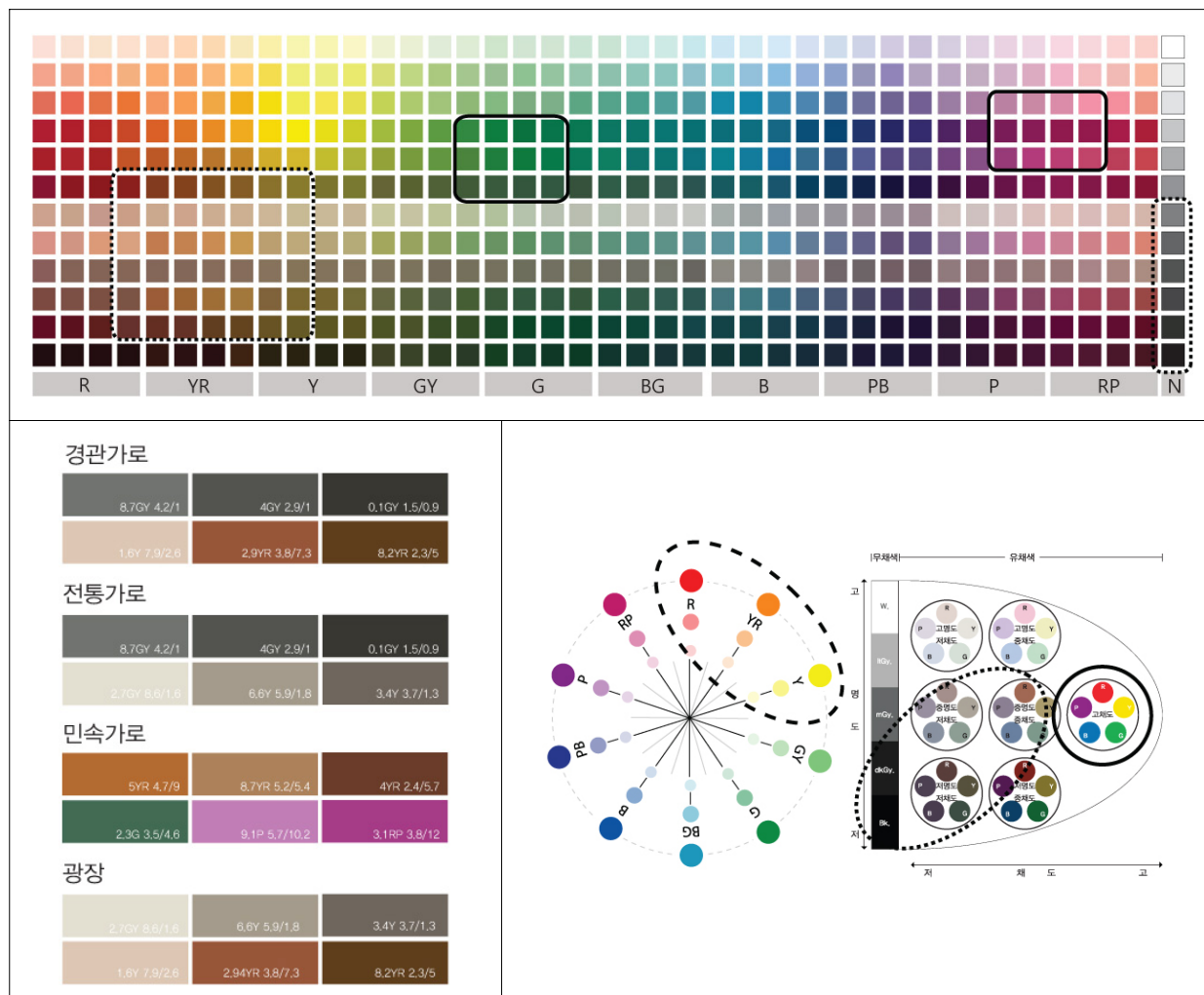


●적용 후- [대안 3]



2) 역사문화거리 조성 - 가로 위계에 따른 경관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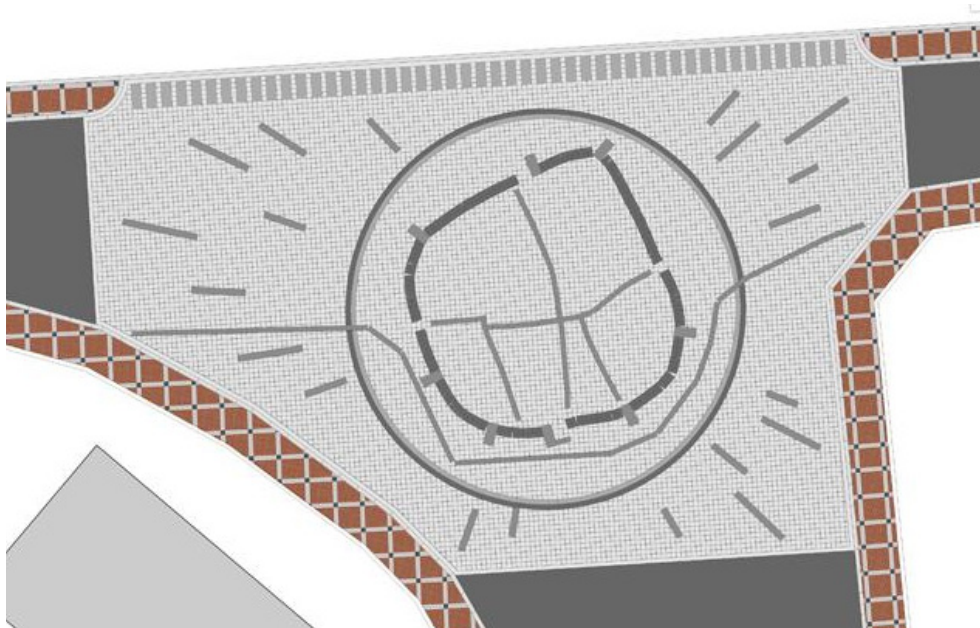
- 경관가로와 전통가로의 차도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아스팔트 색채인 무채색계열의 저명도 색채로 선정
- 경관가로와 전통가로의 보도는 역사문화도시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황토, 마사, 석재 등 자연소재를 연상시킬 수 있는 Y, YR계열의 저·중채도(채도 7이하)색채를 선정함. 만일 인공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색채를 선정하여 처리함
- 민속가로의 경우에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라는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앙부분은 자연소재의 Y, YR계열의 저·중채도의 색채를 선정하며, 보도 주변의 경우에는 강조색의 경우, 면천읍성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진달래의 색채에 준하는 P계열의 중명도(명도 4-8)/고채도(8이상)의 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
- 광장의 경우에는 가로 결절부로서 중앙에 면천읍성을 상징화하는 패턴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색채를 사용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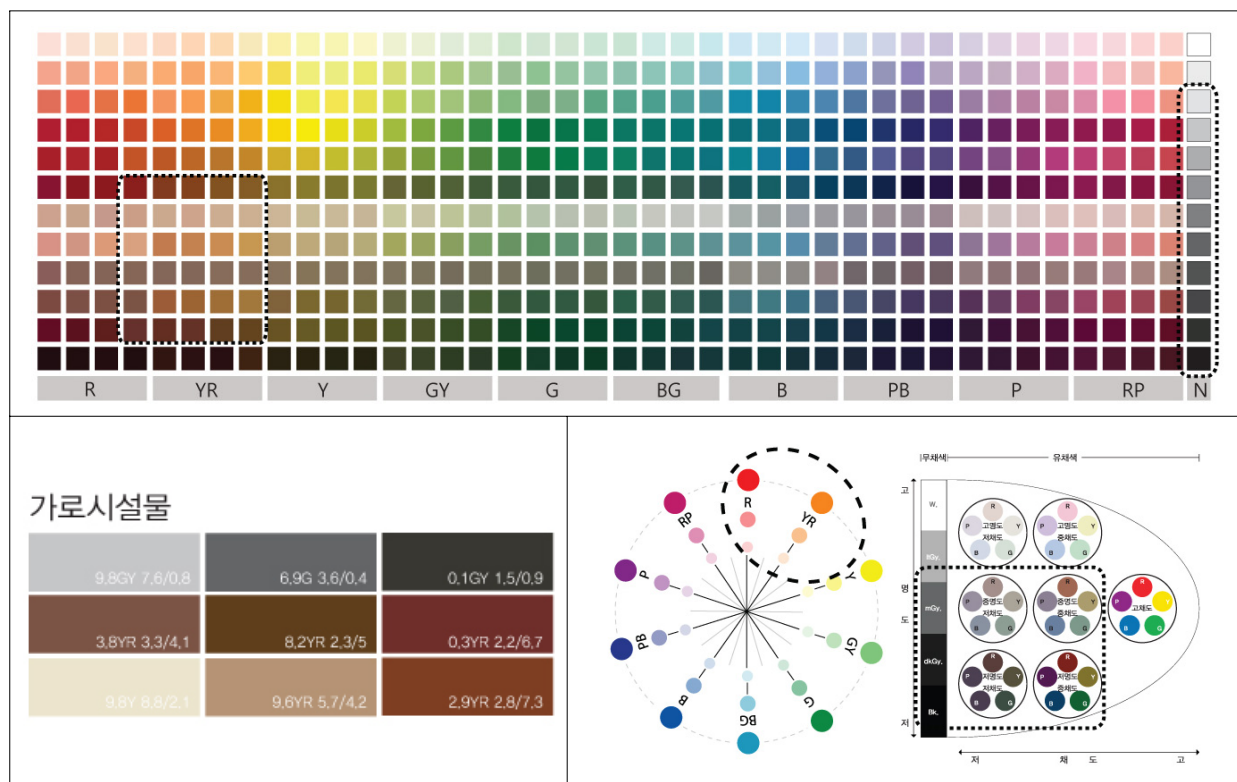


●변경 후



3) 가로시설물

- 당진 면천의 주변 경관을 형성하는 자연경관 색채(하늘, 산, 수목, 돌 등) 및 읍성내부의 인공환경색채(주변건축물, 도로) 등 가로환경색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전통적인 모티브디자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R, YR계열의 저·중명도(명도 7이하)/저·중채도(채도 8이하)의 색채와 무채색 N계열의 색채를 사용
- 가로시설물 강조색의 경우 전체 가로시설물 입면적의 10%미만에 대하여 당진면천군의 역사적 자원 및 경관자원에서 제시된 색채를 참고하여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할 수 있음(예 : 단청, 진달래, 은행나무 등)



● 벤치(평의자) - 색채설계지침 적용(예시)

ALT 1



ALT 2



ALT 3



● 블라드 - 색채설계지침 적용(예시)

ALT 1



ALT 2



AL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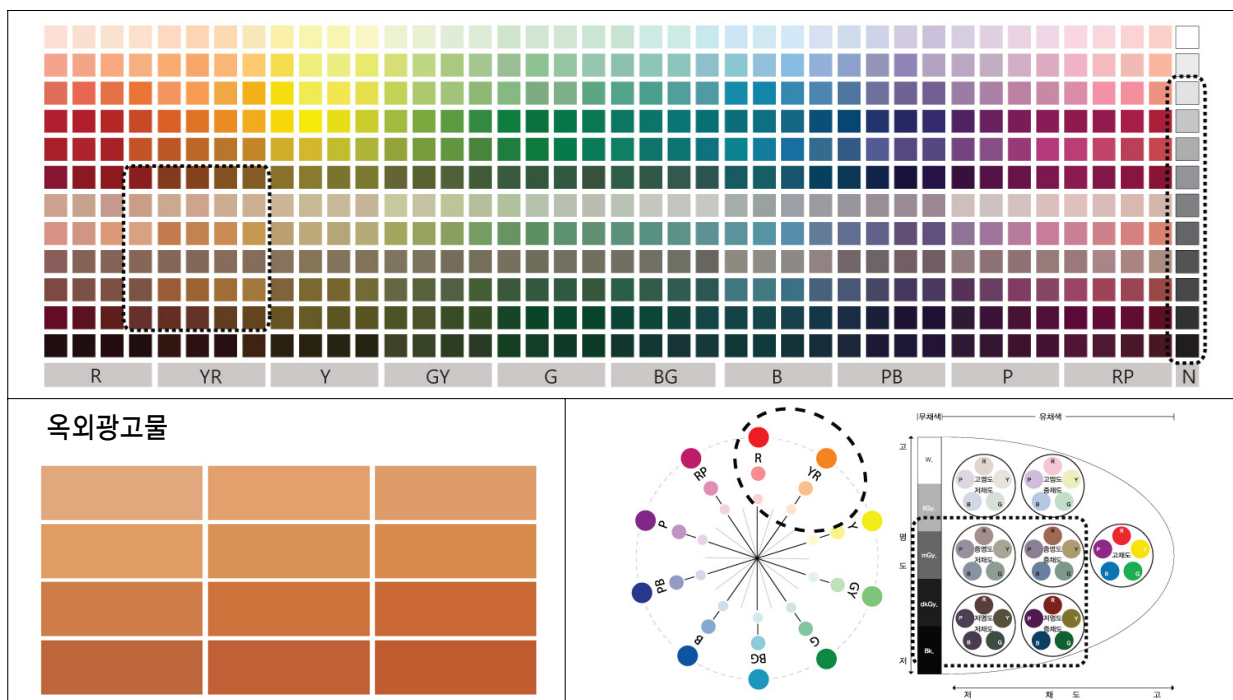


AL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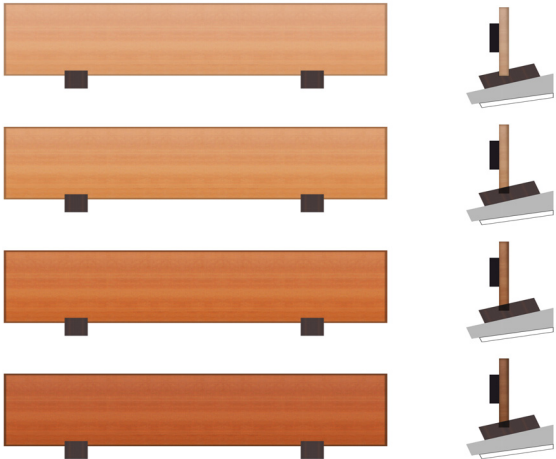


4) 옥외광고물

- 건축물 입면을 구성하는 색채(벽체, 창호 등), 가로환경색채(보도, 가로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전통적인 모티브디자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R, YR계열의 저·중명도(명도 7이하)/저·중채도(채도 8이하)의 색채를 사용



● 간판 - 색채설계지침 적용(예시)

색상별 가이드라인	
적용 전	
적용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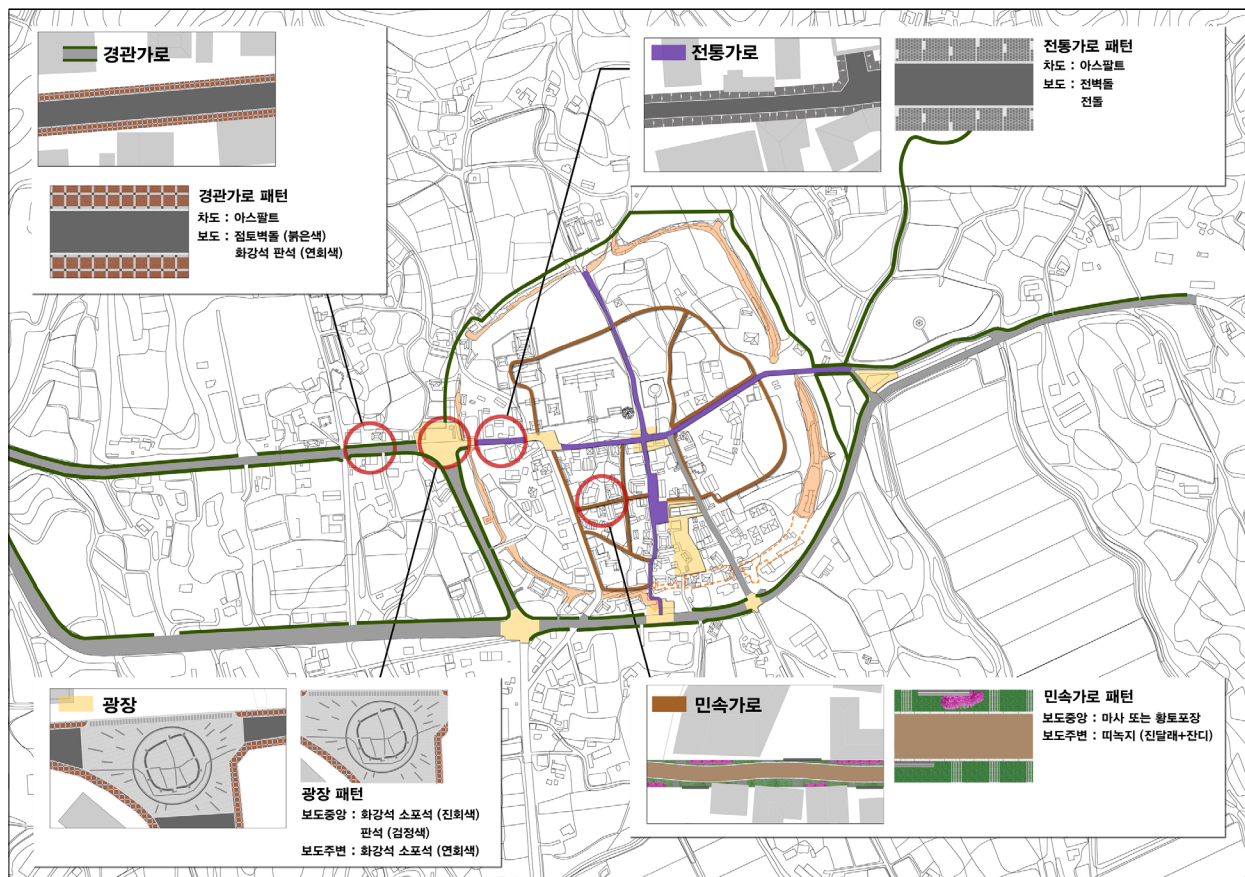
5. 주요 가로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5.1.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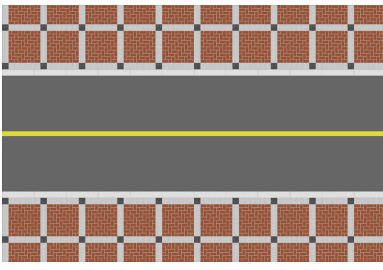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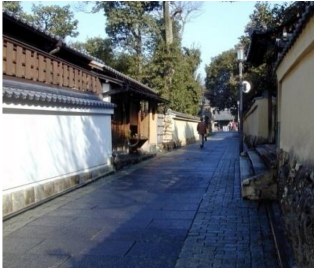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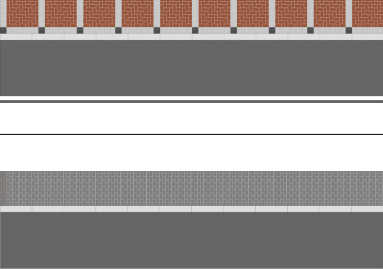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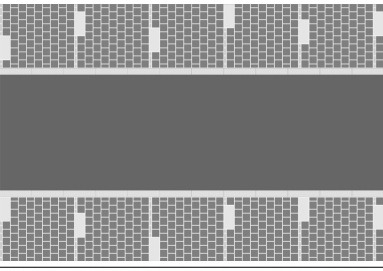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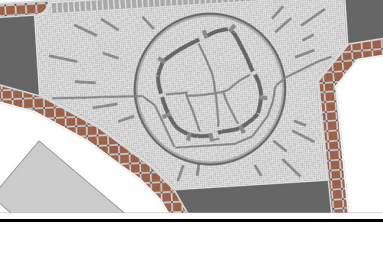
목표 ■ 역사와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로경관 형성

- 면천읍성, 고려 복지검 등 면천의 역사적 정체성, 상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가로경관이 갖추어야 할 건강성, 편의성, 기능성 등을 확보하며,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주민들이 가로에 대한 장소적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

5.2. 가로 위계에 따른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7-11] 주요 가로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분	사례사진	노면조성예시	재료
1. 경관 가로			• 보도: -중앙: 화강석 소포석 판석 (진화색, 검은색) -주변: 화강석 소포석(연회색) • 차도: 아스팔트
			• 보도: 화강석 판석, 벽돌 • 차도: 아스팔트
			• 보도: 벽돌 • 차도: 아스팔트
2. 역사 문화 가로			• 차도: 아스팔트, 화강석 판석 • 보도: 전벽돌+벽돌
3. 민속 가로			• 보도: -중앙: 마사 또는 황토포장 -주변: 띠녹지(진달래+잔디)
4. 광장			• 차도광장: -중앙: 화강석 소포석

5.3. 가로변 경관디자인 설계지침

1) 역사문화가로 경관형성 - 읍성 내 가로

- 역사도시로서 면천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문화가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과거 읍성 내에서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4대문을 연결하는 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가로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주택지 이면도로는 토속적인 민속가로로 조성함

구 분	가이드라인
역사 문화 가로	• 읍성 내 주요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거리 사업대상 - 위치: 서문-동문-골정지거리(가칭 '연암로'), 북문-남문간 십자형 거리, - 거리: L830m x W6m 사업내용 • 전통역사적 분위기 보도 조성 - 전돌, 전벽돌, 화강석 판석 등을 이용 역사문화거리 분위기 조성 • 가로시설물 정비 - 가로등, 보행등, 벤치, 볼라드, 안내판 등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도입 •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입면 정비(유도적)
민속 가로	•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읍성 내 거리 사업대상 - 위치: 주거지 이면 연결 도로 - 거리: L830m x W4m 사업내용 • 토속적 분위기의 노면 조성 - 마새(또는 황토)포장과 띠죽지(진달래+잔디) 등을 이용하여 토속적인 경관을 형성 • 가로시설물 정비 - 보행등, 담장 등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도입 •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입면 정비(유도적)

● 일본의 역사거리 조성 사례



● 교토 산넨자카



● 가나자와 히카시차야거리



● 히코네 캐슬로드



● 면천읍성 내 이면 가로 - 정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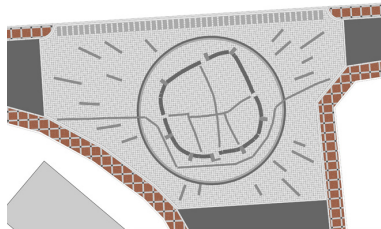


● 면천읍성 내 이면 가로 - 정비 후

2) 역사광장



● 역사광장 조성 대상지(서문)



● 역사광장 조성(안)

- 보행 및 통행의 결절부에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과거 읍성 내에서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4대문을 연결하는 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가로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주택지 이면도로는 토속적인 민속가도로 조성함

구 분	가이드라인
사업대상	●면천읍성의 역사적 공간을 상징하는 진입공간을 대상 - 위치: 서문, 동문, 남문 광장 조성(3개소) - 면적: 4,464㎡
사업내용	●면천읍성을 상징하는 광장 디자인 도입 - 화강석 소포석, 전돌 등을 이용하여 면천읍성의 모습을 상징화 ●가로시설물 정비 - 안내사인, 노면등, 안내판 등의 도입을 통한 공간의 정체성 부여



● 면천읍성 서문지역 역사광장 조성(예시)

4) 영탑사로 가는 가로

- 점적인 역사자원이 영탑사와 면천 역사문화도시를 연계하는 가로를 사찰의 분위기와 조화되며, 보행 친화적이며, 안전한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도로의 측면부지를 활용하여 영탑사에서 면천에 이르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노면은 벽돌과 블록을 이용하며, 색채는 진한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차분한 경관분위기를 연출



● 영탑사 가는 길 - 정비 전



● 영탑사 가는 길 - 정비 후

5) 원동저수지로 가는 가로

- 면천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 이어지는 원동저수지 길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경관유도식재를 통하여 역사와 수변경관의 연계를 계획
- 도로측면에 보행 친화적이며, 안전한 보도를 조성하며, 노면은 벽돌 또는 블록을 이용하며, 색채는 진한 회색과 진한 빨강계열을 사용하여 차분한 경관분위기를 연출



● 정비 전 - 면천읍성-두견주 전수관-원동저수지 연계도로



● 정비 후 - [대안 1] 보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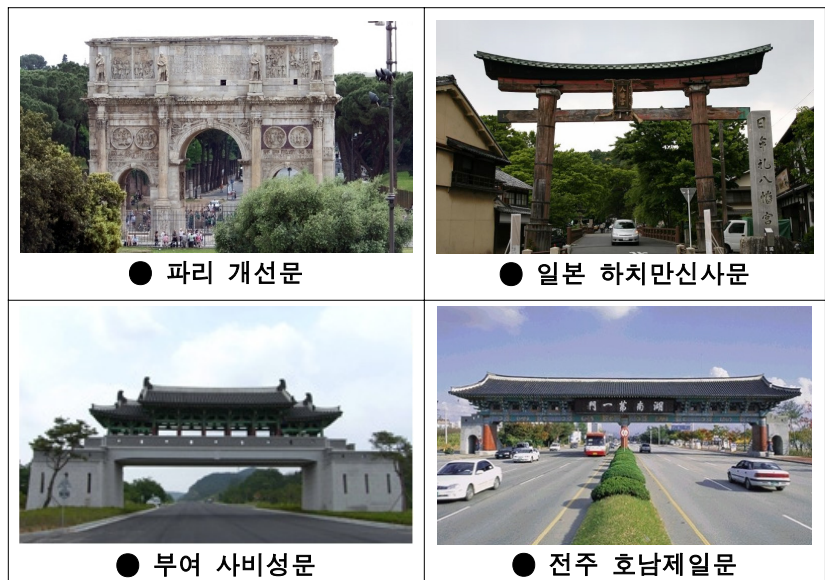


● 정비 후 - [대안 2] 보호 확보 및 건축물 정비

6) 면천 진입부 상징 경관형성 - 상징문

- 상징문은 역사도시, 면천의 장소적 의미와 영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역사문화도시 경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
- 때문에, 국내외 여러 도시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상징문을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영역성을 나타내고 있음
- 역사문화도시로서 면천의 경관형성 목표인 충효의 전통을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을 활용
- 면천 효 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희란과 박희전을 기념하여 조선 숙종 46년에 세워진 효자문을 이미지화하여 역사문화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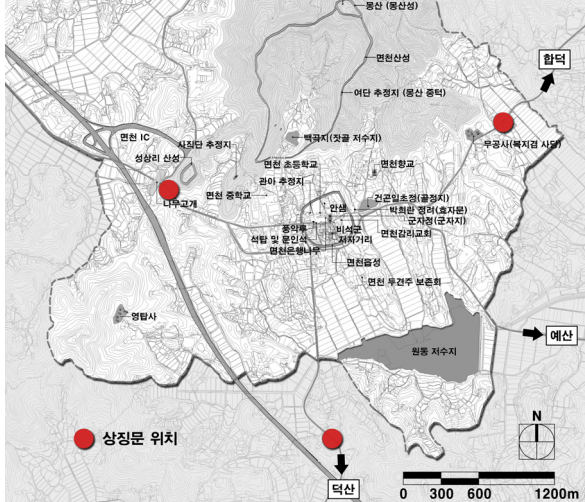
[표 7-2] 국내외 상징문 조성 사례



● 박희란과 박희전의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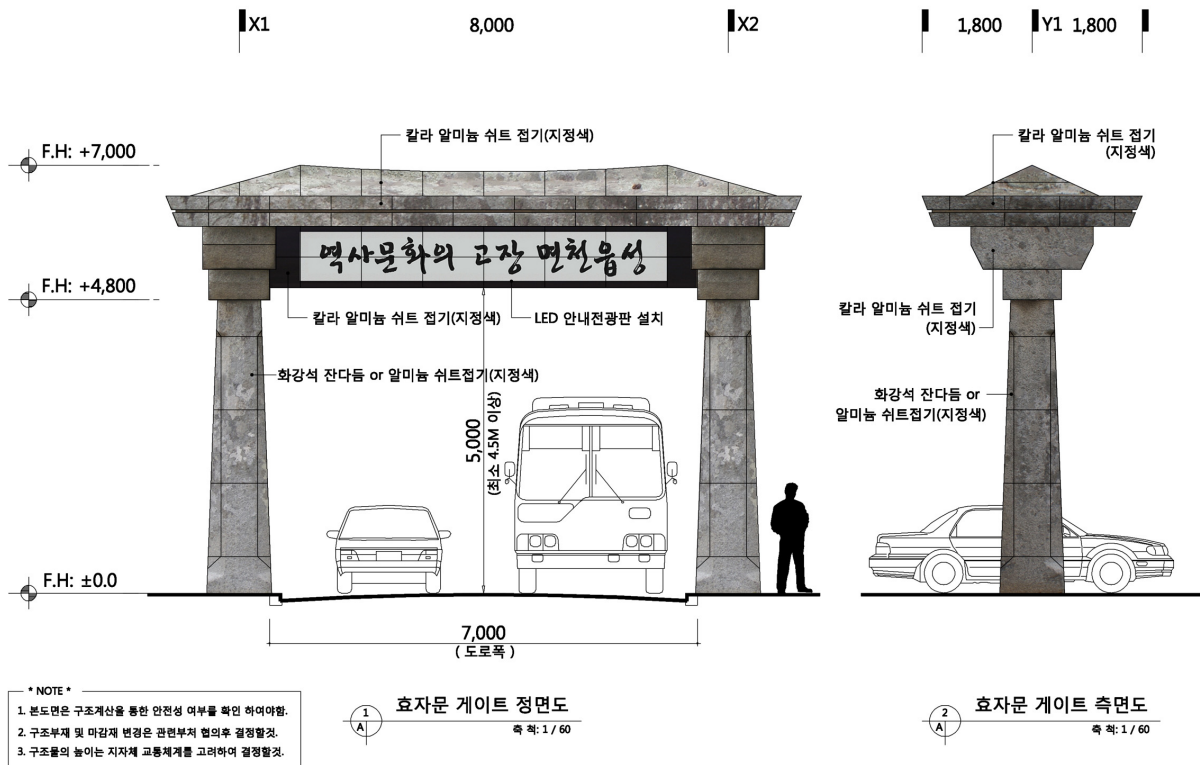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 상징문 조성 위치

구분	세부 내용
설치 위치	• 면천IC 나무고개(서쪽), 덕산(남쪽), 합덕(동쪽) 방면의 진출입로변에 상징문을 설치
규모	• 출입구 하단 높이는 최소 4.5m 이상을 확보하여 차량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구조	• 구조는 상징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철골구조를 권장
마감	• 외부 마감은 화강석 또는 알루미늄 시트를 이용하여 역사적 경관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함



● 면천 역사문화도시 상징문(안)



● 상징문 조성 전 경관 - 덕산에서 면천으로의 진입로



● 상징문 조성 후 경관 - 덕산에서 면천으로의 진입로

제 8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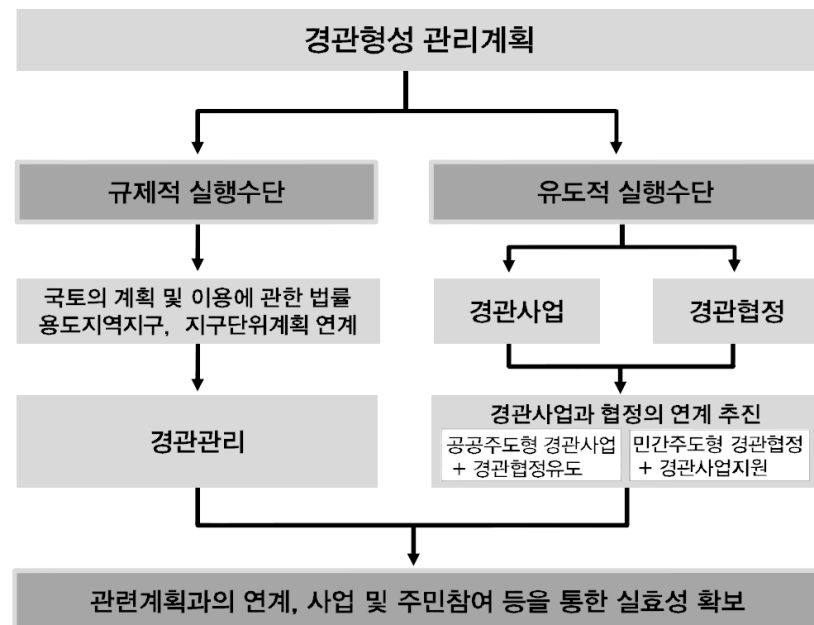
관리 및 실행계획

1. 관리계획

2. 실행계획

1. 관리계획 - 경관지구, 사업, 협정

-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당진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며 주변의 도시 및 자연경관을 역사문화적인 환경과 조화롭게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의 실행방안은 크게 규제적인 실행수단과 유도적인 실행수단으로 구분
 - 유도적 실행수단으로서는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공이 주민(민간)과 경관협정을 맺고 선도적인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규제적인 실행수단으로서는 면천지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존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로 설정하고 경관설계지침을 실행하는 것을 말함
-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경관형성 관리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경관협정에 의거하여 경관형성사업을 선 추진하고, 규제적 실행수단을 시행하도록 함



[그림 8-1]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관리계획의 틀

1.1 관리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경관유도(경관설계지침)

-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설계지침은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 기간 등에 대한 것으로 지침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며 실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역사문화경관권역, 축, 지점에 대한 경관형성 설계기본지침과 방향을 수립하여 경관형성형 지침으로서 역사·문화도시 경관권 형성(4개), 자연녹지 및 성곽축 경관형성(면천산성 및 아미산), 수변축 경관형성(원동저수지) 관련 지침을 제시

2) 경관관리

-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첫 번째, 용도지구 도입,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등이 있으며, 두 번째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을 통한 실행이 있고, 첫 번째 방안이 두 번째 방안보다 구체적인 성격이 강함
- 본 계획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경관관리의 방침과 경관설계지침은 물리적 규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리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대지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경관계획을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그 밖에 경관지구 및 미관지정지와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실행방안이 있음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물리적 요소에 대한 기능적이고 실천적인 도시 관리 계획으로서, 면천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할 경관설계지침 항목을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함
 -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관련과인 건축과, 도시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경관설계지침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3) 경관사업¹⁾

1)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경관법 제13조).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선정지표를 사업의 상징성, 경관자원의 활용성, 경관형성의 지속성, 경제적 효과성, 주민요구도, 재원조달 용이성 등으로 하여 선정
- 이를 바탕으로 본 계획에서는 역사문화경관의 특성화 및 형성을 위한 단계별 경관사업을 제안
- 또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며,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목록과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재정계획을 실시
- 국가지원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방안을 함께 제시

4) 경관협정²⁾

- 본 경관계획에서는 경관협정의 범위와 기간, 경관협정 필요지역 및 시범지역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합리적인 협정 운영 등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
- 본 계획에서는 저자거리, 읍성 내 역사문화거리, 면천산성 조망 경관형성, 원동저수지 수변경관형성 등에 대해 경관사업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경관협정을 제안하고자 함

[표 8-1]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계획의 실행방안 내용

구분	실행방안
경관유도 (경관설계지침)	· 역사·문화도시 경관권역에 대한 특별지침 제시 · 역사·문화도시 경관축에 대한 공통지침, 특별지침제시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공통지침제시
경관관리	· 지구단위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의 연계가능성 검토 ·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지구 검토
경관사업	· 지구단위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의 연계가능성 검토 ·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지구 검토
경관협정	· 경관협정구역 지정 및 운영(시뮬레이션)방안 제안

나, 경관협정 혹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하며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 2)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여 이행함으로써 경관의 보호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2. 실행계획

2.1 경관유도(경관설계지침)

1) 경관설계지침의 성격 및 목적

- 경관유도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행정주도의 경관사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지침에 의한 규제나 유도가 용이하므로, 역사문화경관의 보전·관리와 가치 증진을 위한 요소별로 지침을 제시
- 경관설계지침은 역사문화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전략별 경관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임

2) 경관설계지침의 대상

- 경관유도형 설계지침은 경관권역, 경관축, 지점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적용방법은 특별과 일반으로 나누어 적용
- 특별은 경관형성 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 일반은 경관형성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지침을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특별지침 외에 일반지침을 적용할 때에는 당진군의 관련실과(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결정

[표 8-2] 경관관리 대상 및 설계지침의 적용

구분	경관관리 대상		요소별 설계지침의 적용 (특별:●, 일반:○)				
			건축물	옥외 광고물	공공 시설물	색채	가로변
역사·문화 도시 경관권역	• 역사도심경관권(읍성 내)		●	●	●	●	●
	• 문화도심경관권(읍성 외)		●	○	○	●	●
역사·문화 도시 경관축	• 성곽축- 면천읍성, 면천산성, 몽산성, 성상리산성		●	●	●	●	●
	• 자연녹지축 - 몽산, 아미산, 다불산		○	○	○	○	○
	• 수변축	-원동저수지, 백곡지	○	○	○	○	○
		-골정지 및 읍성 내 수로	●	●	●	●	●
역사문화 지점	• 경관권역, 축 외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의 역사자원		○	●	○	●	●

3) 경관설계지침의 활용 및 제출

- 경관설계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설계자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경관설계지침의 적용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담당실과(문화체육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담당실과에서는 경관형성을 관리하도록 함
- 관련 부서(문화체육과, 건축과, 도시교통과, 산림축산과 등)는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하도록 함

(1)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주변지역 내에서의 건설 및 개발행위 시에는 본 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2) 설계자는 제시된 경관설계지침 및 주변현황을 숙지하고, 건축물을 구상해야 함

- 경관설계지침 항목 중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본 계획서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유도함

(3) 경관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 필수 경관설계지침으로 설정된 항목은 가급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한다. 비고란에는 체크리스트의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X)'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필수 경관설계지침의 경우에는 별첨으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며, 그 외의 항목은 간략하게 서술함

(4) 건축허가 서류 제출 시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일정 규모이상으로 심의대상의 건축물은 심의도서 제출 시에 체크리스트를 첨부함

4) 단계적 확대 적용방안

- 경관설계지침은 지침 점검 제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향후 사전협의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함

1단계 지침 점검제도

- 건축허가 신청 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 외에 자율적인 경관설계지침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함
- 한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도록 함

2단계 사전협의

- 1단계를 통해 정비된 경관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면천 만의 경관관리체계를 확립함
- 사전협의제도는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이 설계자와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임
- 담당공무원은 경관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경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2.2. 경관관리

1)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 현황³⁾ 및 도입

- 당진시의 도시계획조례에는 미관지구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곳은 없음
- 본 경관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정합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면천읍성 주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단순하고 일률적인 지구지정 및 행위 제한으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시경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당진군 및 공공의 지원 하에 주민참여 등의 유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경관형성 및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화지구 지정⁴⁾

- 문화지구로 지정되면⁵⁾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공방, 골동품점, 고서점, 화랑·서예점, 전통찻집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입주가 권장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은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권장용도의 신규 조성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기존 시설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 또한, 권장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 때에 건물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당진군에서는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의 유도 및 관리를 위해 문화지구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

3)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지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어있다 미관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되어 있다

4) 문화지구는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0.1.12)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인사동(2002년 4월), 대학로(2004년 5월), 헤이리(2009년 12월), 인천 신포·북성·동인천동 일부지역(2010년 1월) 등 4곳이 지정되어 있다.

5) 가장 최근에 문화지구를 지정한 곳은 인천시 조계지역으로서 근대건조물을 보존하고 중구 신포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근대역사문화 발원지로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 및 근대건조물이 보존돼 있으나 도시개발에 따라 훼손 또는 멸실될 위기에 있어 그 동안 보존에 대한 토론 및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2.3.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사업

1) 경관형성 사업개요 - 범위, 주체 및 성격

-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사업은 면천지역 또는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개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됨
- 경관형성 사업 추진주체는 공공, 민간에서 모두 가능하나, 최근 공공주도형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변모하고 있음
- 경관형성 사업의 성격은 역사문화유산과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면천지역의 문화와 주민 일상을 반영

2) 경관형성 사업선정기준

-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재원과 시간, 관련 이해당사자의 노력과 협력 등이 필요
- 다양한 사업을 일시에 전개하는 것보다는 경관형성과 지역에의 기여도, 투자파급효과, 사업의 지속성, 사업시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본 계획에서는 국토해양부(2009)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시

[표 8-3] 경관관리 대상 및 설계지침

선정기준	항목 내용	
경관형성 기여도	• 지역적 특성에 부합	지역부합성
	•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사업과의 연계 여부	경관일체성
	• 주변시설, 역사·문화적 자원 등의 배려 여부	경관연속성
지역 기여도	• 부가적인 사업 유도가능 여부	사업유도성
	• 관광 및 지역산업에 기여여부	지역활성화
	• 선도적인 시책인지의 여부	선도시책
투자의 적절성	• 사업의 시급성	사업시급성
	• 사업비 조달방법의 적정성과 타당성	재원타당성
사업추진과정	• 주민참가의 프로세스	주민참여과정
	• 지속적 경관관리의 가능성	관리지속성
사업시행의지	•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및 경관개선 의지	지역주민의지
	• 해당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	지자체의지

주: 국토해양부, 경관사업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 2009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작성

3) 경관형성 사업대상 및 투자계획

구분		경관 형성 기여도	지역 활성화 기여도	투자 적절성	사업 추진 과정	사업 시행 의지	종합 평가	년차별 투자계획		
								2012 -2015	2016 -2020	2021 -2025
역사 문화 도심 경관 형성	역사문화 거리조성	15	13	8	9	9	54	1단계		
	역사문화 경관형성	15	11	6	6	8	46	1단계 (동헌,관아)	2단계 (객사)	
	진달래 문화 예술 공원	15	9	8	8	7	47	1단계		
	저자거리 형성	15	15	6	9	10	55	1단계		
면천 산성 및 몽산 경관 형성	산성 진입로, 주차장	9	13	6	6	4	38			3단계
	상징 조망점, 산성길 정비	14	7	6	8	4	39			3단계
	백곡지 수변 경관 형성	13	9	6	6	4	38			3단계
	산성 역사 민속공원	9	7	6	4	4	30			3단계
원동 저수지 경관 형성	연계도로 정비	12	13	10	6	6	47	1순위		
	저수지 순환로 조성	12	11	8	6	6	43		2단계	
	수변생태 공원 조성	14	13	6	4	5	43		2단계	
	전망테크 조성	15	11	6	4	6	42		2단계	
	주차장 조성	9	14	6	6	4	39			3단계
가로변 경관 형성	상징문 조성	15	7	8	6	8	44		2단계	
	광장 조성	9	9	6	8	4	36			3단계
	경관가로 조성	15	5	6	7	6	39			3단계
	가로등 정비	9	3	4	6	6	28			3단계

4) 사업소요예산

권역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원)	비고
	총사업비					33,143,890,700	
역사 문화 도심권 경관 형성	합계					16,976,530,700	
	1. 역사문화 거리조성	소계				2,457,090,000	
		광장조성	3,003	m²	110,000	330,330,000	화강석소포석, 3개소
		전통가로 (전벽돌+전돌+화강석)	7,950	m²	140,000	1,113,000,000	L:1325mxW:6m
		민속가로(마사+잔디)	1,475	m²	60,000	88,500,000	L:295mxW:5m
		골정지 경관형성	3,575	m²	140,000	500,500,000	주변조원 및 야간경관
		가로시설물·광고물	1	식	424,760,000	424,760,000	
	2. 면천역사 문화경관	소계				5,553,424,100	
		동헌-박지원기념관	149	m²	6,114,200	911,015,800	동헌활용
		동헌내삼문	35	m²	3,724,800	130,368,000	
		동헌담장	322	m	653,400	210,068,100	
		내아	226	m²	6,114,200	1,381,809,200	면천전설·설화체험관
		객사	427	m²	6,114,200	2,610,763,400	복지검달충효사상체험
		객사내삼문	35	m²	3,724,800	130,368,000	
		객사담장	274	m	653,400	179,031,600	
	3.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 (영랑공원)	소계				2,935,000,000	
		영랑진달래공원	15,800	m²	70,000	1,106,000,000	
		진달래갤러리조성	140	m²	1,200,000	168,000,000	
		진달래문학관조성	160	m²	1,000,000	160,000,000	
		두견주 전수회관	792	m²	1,800,000	1,501,000,000	(발굴, 전시공사포함)
	4. 면천저자 거리조성	소계				6,031,016,600	
		특산물판매점 (민속공방)	175	m²	2,087,600	365,330,000	51.03m²×2동, 72.9m²×1동
		전통체험장	87	m²	2,087,600	181,621,200	1동
		먹거리장터	729	m²	2,087,600	1,521,860,400	22평×10동
		수로복원	136	m	288,600	39,249,600	
		수로상부석교	136	m²	1,145,900	155,842,400	
		주차장	2,650	m²	80,000	212,000,000	잔디블럭
		화장실	12	m²	5,445,000	65,340,000	
		방문자안내센터	155	m²	3,256,600	504,773,000	도농교류포함
		전통음식개발	1	식	200,000,000	200,000,000	소프트사업
		토지매입비	5,570	m²	500,000	2,785,000,000	

권역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원)	비고
면천 산성 및 아미산 경관 형성	합계					8,651,680,000	
	1.진입로/ 주차장 조성	소계				5,319,600,000	
		진입로개설/정비	3,900	m²	72,000	280,800,000	L:390mxW:10m
		주차장조성	10,400	m²	72,000	748,800,000	
		토지매입비	14,300	m²	300,000	4,290,000,000	
	2.산성상징 조망점, 산성길 정비	소계				1,853,080,000	
		면천산성상징문	280	m²	2,000,000	560,000,000	L:70mxH:4m
		조망점형성사업 (조망정자 설치)	7	EA	100,000,000	700,000,000	4각2개,8각2개,데크3개, 잡목
		면천산성길정비	4,308	m	10,000	43,080,000	L:3590mxW:1.2m
		면천산성내길정비	11,000	m	50,000	550,000,000	L:2200mxW:5.0m마사포 장
원동 저수지 경관 형성	합계					5,725,280,000	
	1.연계도로 정비	소계				673,750,000	
		읍성-원동저수지간	1,925	m²	50,000	96,250,000	L770mxW2.5m
		토지매입비	1,925	m²	300,000	577,500,000	
	2.저수지 순환로 조성	소계				1,126,650,000	
		보차혼용정비	18,550	m	36,000	667,800,000	L3710mxW5m
		보차혼용신설	1,400	m	72,000	100,800,000	L280mxW5m
		보행탐방로정비	7,161	m²	50,000	358,050,000	L3410mxW2.1m
	3.수변생태 공원조성	소계				3,262,000,000	
		생태경관공원	25,200	m²	60,000	1,512,000,000	
		생태체험공원	25,000	m²	70,000	1,750,000,000	
가로변 경관 형성	4.전망데크 및 주차장	소계				662,880,000	
		목재전망데크	1,200	m²	400,000	480,000,000	
		주차장조성	2,540	m²	72,000	182,880,000	
	합계					1,790,400,000	
	1.상징문		4	EA	80,300,000	321,200,000	
	2.광장조성	5개소	2,520	m²	110,000	277,200,000	화강성 소포석
	3.경관가로	점토벽돌+화강석판석	11,400	m²	80,000	912,000,000	L:1,900mxW:6m
	4.가로등정비		1	식	280,000,000	280,000,000	

5)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총사업비 (원)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2~15년	2016~20년	2021~25년	
총사업비		33,143,890,700	9,264,101,100	13,096,029,600	10,783,760,000	
역사문화 도심권 경관형성	소계	16,976,530,700	8,590,351,100	8,386,179,600	-	
	1.역사문화거리조성	2,457,090,000	2,457,090,000			골정지 포함
	2.면천역사문화경관	5,553,424,100	2,633,261,100	2,920,163,000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3.진달래문화예술공원	2,935,000,000	1,000,000,000	1,935,000,000		
	4.면천저자거리조성	6,031,016,600	6,031,016,600			
면천산성 및 아미산 경관형성	소계	8,651,680,000	-	-	8,651,680,000	
	1.진입로/주차장조성	5,319,600,000			5,319,600,000	
	2.상징조망점,산성길	1,853,080,000			1,853,080,000	
	3.백곡지수변경관형성	361,200,000			361,200,000	
	4.산성역사민속공원	1,117,800,000			1,117,800,000	
원동저수지 경관형성	소계	5,725,280,000	673,750,000	4,388,650,000	662,880,000	
	1.연계도로정비	673,750,000	673,750,000	0	0	
	2.저수지순환로조성	1,126,650,000	0	1,126,650,000	0	
	3.수변생태공원조성	3,262,000,000	0	3,262,000,000	0	
	4.전망테크 및 주차장	662,880,000	0	0	662,880,000	
가로변 경관형성	소계	1,790,400,000	-	321,200,000	1,469,200,000	
	1.상징문조성	321,200,000	0	321,200,000	0	
	2.광장조성	277,200,000	0	0	277,200,000	
	3.경관가로	912,000,000	0	0	912,000,000	
	4.가로등정비	280,000,000	0	0	280,000,000	

2.4. 경관협정⁶⁾

1) 경관협정 개요

-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수 있는 유도적 제도임
-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면천읍내 저자거리 형성, 역사문화거리조성, 성문광장 및 주차장 조성, 당진 시립 박물관 등
-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국토해양부, 2008)에 따르면 기본적인 경관협정의 추진절차는 협정유도단계, 기획단계, 체결단계, 인가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에 따라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도록 하며, 대표적인 경관협정 대상지는 면천 역사문화거리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시뮬레이션은 경관협정 매뉴얼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체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공, 전문가, 민간의 역할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2) 역사문화도시 경관협정

- 경관협정에 대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추진과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당진군의 주도하에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당진군의 주도하에 경관협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지역단위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일부 경관협정은 민관협력형 경관사업과 함께 추진하며, ‘저자거리 함께 가꾸기’(경관사업: 면천읍내 저자거리 형성), ‘역사문화거리 함께 가꾸기’(경관사업: 역사문화거리 조성), ‘진달래길 함께 가꾸기’(경관사업: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 조성), ‘충효정신

6) 경관협정은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개념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지킴이(경관사업: 역사문화지구 형성), '진달래 갤러리 공공미술프로젝트', '읍성 내 골목길 문화쉼터 함께 만들기' 등이 해당됨

- 이 외에 '영랑의 효 문화체험 프로그램', '관아 지킴이' 등에도 함께하여 추진할 협정도 다음과 같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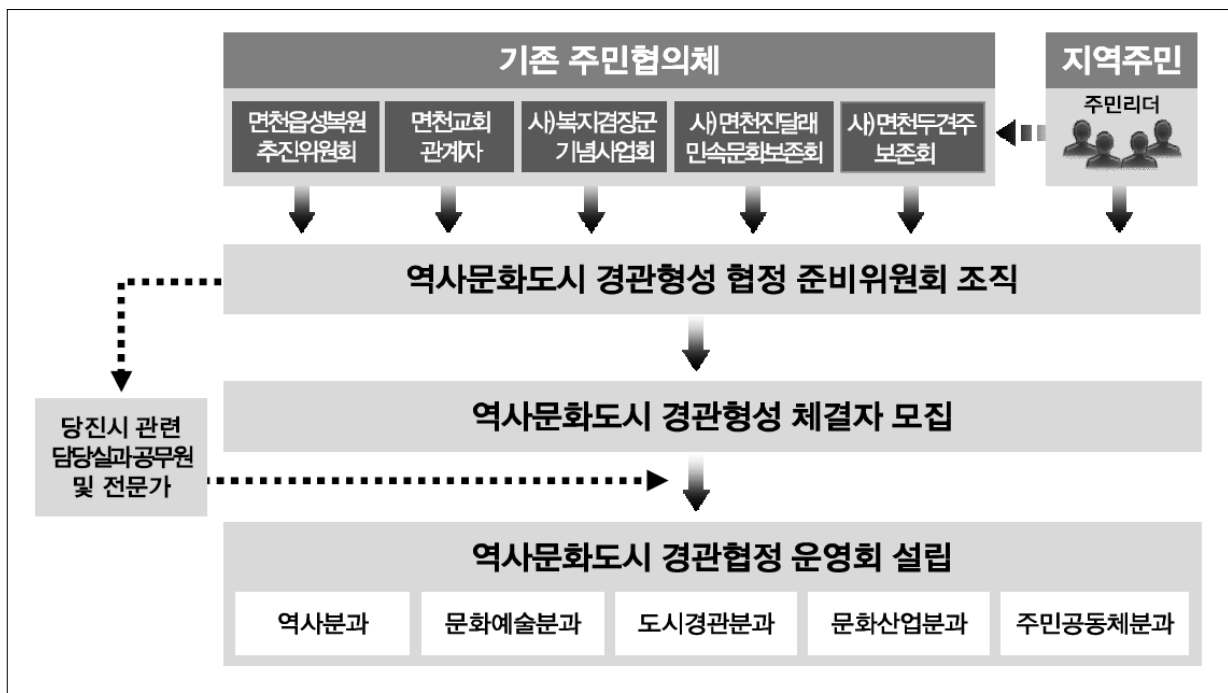
[표 8-4] 역사문화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

민관협력형 경관사업명	협정명	주요협정내용
면천 읍성 내 저자거리 형성	저자거리 함께 가꾸기	• 저자 건축물 입면 보존관리 규약 • 옥외광고물(간판디자인) 개선, 점포 외 공공공간 시설물 제한 및 환경개선 규약
역사문화거리 조성	역사문화거리 함께 가꾸기	• 간판디자인 개선 및 가로환경개선
	디자인으로 만드는 역사문화거리	• 거리 외벽, 옹벽, 학교주변의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
진달래 문화예술 공원 조성	영랑 효 문화체험 만들기	• 진달래, 두견주, 영랑과 관련된 효행길 체험
	진달래 길 함께 가꾸기	• 진달래 문화예술공원 내 진달래길 가꾸기
	진달래 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 갤러리 벽화조성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
면천 역사문화지구 경관 형성	관아 지킴이	• 관주도형 하향식 사업 • 관아 안내 및 관리
	충효정신 지킴이	• 박지원, 복지겸의 딸 등 충효관련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읍성 내 골목길 가로경관형성	읍성 내 골목길 문화쉼터 함께 만들기	• 주민 참여형 골목쉼터 디자인 계획

3) 경관협정 추진예시

(1) 경관협정 지원조직 구성 - 협정유도 단계

-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경관협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관협정 운영회와 함께 공공 및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따라서 당진군 문화체육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면천면에서 경관협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자문단을 운영
- 자문단은 당진시 관련실과 공무원과 도시설계 건축, 조경, 디자인, 역사, 문화, 마케팅, 옥외광고물 분야 등 관련 전문가가 구성되도록 하며 자원봉사형태로 운영



(2) 면천의 특정 역사문화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조직

- 당진시와 면천면에서는 경관협정 대상지의 기존 주민협의체들을 중심으로 경관협정의 일반적인 내용과 절차, 협정체결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
- 지원 가능한 보조금 및 시행 가능한 경관사업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 협정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냄

- 면천주민과 주민협의체가 경관협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면 기존 주민협의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운영회장이, 이 취지를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림

(3) 면천의 특정 역사문화 경관형성 협정서 작성

- 경관협정 운영위원회는 경관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경관협정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며,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
- 경관협정 초안을 작성할 때에 필요시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의 미래상과 목표를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 및 범위를 표시하여 협정체결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
- 또한, 경관형성 및 유도, 개선에 대한 방향 및 경관협정의 대상을 검토

경관협정 초안 (예시)

1. 협정의 명칭: 면천 역사문화거리 경관협정
2. 대상지 위치 및 범위: 면천읍 내 동서남북문지를 연결하는 가로 일대
3. 취지 및 목적
 - 역사문화거리 조성의 필요성과 참여방안 모색
 - 가로 정비와 경관형성에 필요한 주민차원의 실천방안 모색
4. 대상: 개략적으로 방향을 초안의 성격으로 정리
예)건축물(용도, 색채, 규모, 형태, 외관, 외장 / 재질, 지붕선, 차양, 셔터, 옥외광고물, 주차출입구 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부각하여 표로 작성
5. 경관사업의 효과
6. 체결 범위 등

(4) 면천의 특정 역사문화 경관형성 협정 신청 및 인가

협정 신청

- 경관협정 운영위원회는 협정인가신청서 및 경관협정지원신청서를 당진시 문화체육과의 경관협정 전담부서에 제출

협정 인가

- 협정인가신청서 및 경관협정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진시에서는 경관협정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 대상지 규모의 적정성, 유효기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결

정된 내용을 경관협정 운영위원회에 통보

- 통보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

(5) 면천의 특정 역사문화 경관형성 협정 운영

협정운영

- 경관협정이 인가된 후 구역 내의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갖음
 - 따라서 경관협정체결자가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관협정서에 명기된 위반 시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
- 경관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관협정 전 과정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
- 시의 지원을 받은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기간별로 정비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
- 기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정의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음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기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절차는 인가절차와 동일

협정승계

- 경관협정이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내의 협정체결자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 ①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 ②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 ③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권리를 이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

협정폐지

- 기 인가된 경관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 폐지하고,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실시
-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협정의 경우, 협정신청서에 명시된 폐지 시 반환규정을 근거로 시장은 이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부 록

1. 주민공청회 및 보고회의 내용
2. 주민설문내용 - 설문지
3. 색채경관현황조사

1. 보고회 및 자문회의 내용

1.1. 회의 개최 개요

-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장, 담당공무원,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본 연구는 1차 주민공청회(2011.4.29.)를 시작으로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별도의 설명과 면담시간을 가져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계획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회의 개최 일정 및 성격

일정	성격
2011.04.29	· 주민공청회(1차)
2011.06.09	· 주민설문조사(1차, 대상:면천주민)
2011.06.10	· 주민설문조사(2차, 대상:당진주민)
2011.06.30	·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한 워크숍
2011.07.20	· 주민공청회(2차)
2011.07.20	· 군수 면담
2011.09.06	· 중간보고회
2011.09.27	· 주민설명회(3차)
2011.12.09	· 주민설명회(4차)
2011.12.14	· 최종보고회

1.2. 회의 내용

1) 1차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1년 4월 29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12명
 - 관계자 : 김덕주 면천면장,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4인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김성훈
 - 당진군 : 실과 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인사말 및 주제 발표	구자건 당진군문화체육과	· 연구의 필요성 - 문화재 보존에 따른 주민 재산권 제약에 대한 문제해결이 요구됨 -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함께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 · 기본방향 : 현 주민의 주거환경수준을 제고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활성화
자유토론	고경수 전 면천면장	· 사기소리, 원동리, 성하리에 문화 경관 조례 등을 지정하여 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역사자원의 정비 필요 - 민속유물 총 266점(면천초등학교 향토 사료관 148점, 면천 향토유적보존회 78점)을 보존하고, 복지검, 박술희, 박지원 군수 등 역사적 인물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 - 승전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주변 정비가 필요
	구본환 면천교회 목사	· 역사문화 보존 뿐 아니라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 - 면천 내 천혜의 자원을 부각시켜 주거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산업화할 것 - 면천복원 읍성의 중심 축을 형성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슬로건을 세울 것 · 역사자원 요소에 충청남도 최초의 교회인 당진교회를 포함시킬 것
	이권배 추진위원장	· 역사자원 주변 정비 필요함 - 승전목, 저자거리 등
	전용한 면천초등학교장	· 단계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계획의 확충 필요 · 역사문화 보존계획에 도시계획 및 관광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기본계획이 당진군 면천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창출 효과 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 필요
	남광현 당진군문화체육과	· 저자거리 정비, 면천읍성 내 지원조례계획(안)이 필요 · 역사문화적인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2) 2차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1년 7월 20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
 - 관계자 : 김덕주 면천면장,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19인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문화체육과장, 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인사말 및 주제발표	구자건	· 면천읍성의 주변 건축물, 공원, 도로, 하천 등 면천의 자원과 문화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자유토론	주민1	· 전체적인 계획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면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단위사업별 세부내용과 사업 우선순위, 투자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기소리, 성하리, 원동리 지역에는 세부적인 단위사업 내용이 없음 - 송전목 주변의 계획 필요
	주민2	· 역사학습이 가능한 테마공원 조성 계획 필요 - 읍성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음 - 사업내용이 추상적임 - 건축물 정비할 때 건축소유주가 개인이고 비용부담이 있어 모두가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권배	· 면천의 시각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필요 - 건폐율의 확보 필요 - 성하리의 개발가능구역에 도시계획지정을 하여 개발할 필요 - 읍성(토성) 위의 잡목을 제거할 것 · 주민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이규만	· 면천읍성과 영탑사, 골정지, 면천향교, 호수공원 등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
	남광현	· 시범사업으로 서문 밖의 터미널 부근에 광장을 만든다면 효과가 클 것
	주민3	· 면천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람
	주민4	·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할 것 ·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것 -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면천주민들의 이주 실정을 감안하여 계획할 것 · 개발가능구역의 확보 필요

3)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한 워크숍 결과



- 일 시 : 2011년 6월 30일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
 - 토론자 : 이동주(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문화유산부장), 김문수(대전월평동성당 본당 신부) 외 자문위원 7인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김성훈
 - 당진군: 구자건, 남광현 (문화체육과)
- 주제발표(각20분)
 - 제1주제 : “역사도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설정방향”
발표 이동주(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문화유산부장)
 - 제2주제 : “당진 면천 건축경관 현황과 과제”
발표 박철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종합토론	(좌장) 진상철 한국전통문화 학교 교수	• 토론 방향 - 면천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곽 경관의 측면 -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세부 내용 -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
	심정보 한밭대 교수	• 세종 21년에 축조된 읍성이라 특징적인 면이 나타남 - 이전에는 도성 축조 기법에 의해서 축조(내벽이 토벽으로 된 경사면), 세종 20년 부터 주로 읍성 축조 기법으로 축조(내벽이 계단식) - 면천읍성은 두 가지 축조 기법 모두 나타나 있음 • 읍성 내 구조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읍성 내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폐쇄해야 함 - 읍성 내에 서양식의 건물들은 전혀 안어울림 - 최소한 객사, 동헌, 향청 등의 건물을 건립하려면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을 이전 해야 함 • 몽산성, 면천산성, 성상리산성을 관광벨트화하고 진달래축제도 중요한 요소임
	김영모 한국전통문화 학교 교수	• 당진군 경관형성계획, 면천읍성 정비계획의 틀 속에서 정립되어야 함 • 권역으로 나누는 공간적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음 - 정비, 보존, 신규조성의 3개의 아이템으로 정리 필요 - 좀 더 구체적인 건물 개개의 현황조사 필요 (건축물의 타입 분류) • 과연 전통적인 재료란 것은 무엇인지 고민 필요

구분	성명	내용
종합토론	이정수 충남대 교수	· 면천을 역사문화 도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부여, 공주와 같은 사례를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역사문화도시보다 역사문화농촌이 더 가까울 것임 · 지역민들의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함 - 열정적인 공무원, 전문가 필요 · 단순한 ‘짜통’ 도시가 될 우려가 있음 - 구법, 재료에 대한 구체성 검토 필요
	이달훈 대전대 교수	· 읍성을 중심으로 하되, 읍성 내만 적용할 것인지, 성내+성외인지를 확실히 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내의 건물,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표조사와 정밀분석이 필요 · 현재의 가로를 바탕으로 경관분석을 할 것인지, 관아시설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관분석을 할 것인지 살펴볼 것 - 관아시설 중심의 관청거리, 저자거리, 골목길 등 여러 타입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면 좋을 것 · 전통건물들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검토할 것
	김문수 대전월평동성당 본당 신부	· 면천의 역사성, 마을의 공동체성, 의식주를 감안하면서 활용될 수 있는 리모델링의 방법론 등을 고려할 것 - 역사요소 중 원형으로 만들어야 할 것과 복원할 것의 순위를 설정 - 주민의 자부심, 금지가 물리적 요소와 존립될 수 있는 기반 설정 필요
	이왕기 목원대 교수	· 시각분석, 가시권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강화·완화구역을 설정하고 거리별로 가이드라인의 차별성을 둘 것 - 개념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함 · 옛 관아를 복원할 때에는 관리의 용이성, 효율성이 있어야함 · 지속적인 주민교육, 설득, 참여를 통해 주민스스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군수 면담



- 일 시 : 2011년 7월 20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군청 군수실
- 참석인원 : 7명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당진군수, 문화체육과장, 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기본계획 요약설명	박철희	· 연구의 목적 - 역사자원 중심의 경관 형성과 관광 자원화로 지역 경쟁력 확보
군수 면담	이규만	· 영탑사, 호수공원, 골정지, 향교를 연결하는 축을 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읍성 내 일부는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당진군수	·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테마 거리와 건축물 조성이 필요 - 고려, 조선, 근대사회의 역사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일률적으로 전체가 한옥이 아닌, 당시의 시대에 맞는 건축물로 계획할 것 · 현재의 유물 보존, 보전을 조화롭게 해야 함 - 영탑사, 몽산성, 아미산 주변의 경관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아미산을 통해 먼 천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됨 - 면천의 역사문화요소를 잘 살리되, 필요시 색채나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

5) 중간보고회



- 일 시 : 2011년 9월 6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군청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당진군수, 문화체육과, 개발위원장, 각 실과장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자유 토론	당진군수	·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단계별 복원·재현사업 계획필요 - 손쉬운 것부터 추진내용,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함 · 면천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해결방안과 읍성 내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건설과, 도시과에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유병현	· 사업우선순위,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음
	개발위원장	· 면천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냉소적인 시각을 바꾸어주어야 함
	성상리 1구 이장	· 읍성내 거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위성에 대해 이해시킬 것 ·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함 -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저자거리 조성 - 수변공원 주변의 오염이 심각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필요
	이권배	·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차 복원 시 성하리 지역의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 필요 · 면천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와식 지붕으로 계량할 것을 제안 ·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정비계획을 세울 것
	박의원	· 단계별사업계획으로 생산적인 역사문화도시 계획을 세울 것
	이노식의원	·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면천이 당진군의 대표적인 문화마을이 되도록 할 것
	기획실장	· 타지역과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자원확보의 대책마련 필요
	실과장1	· 공연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몽산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것 ·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로계획, 주차장 조성 필요
	도시건축과 계장	· 볼라드는 노약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탄성형으로 하며, 가로조성 사업비의 현실화 가 필요하며, 보도의 색을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로 조정 · 블록을 판석으로 하여 사업비를 재검토할 것 ·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계별 사업추진이 필요
	최선규 도시과장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필요 (이정표, 가로등) · 원동저수지, 골정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한 산지공원 조성을 제안

6) 주민설명회(3차)



- 일 시 : 2011년 9월 27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 관계자 : 김덕주 면천면장,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장, 마을주민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문화체육과장, 팀장, 주무관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질의응답	주민1	· 건폐율을 확보하여 주거공간을 늘릴 것
	이권배 추진위원장	· 학교와 면사무소가 이전된다면, 읍성 내의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권 활성화 방안이 대책이 있어야 함 - 장기계획뿐만 아니라 당장의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면천초등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읍성 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면천초등학교를 이전하지 않고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에산안을 계획하여 사업의 현실가능성을 검토할 것
	주민2	· 면천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함
	주민3	· 저자거리의 가장 먼저 조성하여 지역상업을 활성화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 실현가능하고 예산이 적은 사업부터 실행할 것
	주민4	·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함 · 사업에 의한 시설의 유지,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면천의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학교 이전 시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

7) 주민설명회(4차)

- 일 시 : 2011년 12월 9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인원 : 40명
 - 관계자 : 김덕주 면천면장,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장, 마을주민
 -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전행정부지사, 개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주사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질의 응답	이권배 추진위원장	· 사전에 주민과 협의 없이 사적지를 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큼
	오승환 개발위원장	· 지금은 현재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관이 자주 협의해야 할 시기임
	주민	· 사업구상의 실현가능성 만이 아닌, 앞으로의 선행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남광현 당진군 문화체육과	· 경관가로의 공간적 범위에 골정지를 포함시킬 것 · 골정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이 필요 · 주차장 조성내용을 강조할 것 · 사업별 사업지구 조감도를 보여줄 것

8) 최종보고회



- 일 시 : 2011년 12월 14일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군청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 충남발전연구원: 박철희, 이상준, 이승주
 - 당진군 : 당진군수, 당진군의회의원, 사업소장, 각 실과장, 면천면장
 - 자문위원 : 박상훈 연구위원, 이정수 교수
- 주요내용

구분	참석자	내용
자유토론	당진군수	· 사업을 단계별로 수행할 것 · 당진의 역사적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일 것 · 솔매성지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박상훈 연구위원	· 지역 내에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열의가 중요한 요소임
	이정수 교수	· 면천은 진달래, 두견주를 특화시켜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신축을 지양하고 면천 고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장터와 숙박시설·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경관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고려한 배리어프리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교육, 성공사례지 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설득, 자극 필요가 있음 · 전문가와 주민간 관계에 있어서 화합,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 · 상징문은 효자문을 현대화한 디자인이 더 좋을 것 같음
	김명선 의원	· 저자거리, 진달래공원 조성의 연계사업이 필요 ·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재정확보에 신경쓸 것
	기획정책 실장	· 면천에서 진달래, 철쭉의 식생이 어려우므로 대체할 식생이나 대안이 필요 · 관광객 유치에 위해 소규모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사업이 필요 ·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
	도시과장	· 읍성 내에 개발행위금지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것 ·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수변생태체험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스타프로젝트와의 연계사업으로 원동저수지 경관조성이 시급함
	건축과장	· 옥외광고물 정비는 사업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강제성을 줄 필요가 있음으로 경관심의에서 검토할 것
	건설과장	· 하수계획, 배수계획에 있어서 하천과 연계시켜 방안을 모색할 것
	문화체육 과장	· 주민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시행되어야 함
	실과장1	· 원동저수지 정비사업을 앞 당겨 주었으면 함
	면천면장	· 읍성을 남문까지 복원하고, 영랑거리를 활성화시켜야 함 · 저자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함 · 원동저수지와 몽산 주변의 사업계획이 필요 · 몽산, 아미산, 다불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준비했으면 함

2. 주민설문내용 - 설문지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당진군의 의뢰로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적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면천지역의 중요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당진 면천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6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박철희 연구위원 [☎(041) 840-1142]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이상준 연구원 [☎(041) 840-1146]

1. 도시 이미지

문-01. 면천 도시이미지에 관련된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면천도시 이미지 인지도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낮다
면천도시 이미지 호감도	좋다	약간 좋다	보통	약간 싫다	싫다
면천도시 이미지 독특성	독특	약간 독특	보통	약간 독특 하지 않음	독특하지 않음

문-02. 미래의 면천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 개의 단어로 기록해 주십시오. _____)

2. 역사부문

문-01. 귀하께서는 면천이 국가,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면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사건 또는 인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 역사적 장소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2) 역사적 사건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3) 역사적 인물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2. 귀하께서는 면천이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특기할 만한 역사유적이나 기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1. 면천에 있는 중요한 역사유적과 문화재는 진정성(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2. 면천은 역사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3. 면천의 특기할 만한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3. 귀하께서는 면천이 역사도시로서 역사적 환경(공간 구조, 배치 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1. 면천의 도시구조가 역사도시로서 타 도시(부여, 전주 등)와 비교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2. 면천의 도시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4. 면천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유산 또는 전통은 학문적 또는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3. 역사문화 공통부문

문-01. 면천은 역사·문화적 전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면천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1.2. 면천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사상이나 철학, 문학과 예술 등)이 현대까지 전승 또는 창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4. 문화 부문

문-01. 면천은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 창조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1. 면천은 충분한 문화예술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2. 면천은 충분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3. 면천은 문화예술 활동(공연, 전시, 축제, 행사 등)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4. 면천은 문화예술 창조와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1.5. 면천의 대표적인 문화자원(문화예술 인물, 문화시설, 공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2. 면천은 문화도시로서 아름답고 독특한 도시경관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1. 면천은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2. 면천은 주요한 역사문화유산과 시설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3. 면천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를 배려한 안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2.4. 면천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3. 면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1. 면천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자원 또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2. 면천은 문화산업지원을 위한 법제도, 자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3. 면천의 미래 도시경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3.4. 면천의 경제를 이끌 미래 문화(콘텐츠)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04. 면천 주민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1. 면천주민들이 면천에 대해 역사문화적 자긍심(애착,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2. 면천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를 면천의 미래 대표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3. 면천주민들이 역사, 문화, 전통 등의 행사(축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문-04.4. 면천주민들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의체, 상설기구 등)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응답자 특성

본 설문항목은 통계처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DQ-0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DQ-02.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DQ-03. 귀하의 직업은?

-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학생 ④ 주부 ⑤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⑥기타()

DQ-04. 귀하의 현재 살고계신 거주지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거주지 : 시(군) 구(동, 읍, 면) , 거주기간 : 년

DQ-0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색채경관현황조사

3.1. 당진 면천의 경관색채 개념 설정

-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도시 경관형성을 위한 당진군만의 정체성을 갖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당진 면천군민 및 당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출된 당진 면천의 미래 도시 이미지로 역사 및 전원도시, 역사도시, 두견주, 면천읍성, 문화도시 등으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진군은 역사문화도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전체적인 경관색채에 대한 개념(이미지)도 이러한 역사문화도시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점잖은, 고상한, 우아한)으로 설정함. 이는 당진면천지구의 경관형성 목표인 “고려 충효의 전통이 살아있는 그 면천”과 일치함

3.2.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 분석

- 당진 면천 읍성의 구체적인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천의 경관자원 중에서 응답빈도 및 응답강도를 고려하여 순위 5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선정된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면천의 역사적 장소

- 면천읍성, 영탑사, 면천향교, 은행나무(계절색 고려), 골정지

2) 면천의 역사유적이나 문화재

- 면천읍성, 영탑사, 두견주, 은행나무, 군자정

3) 면천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 및 대표적인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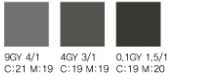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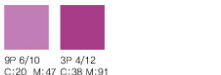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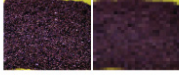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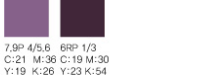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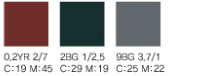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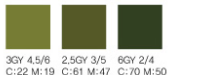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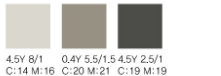
- 진달래 및 진달래 축제, 두견주, 면천향교, 면천읍성

4) 면천의 대표적인 도시 경관

- 면천읍성, 면천향교, 영탑사, 골정지, 군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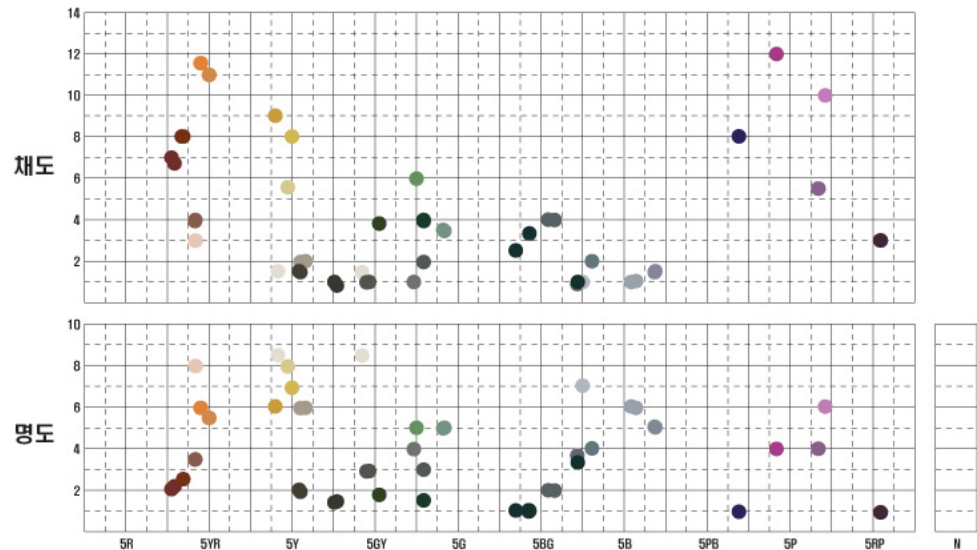
5) 면천의 경제를 이끌 미래 문화자원

- 면천읍성, 두견주, 문화재(생략), 문화재 보존(생략), 진달래 및 진달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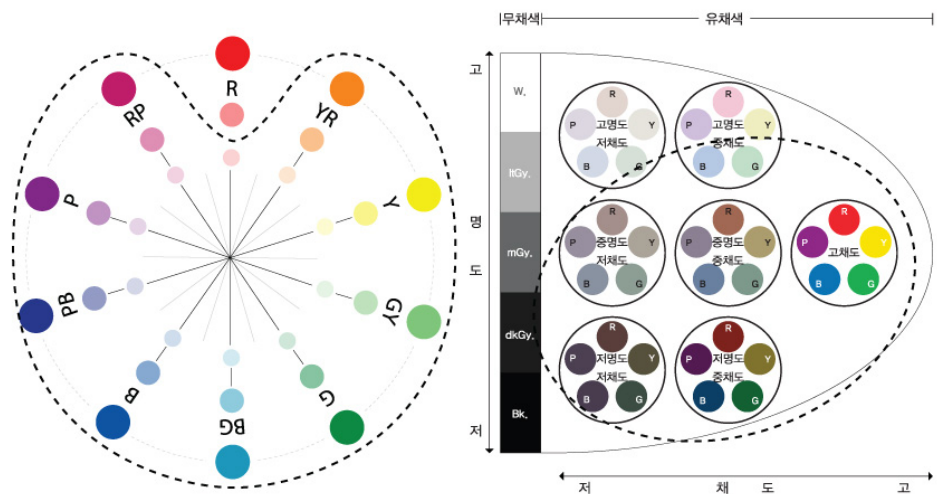
면천향교			2YR 2.5/8 6.5P 1/8 1G 1.5/4 6.5Y 6/2 C:32 M:85 C:37 M:43 C:30 M:19 C:20 M:23 Y:99 K:41 Y:19 K:44 Y:26 K:57 Y:30 K:15
면천읍성			9GY 4/1 4GY 3/1 0.1GY 1.5/1 C:21 M:19 C:19 M:19 C:19 M:20 Y:21 K:35 Y:21 K:47 Y:22 K:58
진달래			9P 6/10 3P 4/12 C:20 M:47 C:38 M:91 Y:21 K:3 Y:14 K:1
두견주			7.9P 4/5.6 6BP 1/3 C:21 M:36 C:19 M:30 Y:19 K:26 Y:23 K:54
영탑사			3G 5/3.5 3YR 3.5/4 6Y 2/1.5 3GY 8.5/1.5 C:58 M:30 C:38 M:77 C:19 M:23 C:23 M:23 Y:52 K:5 Y:79 K:39 Y:24 K:55 Y:20 K:7
골정지			6.5B 6/1 8B 5/1.5 8B 2/4 C:27 M:24 C:27 M:24 C:23 M:21 Y:20 K:12 Y:20 K:12 Y:19 K:31
군자정			0.2YR 2/7 2BG 1/2.5 9BG 3.7/1 C:19 M:45 C:29 M:19 C:25 M:22 Y:46 K:36 Y:20 K:61 Y:19 K:35
은행나무 (봄)			3GY 4.5/6 2.5GY 3/5 6GY 2/4 C:22 M:19 C:61 M:47 C:70 M:50 Y:48 K:31 Y:99 K:31 Y:88 K:56
은행나무 (여름)			2.5G 6/4 3GY 4.5/6 6.5GY 2.5/5 C:33 M:20 C:22 M:19 C:26 M:19 Y:28 K:16 Y:48 K:31 Y:33 K:50
은행나무 (가을)			4Y 8/5.5 3Y 6/9 4.5Y 5.5/8.5 10GY 5/6 5Y 7/8 C:9 M:20 C:20 M:36 C:20 M:32 C:64 M:25 C:20 M:24 Y:44 K:0 Y:75 K:1 Y:75 K:10 Y:76 K:7 Y:81 K:0
은행나무 (겨울)			4.5Y 8/1 0.4Y 5.5/1.5 4.5Y 2.5/1 C:14 M:16 C:20 M:21 C:19 M:19 Y:19 K:0 Y:27 K:21 Y:21 K:50

[부록그림-1]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 색채의 모자이크 분석

- 다음으로 선정된 경관자원 중 인물, 정신 등 색채이미지로의 전환한 분석이 어려운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대상으로 모자이크 분석을 실시함. 1)-5)에서 선정된 경관자원 중 복수응답을 고려하여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음



[부록그림-2]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의 색채분포도



[부록그림-3]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 당진 면천의 경관자원색채는 R계열을 제외한 YR~RP계열의 색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으며, 명도는 저명도에서 고명도에 걸쳐서 모두 분포하고 있었으며, 채도의 경우에는 12이하의 저중고채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음. 이는 당진 면천군의 경관자원색채가 다양한 색상, 명도,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3. 경관색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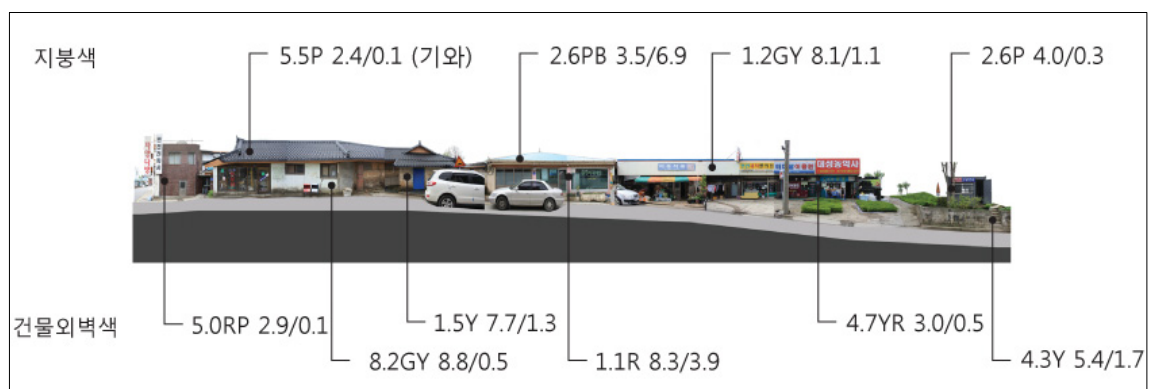
- 당진 면천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면천읍성의 건축물 등의 현황색채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조사대상은 경관형성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되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로 등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함
- 조사 시기는 연구기간의 한계상 2011년 7월 사이에 이루어짐.
색채의 측색은 맑은 날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 사이에 태양고도·공기의 청정도를 무시한 자연주광을 조명조건으로 실측하였으며, 여러 색이 섞여 있는 대상은 혼색상태로 치환하여 처리함. 그리고 원색을 측색하는 것으로 함
- 측색방법은 한국표준색표집(먼셀 표색계 : Munsell Color System)을 대상에 근접시켜 측정하는 육안비색법과 휴대용 접물색채계(Minolta : CR-400)를 이용함. 그리고 측색대상에 대한 디지털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조사표에 대상의 재료, 측색거리 등 구체적인 측색과정을 기록함
- 이상에서 측색된 자료를 색표작업화 하여 이미지색채일람표(Color palette)를 작성한 다음 측정된 먼셀값을 먼셀 색채분포도에 배치하여 그 색채특성을 분석함
- 그리고 디지털 사진 촬영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모자이크 분석을 실시하여 색채일람표를 작성함



[부록그림-4] 측색현황(먼셀표색계를 이용한 육안비색법 & 휴대용 접물색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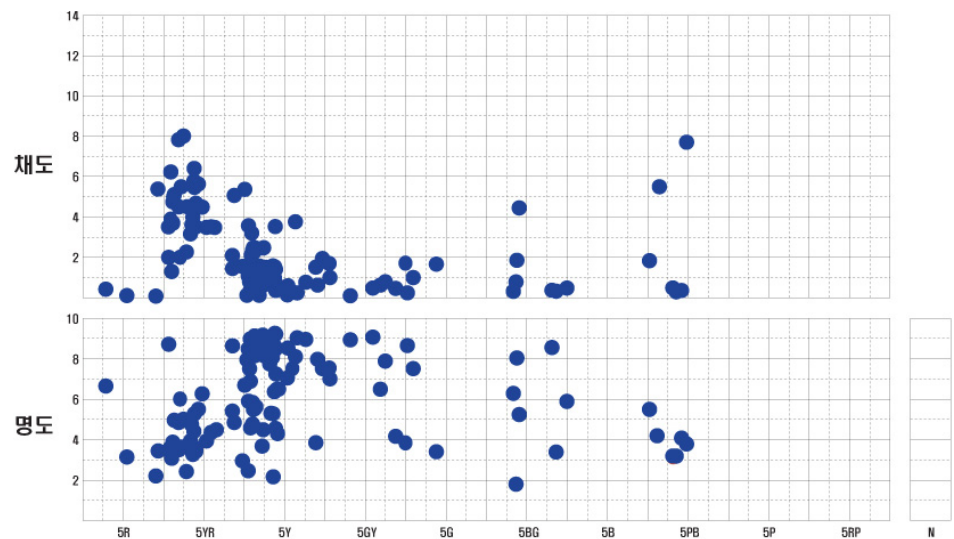
(1) 건축물

- 먼저 건축물의 경우 가로경관에서의 정면부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외벽 주조색과 지붕색을 측색함. 그리고 먼저 건축물의 지붕색과 건물외벽색을 사진 이미지화일에 그림과 같이 정리한 후, 전체 건축물에서 측정된 먼셀값을 먼셀 색채분포도에 배치하여 그 색채특성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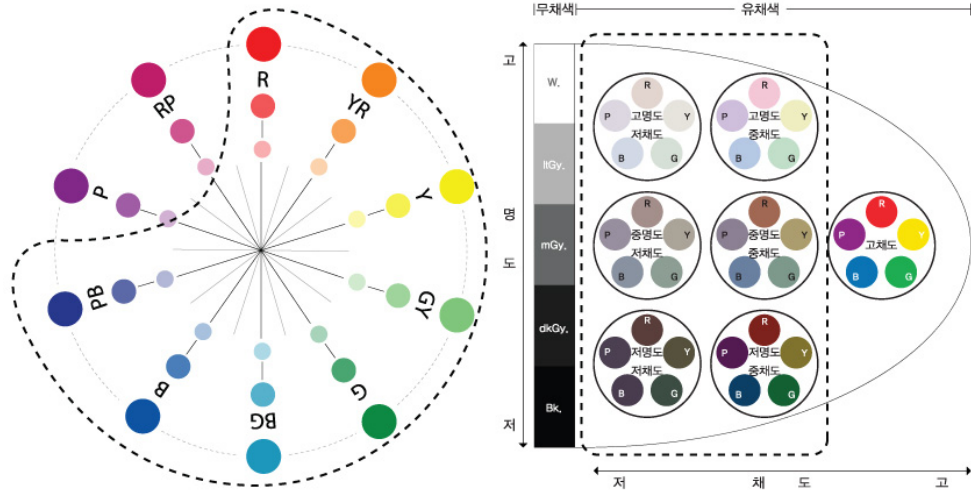


[부록그림-5] 건축물의 지붕색과 건물외벽색의 측색결과 예시(1HS-2의 예)

-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의 외벽 주조색은 P, RP, 무채색인 N계열을 제외한 모든 색상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R, YR, Y 계열의 3이상의 중·고명도/8이하의 저·중채도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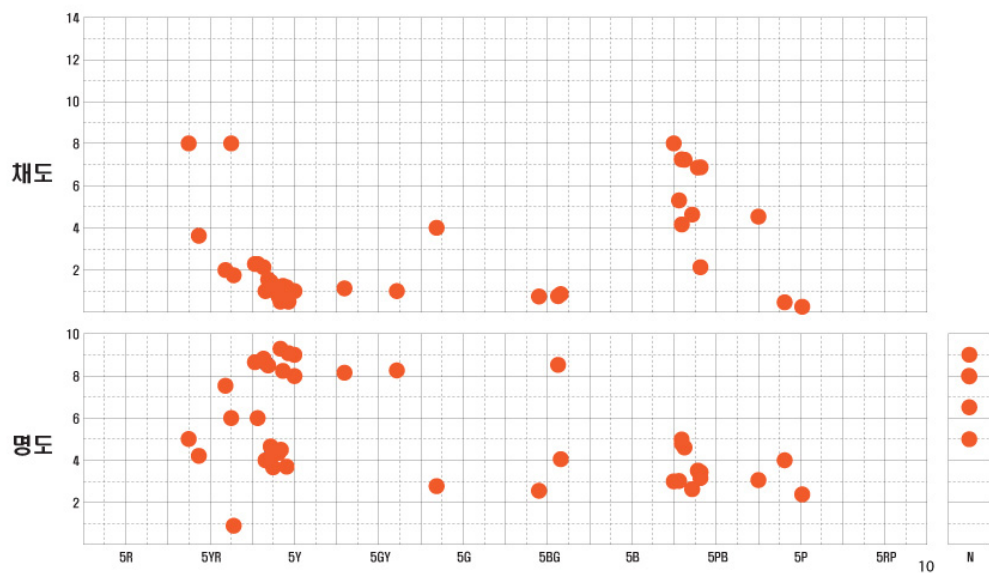


[부록그림-6] 건축물 외벽색의 먼셀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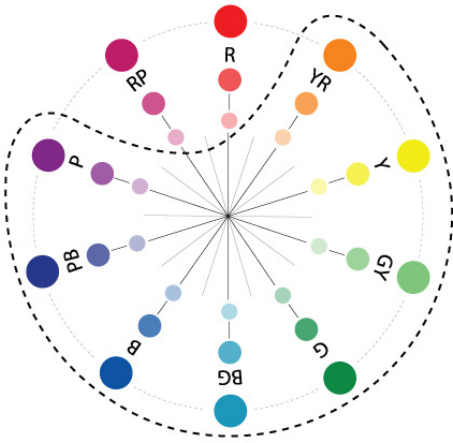


[부록그림-7] 건축물 외벽색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 건축물의 지붕색의 경우, R, RP계열을 제외한 색상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YR, Y계열과 무채색 N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명도는 모든 색상과 무채색계열에서 중·고 명도에 나타나고 있었음. 그리고 채도는 모든 지붕색이 8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4이하의 저채도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음



[부록그림-8] 건축물 지붕색의 먼셀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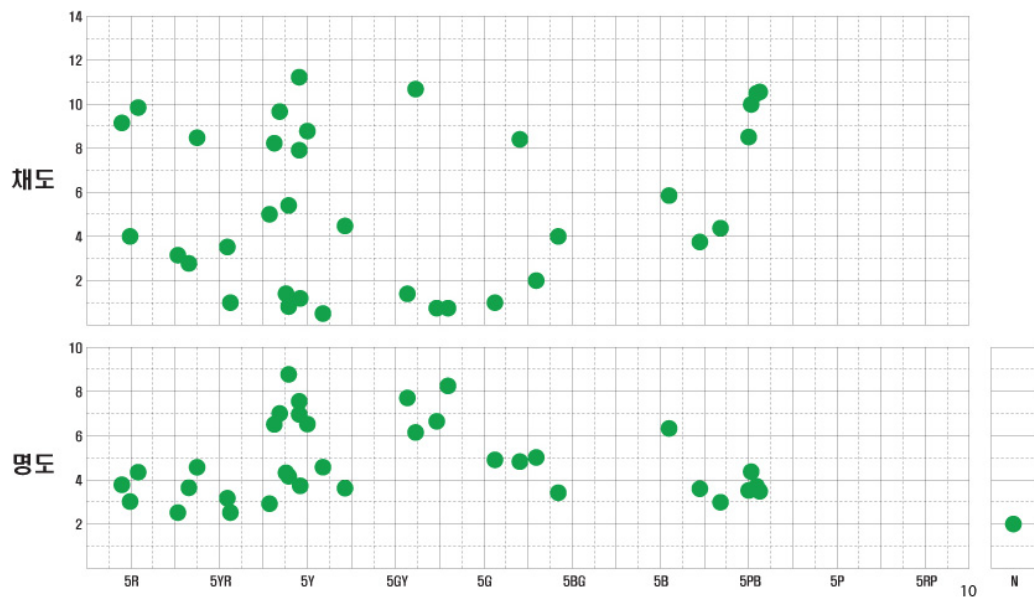
[부록그림-9] 건축물 지붕색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2) 가로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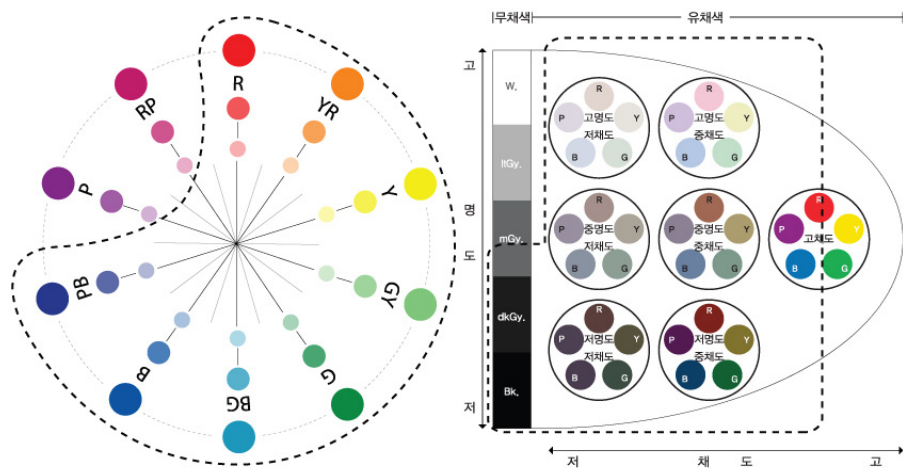
- 가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버스 정류장, 관광안내도, 가로 등, 볼라드, 웬스, 각종 안내표지판 등을 대상으로 색채를 조사함(그림 참조). 건축물 색채현황분석과 동일한 순서와 방법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로시설물의 색상은 P와 RP를 제외한 R-PB까지의 다양한 색상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명도는 2 이상의 저명도에서 고명도, 채도는 12이하의 저채도에서 고채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음



[부록그림-10] 가로시설물 모자이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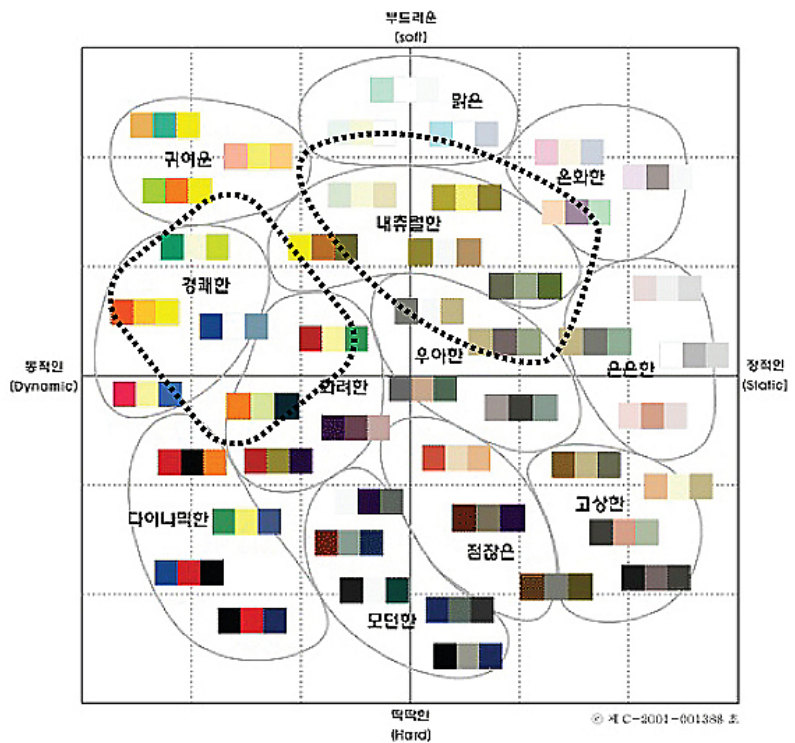
[부록그림-11] 가로시설물의 먼셀분포도



[부록그림-12] 가로시설물의 색상 - 색조(tone) 영역분석

(3) 종합 결론

- 당진 면천읍성의 색채현황조사결과 당진 면천의 건축물 색채 및 가로시설물 색채의 경우 색상, 명도, 채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당진 면천의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전체적인 경관이미지에 대한 색채개념의 설정이 부족하여 당진 면천만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다음과 같이 당진 면천의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건축물, 가로, 가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부록그림-13] 당진 면천의 현재의 색채이미지

참여 연구진

본 영역은 아래의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주 관 기 관 당 진 시

연구수행기관 충 남 발 전 연 구 원

연구 책임 박 철 희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원내연구진	김 정 연	선임연구위원	자문위원	김 영 모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권 영 현	연구위원		김 문 수	대전월평동 본당 신부
	조 봉 운	연구위원		박 상 훈	(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오 용 준	연구위원		심 정 보	한밭대학교 교수
	한 상 욱	연구위원		이 달 훈	대전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연구원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교수
	송 지 현	연구원		이 정 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 승 주	연구원		진 상 철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김 성 훈	연구원			
	심 나 흥	연구원			

원외연구진 임 오 연 건양대학교 교수